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 士 學 位 論 文

改革教會의 天使論

啓 明 大 學 校 大 學 院
神 學 科

崔 德 根

崔
德
根

指 導 教 授 黃 在 範

2
0
0
7
年
6
月

2 0 0 7 年 6 月

改革教會의 天使論

指導教授 黃 在 範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 0 0 7 年 6 月

啓 明 大 學 校 大 學 院
神 學 科

崔 德 根

崔德根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 審 吳 牛 星

副 審 鄭 重 祐

副 審 許 道 華

副 審 金 東 鍵

副 審 黃 在 範

啓 明 大 學 校 大 學 院

2 0 0 7 年 6 月

감사의 말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황재범 교수님의 깊은 배려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을 맡아 본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도해 주신 오우성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바쁘신 중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정중호 교수님, 허도화 교수님, 그리고 멀리 영남신학교에서 지도해 주신 김동건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송라제일교회 당회원과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형제자매님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인내하며 열심히 기도해 준 사랑하는 아내 김제숙과 이쁜 딸 지혜, 멀리 호주에 가 있는 아들 병제에게도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 6월

최 덕 근

목 차

1. 서론	1
1.1 연구목적	1
1.2 연구사	4
1.3 연구방법 및 범위	8
2. 천사에 대한 역사적 이해	10
2.1 초대교회에서 중세까지	10
2.2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사론	15
2.3 종교개혁 이후 근세까지	21
3. 개혁신학자들의 천사론	26
3.1 칼빈의 천사론	26
3.1.1 천사론의 근거	26
3.1.2 천사의 사역	27
3.1.3 천사 숭배	28
3.1.4 천사의 명칭과 계급	30
3.1.4.1 천사들의 명칭	30
3.1.4.2 천사들의 계급과 수와 모양	31
3.1.4.3 수호천사	32
3.1.5 마귀론	33
3.1.5.1 마귀의 출생	33
3.1.5.2 마귀의 속성과 한계	34
3.1.5.3 마귀의 활동과 영적전투	36
3.1.5.3.1 마귀의 활동	36
3.1.5.3.2 영적전투	37

3.2 튜레틴의 천사론	39
3.2.1 천사의 창조	40
3.2.2 천사의 형체와 모양	41
3.2.3 천사들의 지식과 능력	44
3.2.3.1 천사들의 지식	44
3.2.3.2 천사들의 자유의지	45
3.2.3.3 천사들의 힘과 한계	46
3.2.4 천사들의 계급과 순서	47
3.2.5 천사들의 사역과 천사송배	49
3.2.5.1 천사의 중재와 사역	49
3.2.5.2 천사송배	53
3.2.6 수호천사	54
3.3 찰스 하지의 천사론	56
3.3.1 천사들의 본질	57
3.3.2 천사들의 지위	58
3.3.3 천사들의 임무와 수호천사	59
3.3.4 악한 천사들	61
3.3.4.1 악한 영들의 능력과 행위	63
3.3.4.2 귀신들림	63
3.4 바르트의 천사론	65
3.4.1 천사론의 근거와 한계	65
3.4.2 천사의 사역	67
3.4.3 천사들의 명칭과 계급	69
3.4.3.1 천사들의 명칭과 계급	69
3.4.3.2 수호천사	70
3.4.4 마귀론	70

3.4.4.1	마귀의 존재와 출생	70
3.4.4.1.1	마귀의 존재	70
3.4.4.1.2	마귀의 출생	73
3.4.4.2	마귀의 속성과 활동	75
3.5	신앙고백문 속의 천사론	75
4.	개혁교회의 천사론	79
4.1	천사론의 근거와 천사의 존재	79
4.1.1	천사론의 기원	79
4.1.1.1	천사론의 근거	79
4.1.1.2	악의 존재 문제	84
4.1.2	천사의 존재와 창조	90
4.2	천사의 사역과 품성	94
4.2.1	하나님과 관련한 사역	94
4.2.2	인간들과 관련한 사역	95
4.2.3	성령과 천사의 사역	98
4.2.4	천사의 능력과 한계	101
4.3	천사의 명칭과 계급과 수와 모양	102
4.3.1	천사들의 명칭과 계급	102
4.3.2	천사들의 수와 모양	106
4.3.2.1	천사들의 수	106
4.3.2.2	천사들의 모양	107
4.3.2.3	수호천사	110
4.4	천사 숭배	113
4.5	마귀론	115
4.5.1	마귀의 존재와 출생	115
4.5.2	마귀의 속성과 한계	119

4.5.3 마귀의 활동과 영적 전투	120
5. 한국교회의 천사론과 마귀론	126
5.1 천사론	126
5.2 마귀론	129
6. 결론	135
참고문헌	143
영문초록	149
국문초록	153

1. 서 론

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개혁신학(Reformed Church)의 전통 가운데 있는 중요한 신학자들 및 개혁신학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신앙고백문 속에 나타난 천사론을 통하여 개혁신학 일반과 한국장로교회의 천사론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즉, 개혁신학의 창시자인 존 칼빈(John Calvin), 17세기 칼빈주의 정통주의 지도자인 프랑소아 튜레틴(Francis Turretin), 19세기 구 프린스턴 신학을 지배한 찰스 하지(Charles Hodge),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개신교 신(新) 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 및 에밀 브룬너(E. Brunner) 등 개혁신학자들의 천사론을 통하여, 혼돈 가운데 있는 한국장로교회의 천사론을 분명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천사와 마귀는 그리스도교의 오랜 경험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와 마귀에 대해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성경과 교회의 신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문학과 예술에 흔히 나타나는 형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날개를 가진 아기천사, 빨과 긴 꼬리가 달린 괴물이 천사와 마귀에 대한 우리 지식의 전부이다. 그리고, 그러한 형상은 현대인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그 형상이 가리키는 실재 즉 천사와 마귀의 현존마저 의문시 되게 한다. 그들은 전설이나 우화 같은 유치한 환상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무지는 매우 놀랄만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천사들에 대해 수 없이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66권 중 구약에서 17권, 신약에서 17권, 도합 34권이 천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구절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108회, 신약에서 165회나 언급하고 있다.¹⁾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천

사나 마귀에 대한 증거가 얼마든지 성경 가운데 풍부하며 실제적인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랄 것이다.

구약의 첫 머리에서부터 천사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들로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은 사건들의 무대 배후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이루어가는 대행자로서 일하는 배역인 것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심판을 수행하며 축복들을 전달해 주고 있다.

신약에 있어서도 복음서나 서신서들이 천사들의 실재와 사역을 결코 경시하고 있지 않다. 계시록에서도 모든 사건과 대화 그리고 구성 면에서 천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론 성경에서 천사들이 주인공이 아님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건들 속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들이다.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처럼 확실하다고 성경은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천사를 잃어 버렸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천사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며, 천사와 연관지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비록 우리 시대엔 천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적다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에 중요하며, 천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 훨씬 더 유신론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화란 신학자 베르카우어(G. C. Berkouwer)는 천사들에 대한 부정은 마귀와 사탄에 대한 부정을 통해 생겨난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천사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통치를 보다 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²⁾

1) 천사라는 용어는 전달자(messenger)라는 뜻의 평범한 단어이며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전달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경에서 천사가 몇 번 언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셀 수는 없다.

2) G. C. Berkouwer, *The Providence of God*, translated by L. B. Smedes (Grand Rapids, MI: Eerdmans, 1952), 77.

그런가하면 피터 버거(Peter L. Berger)는 “천사들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모두에서 이 신의 사자들(angeli)로 되풀이 되어 나타나면서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현존과 그의 초월성의 신호가 된다”고 하였다.³⁾ 이러한 베르 카우어와 피터 버거의 말에 따르면, 현대교회가 신의 현존이 없는 추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찌면 잃어버린 천사 때문은 아닐까? 더구나 장로교회의 창시자 칼빈은 “누구를 막론하고 원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원수를 저항하는 일에 태만하거나 부주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⁴⁾고 하면서, 교회에서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말하였다.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교회는 결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없으며 영적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구체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요일 3:8). 그러므로,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최초의 승리인 동시에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신 예수 안에 굳게 설 때 가능하다(엡 6:10-13).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천사들은 심판과 구속(救贖)에서 신의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신호해 준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영적 진공상태는 온갖 이단적인 영적 가르침과 뉴 에이지적인 초자연적 사건들의 범람 앞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천사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로교인들 가운데는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비성경적 문화의 확산에 따라 천사들은 마치 UFO를 타고 등장하여 인류에게 새 시대(뉴 에이지)를 열어 줄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시중에 나온 많은 천사에 관한 서적들의 내용이 상이하여 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러한 무질서가 교회 내부에 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 반면에 마귀의 활동과 사탄의 승배는 세계 전역에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사탄은 그 악마적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참된 믿음과 신령한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3) Peter L. Berger, **현대사회와 신**, 김쾌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155.

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김종흡 외 3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I. x iv. 19.

따라서 본 연구는 개혁신교회 전통 위에 서 있는 존 칼빈과, 17세기 정통주의의 튜레틴, 한국 장로교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19세기 미국 보수주의 신학자 찰스 하지, 그리고 근세신학이나 현대신학에서 거의 무시되어 오던 천사론을 정식으로 신학의 한 과제로 취급한 칼 바르트의 천사론을 연구함으로써, 한국 장로교회의 천사론을 바르게 세우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천사론을 통하여 개혁신교회의 신앙이 추상성을 벗어나서, 신의 현존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영적 전투임을 일깨우고, 영적전투를 힘있게 하도록 하는데 있다.

1.2 연구사

기독교회는 구약시대 초기부터 천사들의 존재를 믿어 왔다. 특별히 페르시아인들 가운데서 천사들의 교리가 발전되었는데, 많은 비평가들은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인들로부터 그들의 천사론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⁵⁾

그러나, 이것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가설은 분명히 태초부터 천사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될 수 없다. 다만 구약성경 중 늦게 저술된 책들 속에 천사에 대한 언급이 좀 더 분명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즉, 그때부터 “착한 천사와 나쁜 천사가 명확하게 구별되기 시작했고, 세 천사(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의 이름이 밝혀졌으며, 또한 천사의 사명-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왕국, 민족, 개인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 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 제시되었다.”⁶⁾ 즉, 바벨론 유배시기 이후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이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의 자연현상과 인간 역사를 운행하는 존재로서의 천사관이 더욱 발전하였다.

예수 시대에는 유대주의의 바리새파와 엷세네파는 천사를 인정하고, 사두개파는 부정하였다. 그 후 기독교 신학은 이런 천사에 대해 사도시대나 속

5)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London: Cox & Wyman Ltd. Fakenham and Reading, 1971), 143.

6) Ferdinand Holbock, *천사론*, 이숙희 역 (서울: 성요셉출판사, 1989), 19.

사도시대에는 성서의 견해를 따랐으나 특별한 중요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신플라톤 철학의 환상적이고 광대한 영계철학의 영향을 받아 중세신학은 천사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A.D 800년부터 종교개혁시대까지인 중세시대에는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본질에 관한 고찰이 스콜라철학자들의 기록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천사의 본성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스콜라 철학 시대까지는 존재하지 않다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스콜라적인 분명한 입장이 완성되었다. 이후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의 공의회(제 4차 라테란 공의회, 제 1차 바티칸 공의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언한 신앙교리이다. 칼빈은 이런 중세신학의 여파로 광범한 천사론을 전개한다.⁷⁾

그러나, 계몽주의가 확산된 근세신학에서는 천사론이 거의 무시를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천사들에 대한 주장들이 점점 신뢰할 수 없는 하나의 신화론으로 간주되어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더구나 18세기의 합리주의는 담대하게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성경이 그들에게 관하여 가르치는 바를 일종의 조절(accommodation)로 설명하였다.⁸⁾ 즉, 성경이 천사들과 귀신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몽매(蒙昧)에게 양보함이거나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은 천사론이 너무 신화적이며 사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사론은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이후 조직신학적 주제에서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 뿐 아니라, 주로 북미 선교사들의 영향 하에 신학연구가 이루어진 한국교회는 천사론이 신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1975년에 쓴 *Angels, God's Secret Agents*가 번역되어 나온 것이 천사에 대한 본격적인 처음 소개이다.⁹⁾ 그 후 1980년대 들어 김기동 목사가 **마귀론**을 쓴 이후 귀신론이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구면서 1990년

7) 이종성, **신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295.

8) L. Berkhof, 143.

9) Billy Graham, **천사론**, 김만풍 역 (서울: 한국복음문서선교회, 1976).

Billy Graham, **천사론**, 도한호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77).

대 이후에 몇 권의 천사에 관한 책들이 주로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했으며,¹⁰⁾ 한국인이 쓴 것으로는 김호식의 **천사론: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다**.¹¹⁾

신학계에서는 천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천사론 항목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그 항목에 있어서도 매우 피상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¹²⁾ 다만, 김재진이 칼 바르트의 신학을 소개하면서,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천사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단순히 하나님을 시중하는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현존하는 천상의 영적존재로서, 천사를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한 글이 있다.¹³⁾

학위논문으로는 “천사의 존재와 그 사역에 관한 고찰”¹⁴⁾ “천사론 연구”¹⁵⁾ 등이 있으며, 유사한 논문으로 “이사야 14장의 천사론적 해석 가능성 연구”¹⁶⁾ “유대 기독교의 천사기독교론”¹⁷⁾ 등이 있을 뿐이다. 또한 학술논문도 전무한 상태이며, 로마 가톨릭 잡지에 에세이 형식의 “천사와 악마는 존재할까?”¹⁸⁾ “천사는 누구인가?”¹⁹⁾ 정도가 있다.

그러나, 국내와 달리 외국에서는 천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다. Barth, Cullmann, Alders 등의 신약의 “권세들”에 관한 새로운 석의는 천사론에 대한 흥미를 부흥시킴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피 번햄이 1990년에 쓴 *A Book of Angels*가 천사들에 대한 관심에

10) Adrew J. Bandstra, **천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류호영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6); Mailyynn Carson Webber, **천사를 만난 사람들**, 조은주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6); 이나가키 료스케, **천사론**, 김산춘 역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9); Terry Law, **천사를 만난 사람들**, 조경옥 역 (서울: 은혜출판사, 2000); Al Lacy, **천사는 있다**, 정동수 역 (서울: 말씀과 만남, 2003).

11) 김호식, **천사론: 하나님의 사역자** (서울: 한글출판사, 1998).

12) 국내 조직신학자들 중 김군진, 김광식, 박봉량은 천사론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박형룡과 이종성만이 천사론 항목을 설치하고 있다.

13) 김재진, **칼 바르트 신학 해부** (서울: 한들출판사, 1998).

14) 강학근, “천사의 존재와 그 사역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984).

15) 류시완, “천사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16) 윤민수, “이사야 14장의 천사론적 해석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합동신학대학원, 2003).

17) 고덕신, “유대 기독교의 천사기독교론” (석사학위논문,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1981).

18) 최영철, “천사와 악마는 존재할까?” **경향잡지** 7 (1990): 116-118.

19) 정하권, “천사는 누구인가?” **경향잡지** 9 (1998): 32-35.

불을 붙인 신호탄이 되었으며,²⁰⁾ 이후 천사에 관련한 많은 논문과 서적들, 정기간행물²¹⁾, 전국클럽²²⁾까지 생겨났다. 천사에 대한 그림과 책 그리고 조각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국적인 집회가 콜로라도 주 골턴에 위치한 미국 천사관련 수집가 클럽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천사에 관련된 수집품(달력, 향수, 냅킨 고리, 바닥깔개, 문방구류)만을 파는 곳이나 상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장례식에 꽃 대신 천사에 대한 수집품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Terry Law는 미국에서 이렇게 급작스런 천사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근원이 된 것은 “미국의 영적인 진공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³⁾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아무 것도 믿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라도 매달리려고 하는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선 이러한 무관심한 천사론과는 대조적으로 마귀론이나 귀신론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1980년도에 침례교회의 요단출판사가 메릴 영거의 **성서적 마귀론** (*Biblical Demonology*)을 출간하면서 마귀론 혹은 귀신론이 신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미국의 마귀론 도서들이 다수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김기동 목사가 1985년에 **마귀론**을 출판한 이후로 여러 도서들을 발간하였다. 김기동 목사는 귀신론과 관련하여,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하여 죽은 자의 혼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을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사상에 기인한 이단설이라 하며, 귀신은 단지 타락한 천사일뿐이라고 주

20) Sophy Burnham, *A Book of Angels*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0); Terry Law, **천사를 만난 사람들**, 조경옥 역 (서울: 은혜출판사, 2000), 21.

21) *Angel Watch*, P.O. Box 1362, Mountainside, NJ 07092. 한 달에 두 번 발행되는 16페이지짜리 정기 간행물. 현대세계에서 일하는 천사들과 그들의 사역에 관한 소식들을 다루고 있다. Marilyn's Angels, 275 Celeste Drive, Riverside, CA 92509. Angel Watch의 저자인 마릴린 웨버가 발행하는 천사에 관한 상품들의 카탈로그.

22) Angel Collectors Club of America. 16342 West fifty fourth Street, Golden, CO 80403. Angels for All Seasons, a shop filled with angel items. Bill and Sally Allen, owners. 3100 Sheridan Place, Denver, CO 80227.

Angels of the World. 1236 South Reisner Street, Indianapolis, IN, 46221.

23) Terry Law, 23.

장하는 도서들을 발간하였다.²⁴⁾

마귀론과 귀신론이 이렇게 활발한 것은 현대의 국가정세의 긴장들과 악마성, 그리고 교회가 처한 환경이 천 만의 악한 세력의 자극을 받은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신의 의식에서 천사의 의식으로의 전환은 그리 멀지 않다. 전에는 먼저 귀신들이 기각되고 다음에 천사들이 무시된 것 같이, 지금은 먼저 귀신들이 의식되고 다음에 천사들이 신학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1.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개혁신학 전통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인 존 칼빈(John Calvin)과, 17세기의 개신교 스콜라주의자 프랑소아 튜레틴(Francis Turretin), 19세기의 찰스 하지(Charles Hodge),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개신교 신(新) 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의 주된 저서에 나타난 천사론 및 개혁신학의 신앙고백문 속에 나타난 천사론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이들 뿐 아니라 중세기의 천사론을 정리한 토마스 아퀴나스(T. Aquinas)와 종교개혁시대의 루터(M. Luther)를 비롯하여, 개혁신학 전통 가운데 있는 19세기의 쉐라이어마허(F. Schleiermacher), A. A. 하지(Hodge), 필립 샤프(P. Schaff), 그리고 20세기의 브룬너(E. Brunner), 벌콕(L. Berkhof), 베르카우어(G. C. Berkouwer), 오토 베버(Otto Weber), 라인홀드 니버(R. Niebuhr), 몰트만(J. Moltmann), 로흐만(J. M. Lochman) 등의 글에 나타난 천사론을 통해, 다른 교단 혹은 교파와 구별되는 개혁신학의 천사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에 대한 보고서나 귀신론의 학설을 펴는 것은 일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천사론이나 귀신론에 관한 한 자칫하면 어떤 학설을 주장하든 간에 그 학설이

24) 원세호, **베뢰아 귀신론 비판** (서울: 국제신학연구소, 1987).

최삼경,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8).

나 주장은 이단논쟁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단 정죄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천사론이나 귀신론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 결과 한국 신학자들이 소신 있게 내놓은 천사론이나 귀신론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천사론이나 귀신론은 거의 서구 신학자들의 책을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천사론에 대한 분명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도 그런 이단논쟁과 시비에 거침이 되지 않도록 연구자의 독특한 견해를 밝히기 보다는, 개혁교회의 전통 위에 있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밝히고, 한국교회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성경적인 영적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천사론에 한정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며,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귀신론에 대해서는 간단한 소개를 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가 천사론이며 또한,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자세히 탐구하는 것은 바르트의 말처럼 “어두운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²⁵⁾ 일 테니까.

25)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III/iii, *The Doctrine of Crea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G. W. Bromiley and T. F. Torrance (Edinburgh: T. & T. Clark, 1986), 519.

2. 천사에 대한 역사적 이해

2.1 초대교회에서 중세까지

사람들은 옛날부터 막연하게나마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신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신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영체(靈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극동 문화권에서조차도 천사들 또는 마귀들이 그들의 종교 속에서 뺄 수 없는 요소로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존재들이 ‘신’으로 불리는 경우도 많았다. 극동지역의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영들이 죽은 인간들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천사들이나 마귀들을 직접 숭배하는 대신 자신들의 조상을 숭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영적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신화들은 신(神)들, 반신(半神)들, 영들, 귀신들, 수호신들, 영웅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도 이러한 존재들에 관해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성경은 이러한 존재를 천사라고 부른다.

영어성경 NIV(New International Version)판에서는 그룹(cherubim), 스랍(seraphs), 섬기는 영들(ministering spirits), 지키는 자(watchers),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 하나님의 병거(chariots of God), 거룩한 자들(holy ones), 새벽별들(morning stars), 보좌들(thrones), 권세들(powers), 주관자들(rulers), 정사들(authorities), 하늘의 지체들(heavenly bodies), 기적들(miracles) 등의 단어들에 천사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성서와 유대 묵시문학의 천사론과 귀신론에 정통했던 초기 교부들은 모두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그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희랍과 라틴 교부들의 기록에서 이 교리가 서서히 발전한 것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천사들의 본질에 관하여 어떤 명확한 교리를 세우지 않았다. 오리겐에 의하면 마귀와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교회들이 가르쳐왔지만, 그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²⁶⁾

그렇지만, 성경과 유대묵시문학의 천사론과 귀신론에 정통했던 초기의 교부들은 모두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그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천사들의 사역의 성격을 인간구원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였다(히 1:14). 이러한 선한 영과 악한 영들에 대한 교리는 알렉산드리아의 저술가인 클레멘트와 오리게네스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다.²⁷⁾

그리고, 헤르마스등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무리에 관해 가르쳤고, 선한 천사들이 믿는 자들의 필요와 복지를 위해 봉사한다는 일반적 개념과 병행하여 개별적 교회와 사람들을 위한 천사들의 심판과 수호천사들을 가르쳤다. 오리게네스 등 희랍교부들도 국가와 도시 혹은 개인의 수호천사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각 개인에 대한 수호천사 개념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²⁸⁾ 그리고, 변증론자들인 유스티니아누스, 타티아누스, 아테나고라스, 이레니우스 등은 타락한 천사와 귀신, 영에 관한 주제를 많이 다루었다. 특히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의 천사론을 많이 다루었다. 그리고, 질병과 사고, 손실과 같은 여러 종류의 재난들은 종종 악령의 유해한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돌려졌다.

이때에 천사들의 계급에 관한 개념이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었으며(Clement of Alexandria),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다신론적 경향은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으로 촉진되었다. 이러한 천사숭배는 순교자 저스틴까지 소급 추적될 수 있으며 또한 암브로시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일찍부터 가르쳐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 그러나, 어떤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고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천사숭배의 위험은 교회가 영지주의와 싸우는 동안에 분명해진 것 같다. 천사 숭배는 4

26) Philip Schaff, *Fathers of the Third Century*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2004), 265.

27)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4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8), 635.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의 관심은 선한 천사가 아니라, 인간세계에 작용하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

28) Bernard MacGuinn, 등, 기독교 영성, 유해룡 외 3인 역, 제 1권 (서울: 은성출판사, 1997), 108.

29) 기독교대백과사전, 제 14권, 637.

세기에 라오디게아(Laodicea)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정식으로 정죄되었다.³⁰⁾

대다수의 저술가들이 천사와 귀신들을 형체가 없는 영들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천사들과 귀신들의 본성과 구조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어온 것 같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더 큰 차이는 창세기 6장 1, 2절의 주석에서 볼 수 있다. 초기의 저술가들은 보다 흔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의 저술가들은 이 해석을 종종 배격하고 있다.³¹⁾ 또한, 라틴교부들은 선하고 악한 영들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암브로시우스, 제롬 등 후기 라틴교부들은 천사들이 물질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³²⁾

초대교회의 이런 다양한 견해들은 어거스틴(Augustinus, 354-430)에 의해 정리가 된다. 어거스틴은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있으며, 천사들은 무형적 실체인 영들, 즉 “눈에 보이지 않으며, 감각적이며, 이성적이며, 불멸적”이라고 하였다.³³⁾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며, 우리를 감독하고 사랑하며 도와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가치 없고 미천한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은 없다. 어떤 분량이나 형태나 유형이든 간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면, 어떤 분량이나 형태나 유형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고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천사들 뿐 아니라,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출발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⁴⁾

또한, 어거스틴은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30) Synod of Laodicea, 364년 경 라오디게아에서 열린 교회회의. 교회조직문제를 다룬 회의로, 천사경배와 비공인찬송가 사용금지를 결정했으며,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지었다.

31) 어거스틴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며, 이 사람들에게서 거인들이 났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논박하고 있다. Augustinus, **하나님의 도성**, 조호연·김종흡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5), 738.

32) **기독교대백과사전**, 제 14권, 636.

33) **기독교대백과사전**.

34) Augustinus, 554.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와, 에스겔 28장 13절의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 하였도다”란 말씀을 근거로, “여기서는 마귀에게 죄가 없었던 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³⁵⁾ 즉,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하였느니라”는 말씀은 그가 창조된 처음부터 범죄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범죄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교만 때문에 죄가 처음으로 생겼다”고 하였다.³⁶⁾

다른 한 편 어거스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고 하였으며 악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악의 존재 문제에 대해 존재도 아니요 비존재도 아닌 것이라 하였다.

내가 당신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니 그것들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비존재)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존재하는 것이나 당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므로 비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항상 있어 변치 않는 것입니다.³⁷⁾

어거스틴은 마귀와 악을 따로 구분하였는데, 어쨌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타락한 천사이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천사와 마귀론은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재해석되어 가톨릭신학으로 정착되기까지 중세의 보편적 신학으로 영향력을 끼쳤으며, 16세기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교회사가 필립 샤프(Philip Schaff)는, “스콜라 학자들은 악령들의 정신력과 영향력을 규명할 때 비록 저마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는 하지

35) Augustinus, 553-554.

36) Augustinus, 554.

37) Augustinus, **성어거스틴의 고백록**, 선한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16. 이러한 존재와 비존재의 개념은 바르트의 ‘부정적 무(無),’ 로호만의 ‘무실자,’ 톨리히의 ‘비존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어거스틴에게서 나온,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는 주장과 악은 존재하나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존재 개념이 이후 마귀론의 두 가지 흐름으로 정착하게 된다.

만, 기본적으로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그대로 따랐다”고 하였다.³⁸⁾

천사들의 서열문제를 명확하게 만든 저술가는 위-디오니시우스 (pseudo-Dionysius, A.D. 500년경)이며,³⁹⁾ 그의 영계의 서열에 관한 세부적인 분류와 묘사는 동방과 서방을 물론하고 이에 대한 그 후의 모든 사고에 기초로 간주되었다. 그는 천사들을 3계급으로 나누었는데; 제 1계급은 보좌들(Thrones), 그룹들(Cherubim), 스랍들(Seraphim)이고; 제 2계급은 권세들(Mights), 주관자들(Dominions), 능력들(Powers)이고; 제 3계급은 정사들(Principalities), 천사장들(Archangels), 천사들(Angels)이다. 가장 높은 서열은 하나님께 가깝고 가장 낮은 서열은 인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A.D. 800년부터 종교개혁시대까지인 중세시대에는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본질에 관한 고찰이 스콜라철학자들의 기록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이 고찰들은 대부분이 성경의 진술들과 어거스틴의 견해, 그리고 위-디오니시우스의 조직적인 구분에 대한 중세적인 변증으로 된 것들이다. 이 시대에는 천사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와 예배의식, 그리고 사고방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천사론을 교회의 교리로서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 시대는 천사들의 황금시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가 하면 13세기 전반에는 악령들에 대한 두려움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종교개혁 시대를 훨씬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마귀론으로 촉발된 박해가 인류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자행된 것은 15세기 이후였다. 중세가 마귀의 세계에 관한 개념을 끌어온 진거들은 이교 고전 체계와 북유럽의 신화, 그리고 어거스틴과 대 그레고리우스가 해석한 방식의 성경적 교

38) Philip Schaff, *교회사 전집*, 제 5권, *그레고리우스 7세부터 보니파키우스 8세까지*, 박명곤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784.

39)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개종한 남자(행 17:34)의 이름인 Dionysius the Areopagite 라는 이름으로 *The Celestial Hierarchy*라는 책을 썼으나, 책의 저작 연대가 바울에 의해 개종한 사람의 시대로 보기에 너무 늦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를 가짜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로 부른다. M. Adler, *The Angels and Us* (New York: collierbooks, 1993), 35. 그에 의해 소개된 것은 천사의 순위 뿐 아니라 천사의 이름도 포함되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로마 가톨릭의 천사체계에 대한 기본을 형성하고 있다.

훈이었다.⁴⁰⁾ 이교 신화에서 유래한 것을 어거스틴이 채택한 수쿠부스(succubus, 잠자는 남자와 정을 통한다고 하는 악령)와 인쿠부스(incubus, 잠자는 여자를 범한다고 하는 악령)를 중세는 완전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귀신들이 남자들과 동거하고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신념이었다. 스콜라 학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귀신들이 직계 자손들은 없지만, 남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 뒤에 즉시 변모하고, 여자들과 한 몸이 된 뒤에 자기들의 씨를 전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천사들의 창조 시기에 관하여는 그들이 물질적인 우주와 동시에 창조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어떤 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거의 의견 상의 차이가 없었다. 그들의 공간 안에서의 임재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단지 신체들만이 공간 안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호천사들에 대한 개념은 중세기에 상당한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스콜라적 교리의 분명한 입장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완성되었다.

2.2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사론

중세 스콜라적 교리를 완성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재해석하여, 천사에 대한 치밀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였다. 천사들은 어디서 왔을까?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들은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을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위치는 어디일까? 예수님과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위치는 어디일까? 이러한 많은 의문을 품으면서, 아퀴나스는 스콜라적 철학체계에 따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천사들은 전적으로 무형체인가?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천사는 전적으로 무형이나 영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사람과 비교해서 무형과 비물질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때 형체와 물질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40) Philip Schaff, *교회사 전집*, 779.

무형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물질적 피조물의 중간단계에 있다”고 하였다.⁴¹⁾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천사는 전적으로 무형적이거나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다. 그럼, 천사들은 물질과 형체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동일 물질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천사의 영을 만들었는가? 아퀴나스는 그런 천사들의 영은 하나님이 자신의 지성과 의지로 만드셨다고 하여, 천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였다.⁴²⁾

그러면, 천사는 많은 수로 존재하는가? 천사는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존재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로 존재하는데, 물질적 존재의 수 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³⁾

그렇다면, 천사들은 신체를 지니는가? 성경은 가끔씩 천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전체에게 나타나 보였으며, 롯에게 뿐 아니라 소돔 성 사람들에게 나타났었다.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천사들은 신체가 아니지만 그들은 때로 신체를 지니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그러나, (결혼을 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생명체가 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⁴⁴⁾

그러면, 천사에게도 장소가 필요한가? 천사는 신체를 갖지 않은 존재이므로 장소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어떤 장소에 제한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여러 천사들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동일한 육체에 두 영혼이 머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장소에 두 천사가 있을 수 없으며, 한 장소에 한 천사만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⁴⁵⁾

그러면, 천사에게는 행위적 지능이나 가능한 지능이 있는가? 아퀴나스는,

41) Thomas Aquinas, *The Summa Theologica*, translated by Daniel J. Sullivan, vol. I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c1952), qu. 50, a. 1.

42) Thomas Aquinas, vol. I, qu. 50, a. 2.

43) Thomas Aquinas, vol. I, qu. 50, a. 3.

44) Thomas Aquinas, vol. I, qu. 51, a. 2.

45) Thomas Aquinas.

애매모호한 것을 제외하고는 천사들에게는 행위적 지능이나 가능한 지능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천사들에게는 지성적 지식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천사들은 신체가 없다. 그러므로 단지 지능과 의지의 영혼의 힘들만이 그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천사들은 “지성과 정신”이라 불린다. 그러나, 기억력은 천사들에게 허락되었다”고 하였다.⁴⁶⁾

그러면, 천사는 자신을 아는가? 천사는 물질이 아니면서도 생존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천사는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체를 이해한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기이한 것들을 알고 있는가? 즉, 하늘이나 땅에서 이루어질 신비에 대해서 아는가? 물론 그렇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통해 모든 사물들과 우주의 다가올 일들을 아는 것처럼, 사람보다 상위에 있는 천사들도 자신의 지적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멀리 알 수 있다. 또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히 1:14)인데, 기이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다가올 세상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천사들은 미래를 아는가? 그러나,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미래를 아신다. 천사나 모든 피조된 지성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그래서 미래 자체는 어떤 피조된 지성들에게도 알려질 수 없다”고 하였다.⁴⁷⁾ 그리고, 천사들은 비밀한 생각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안다면 자기 맘대로 그것을 사용할 것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말씀을 통해 지식을 가지며 신적 본질 한 가지에 의해서 모든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동시에 모든 사실들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사들의 지성은 알려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알 수 있다. 그러면, 천사들은 종합과 분석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천사에게는 지적인 조명이 완전하므로, 천사는 추론에 의해서나 아니면 종합과 분석에 의해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⁴⁸⁾

그렇다면, 천사들에게는 의지가 있는가?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천사들에게

46) Thomas Aquinas, vol. I, qu. 54, a. 5.

47) Thomas Aquinas, vol. I, qu. 57, a. 3.

48) Thomas Aquinas, vol. I, qu. 58, a. 4.

의지가 있다고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럼, 천사들에게는 자유선택권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지성이 있는 곳에는 선택이 있다. 그러므로 천사들에게 지성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에게도 자유선택이 있는데, 사람에게보다는 더 완벽한 정도의 것이 있다”고 하였다.⁴⁹⁾ 그리고, 천사들도 지성적 천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그의 의지 속에는 천성적 사랑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천사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는가? 즉, 천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피조물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제외한 천사들과 모든 다른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본질에 의해 존재한다. 따라서 천사들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였다.⁵⁰⁾ 그럼,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영원부터 낳아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천사에게 있어서도 영원의 개념은 부적당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부터 존재한다.

그럼, 천사들은 물질세계 전에 창조된 것인가?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교부들의 글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하면서, 그 중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천사들은 물질적 피조물들이 창조될 때 동시에 창조되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⁵¹⁾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주의 한 부분으로, 그들 자체로서 하나의 우주를 구성하지 않으며, 천사들과 물질세계는 함께 하나의 우주를 구성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업은 완전한데(신 32:4),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셔야만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에게는 약점의 악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이다. 천사나 다른 어떤 이성적 피조물이라도 그 자체의 천성을 고려할 때 죄를 범할 수 있다. 단지 신의 의지만이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으며, 반면에 모든 다른 피조물의 의지는 그 천성의 조건을 고려할 때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량과 시기의 죄는 천사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가? 아퀴나스는, “천사들의 첫 번째 죄는 다름 아닌 자량의 죄가 될 수 있으며, 그 뒤를 따라서 시기의 악이 그들에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여, 자량과 시기가

49) Thomas Aquinas, vol. I, qu. 59, a. 3.

50) Thomas Aquinas, vol. I, qu. 61, a. 2.

51) Thomas Aquinas, vol. I, qu. 61, a. 3.

천사들에게 가장 범하기 쉬운 죄라고 하였다.⁵²⁾

그렇다면, 마귀(devil)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는가? 아퀴나스는 그렇다고 하였다.

의심할 여지없이 천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첫째로 동등됨에 의해서. 둘째로, 유사함에 의해서. 그런데, 그는 타고난 지식으로 동등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 유사함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다.⁵³⁾

그럼, 귀신(demon)들은 천성적으로 사악한가?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서도 “모든 사물들은 선한 원리에서부터 나왔으므로 자연적으로 선한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지성적 천성은 보편적 선으로 질서 지워져 있다. 천사들은 지성적 존재이므로, 그들은 결코 어떤 악으로 향하는 천성적 경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천성적으로 악하지 않다”고 하였다.⁵⁴⁾ 즉, 귀신(demon)들도 마귀(devil)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이다.

그러면, 마귀(devil)는 창조되는 순간에 자신의 의지의 약점에 의해서 사악해졌는가?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demon)들이 그들이 창조되는 순간에 그들의 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지의 죄에 의해서 즉시 사악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사 14:12; 겔 28:13)의 권위와 모순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천사들은 창조되는 순간에 죄를 범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천사의 범죄는 그의 창조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52) Thomas Aquinas, vol. I, qu. 63, a. 2. 마귀의 타락 원인을 ‘자랑과 교만’이라고 한 것은 어거스틴에게서도 볼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인 해석이다. Augustinus, **하나님의 도성**, 554.

53) Thomas Aquinas, vol. I, qu. 63, a. 3.

54) Thomas Aquinas, vol. I, qu. 63, a. 4.

그러므로 우리는 달리 대답을 해야 하는데, 천사들이 자유 선택의 어이없는 행동에 의한 즉각적 범죄는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마귀는 창조 즉시 사악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⁵⁵⁾

마귀가 창조되는 즉시 사악해 진 것은 아니라 창조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여기서 마귀(devil)와 귀신(demon)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본질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천사의 타락과 창조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는가?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 더 그럴듯한 것은, 마귀는 그의 창조의 첫 번째 순간 후에 즉시 범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천사가 은총 속에 창조되지 않았거나 혹은 첫 번째 순간의 자유 선택의 행동을 할 수 없었다면, 그의 창조와 타락 사이에 놓인 간격을 막을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지만, 은총 속에 창조되지 않은 천사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범죄한 천사들 가운데 있는 최고의 천사는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인가? 범죄의 경향성으로 말하자면, 보다 높은 천사들은 보다 낮은 천사들보다 덜 범죄 할 것 같다. 그러나, 범죄의 동기를 고려한다면, 귀신들의 범죄는 자라이며, 자라의 동기는 뛰어난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영적 존재가 더 범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는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것 이었다”고 하여, 마귀는 천사들 가운데 최고천사였다는 것이 아퀴나스의 주장이다.⁵⁶⁾

그럼, 최고의 천사의 범죄는 다른 것들의 범죄의 원인이 되었는가? 즉, 마귀가 다른 귀신들을 범죄케 하였는가? 아퀴나스는, 최고 천사의 범죄는 다른 것들의 범죄의 원인이 되었는데,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권유에 의한 유혹에 의해서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귀신들은 최고의 것의 신하들인데, 이는 주님의 말씀(마 25:41,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55) Thomas Aquinas, vol. I, qu. 63, a. 5.

56) Thomas Aquinas, vol. I, qu. 63, a. 7.

마귀와 그 사자들(angels)을 위하여 예비 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으로부터 명백하다고 하였다.⁵⁷⁾

그러면, 범죄한 천사들은 견고하게 남은 자들과 수가 같은가? 즉, 귀신들의 숫자와 남은 천사들의 숫자는 어떠한가? 아퀴나스는 이에 대해, 범죄한 천사들보다 견고하게 남은 천사들의 수가 더 많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범죄는 자연적 경향성에 반하기 때문이며, 자연질서에 반하는 일은 보다 덜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귀신의 숫자 보다 천사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귀신들에게는 슬픔이 있는가?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두려움, 슬픔, 기쁨, 등과 같은 감정들은 귀신들에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의지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무엇이 되어야 하고 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슬픔은 그들 속에 존재한다고 해야만 할 것이라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 속에도 슬픔은 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 나아가, 그들에게는 행복은 사라졌는데, 그들의 사악한 의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속박되어 있다”고 하였다.⁵⁸⁾

그러면, 우리의 대기권(atmosphere)은 귀신들의 징벌의 장소인가? 아퀴나스의 견해로는, 귀신들을 징벌하는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범죄의 이유로 해서 지옥이 있으며,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어두운 대기권이 그들의 징벌의 장소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심판 날 이후에는 모든 사악한 것들과 사람들과 천사들은 지옥이나, 아니면 선한 자들은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 하였다.⁵⁹⁾

2.3 종교개혁 이후 근세까지

14세기 이후 신앙과 이성 또는 신학과 철학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우세하게 되어, 이성은 신적조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의 경험에만 근거하여 그

57) Thomas Aquinas, vol. I, qu. 63, a. 8. 귀신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영적존재들이란 개념은 칼빈에게 이어지며, 이후 대다수 개혁신학자들도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58) Thomas Aquinas, vol. I, qu. 64, a. 3.

59) Thomas Aquinas, vol. I, qu. 64, a. 4.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어 버렸다. 그와 더불어, 감각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없는 순수한 정신적 존재인 천사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일은 드문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천사의 실재가 부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철학세계에 있어서도, 고전적 영국 경험론 철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그러한 천사 세계의 실재성을 승인하고 있으며, 비판철학의 창시자인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도 순수하게 가지적(intelligible)이며 정신적인(spiritual) 실체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정하지만, 그러한 실체가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⁶⁰⁾

종교개혁시대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도 선한 영과 악한 영들을 믿었다. 이 시대에는 천사의 교리에 관해 새로운 어떤 것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루터(Luther)와 칼빈(Calvin)은 천사들의 직분, 특별히 사탄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명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칼빈은 사탄이 신적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과 또한 사탄이 종종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단지 지정된 한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순전히 영적 실유들로 간주하였지만, 잔키우스와 그로티우스는 여전히 천사들이 영기체들을 가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선한 천사들의 사역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은 구원의 후사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의 특별한 임무(히 1:14)이며, 수호천사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루터에게 있어서는, 천사든 악마든 매우 실제적인 존재였다. 루터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은 인간의 삶과 사건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⁶¹⁾ 천사는 영적 피조물로서, 몸이 없는 인격적 존재이며, 교회를 섬기라고 임명된 자들이다. 그리고,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전자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후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렇게

60) 이나가키 료스케, *천사론*, 김산춘 역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9), 19.

61) M. Luther, *What Luther Says*, compiled by Ewald M. Plass, vol. I (Saint Louis, Missouri: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9), 23.

지금도 영적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⁶²⁾ 그리고, 그들의 수는 하나 둘 뿐이 아니라 아주 많으며, 이들의 보호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탄의 분노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였다.⁶³⁾

또한, 무기력한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천사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종들은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걸어 다니는 것까지도 돌본다는 것이다. 이런 천사들의 보호가 없이는 아무리 부모들이 잘 보살피더라도, 어떤 아이도 어른으로 자랄 수가 없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일러 주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내 아이야, 네가 만일 착하지 않으면 너의 천사가 네게서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검은 괴물인 악한 영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착하게 행하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천사가 네게로 올 것이고 괴물은 너를 떠날 것이다.”⁶⁴⁾ 루터에게 있어서 천사는 이렇게 실재적이며 교육적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선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은 선한 천사를 가졌다’고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지 않거나 큰 돌이 굴러 떨어졌는데도 다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운이라고 불려서는 안 되며, 선한 천사가 도왔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공적인 사건과 국가적, 국제적 문제들의 모든 영역에 활동적이라는 것이 루터의 천사에 대한 생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의 사악하고 해로운 의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려고 선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마귀의 꾀계를 물리칠 수 있는 봉사를 할 만큼 다정하며, 자비롭고, 친절한 영이다. 다행스럽게도 선한 천사들은 둘 중에서 더 힘이 강하다.⁶⁶⁾ 전 세계가 온통 화염에 쌓이지 않고 모든 마을과 도시들이 폐허로 변하지 않는 것은 선한 천사들의 활동

62) M. Luther, 24.

63) M. Luther.

64) M. Luther. 루터는 천사를 하나님 통치의 수행자(Vollstrecker)로 간주할 뿐 아니라, 수호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65) M. Luther, 25.

66) M. Luther.

때문이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보다 훨씬 더 지각 있고 지혜로운데, 마귀가 갖고 있지 않은 세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천사들은 낮 시간 내내 그리고 우리가 침상에 있는 밤 새 우리 주변에 서 있으며, 또한 우리가 죽을 때도 함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인도자인 거룩한 천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⁶⁷⁾

이와 같이 종교개혁시대에는 중세의 천사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한 중세적 전통에 따른 천사론을 성서적으로 전개한다. 그러나, 성서와 사유에 근거한 이러한 신앙은 다른 방향에서 다양한 많은 이성주의의 공격이 일어난 18세기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합리성 혹은 과학적 이성이 강조되는 계몽시대 이후의 사상사에서 천사 교리는 근대 과학적 세계관, 즉 일정한 세력들과 법칙들의 체계로서의 세계관에 반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18세기의 합리주의는 담대하게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성경이 천사들과 귀신들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몽매에게 양보함이거나 제약을 받음이었다고 하였다.

19세기의 신학도 성경의 이 관념은 능히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카이퍼(Kuyper)는, 악령들과 귀신들의 존재에 대한 기각(棄却)이 결국은 천사들의 존재의 부정으로 종결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시대 이후에는 개신교에서는 천사들에 대한 주장들이 점점 신뢰할 수 없는 하나의 신화론으로 간주되어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신학의 아버지요 자유주의 신학의 시조로 여겨지는 동시대의 쉐라이어마허(Friedrich D. E. Schleiermacher, 1768-1834)는 천사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다. “종교의 본질이라 간주될 수 있는 진지하고 성스러운 신

67) M. Luther.

화가 아이들의 부주의한 장난과 즉시 연합한다. 성부, 구세주, 천사들을 또 다른 종류의 요정이나 공기의 정(精)이라 간주한다면, 많은 기초들이 불충분하고 죽은 문자 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⁶⁸⁾

그 후 1900년대 이래 일어난 미국의 성서 사경회 운동은 천사나 악령에 대한 관심을 다시 고조시키기 시작했다.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천사들이나 악령들 그리고 사탄이나 종말론 등에 대해 왜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일반 교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천사론, 악령론, 사탄론, 종말론 등이 1900년대 이후에 조직정리 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천사론이나 악령론, 사탄론 등은 미개척분야의 교리여서 조직신학 책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이후에 뉴 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 같은 것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영계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신학적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까닭에, 이제는 안일하게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계에 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개혁신학의 전통은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정립해야 할 단계가 된 것이다. 현대인의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가장 개발이 늦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무엇인가의 통찰에 이르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든, 천사를 단지 신화나 동화의 세계에 두어 상상력의 대상으로 삼는데 만족하지 않고 신학적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천사가 차지해 온 중요한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천사가 우리들에게 그만한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값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68) Friedrich Schleiermacher, *On Religion: Speeches to Its Cultured Despisers*, tr. by John Oma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893), 126.

3. 개혁신학자들의 천사론

3.1 칼빈의 천사론

3.1.1 천사론의 근거

이제 개혁교회의 천사론을 살펴보자. 개혁교회는 칼빈주의의 교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존 칼빈, 츠빙글리, 존 녹스와 그 외의 사람들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을 ‘개혁파 교회’라고 한다.

칼빈(1509-1564)의 천사론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시작하는 데서 시작하고 성경에서 마치는 데서 마치는, 철저히 성경에서 증언하는 천사론에 근거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의 그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⁶⁹⁾ 쓸모없는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천사의 성질, 계급, 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공허한 사색을 떠나야 하며, 신학자의 임무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고 주께서 천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바를 성경의 그 단순한 교훈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천사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재라고 하면서, “침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⁷⁰⁾ 그리고 천사들을 믿지 않는 고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 터무니없는 생각은 성경의 여러 증거와는 매우 반대되는 것으로, 어떻게 그런 유의 무지가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였다. 즉, 천사들이야말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확실한 실재

69) John Calvin, I. x iv, 3.

70) John Calvin, I. x iv, 9.

라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저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시 103:20-21; 히 1:14).

3.1.2 천사의 사역

개혁교회의 창시자인 칼빈은 신문(神諭)의 끝부분 창조론과 섭리론 사이에서 천사론을 다루고 있다. 즉, 천사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천사는 “부리는 영”(히 1:14)이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의 남은 일들을 수행하신다. “천사들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요 관리자”이다.⁷¹⁾

더욱이 어린 아이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뵈오며(마 18:10), 그들의 호위로 우리는 항상 보호를 받게 되고(눅 4:10-11),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눅 15:10), 그리고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은혜에 놀라고 머리어신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 하였다(히 1:6). 그러나,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어린 아이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뵈옵는다는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 말은 아니다.

또한 주의 천사는 도망자 하갈을 위로하고 그녀의 여주인과 화목하기를 명령하였으며(창 16:9),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천사가 그의 여행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창 24: 7),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지금까지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주의 사자가 그들을 번창케 해 주시기를 기원하였다(창 48:16).

그리고, 천사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의 진(陳)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출 14:19, 23:20).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을 때에는 언제나 천사들을 사용하여 원수에게 보복할 자들을 일으키셨다(삿 2:1, 6:11, 13:3-20).

71) John Calvin, I. x iv, 6.

다른 한편, 천사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봉사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였고(마 1: 20), 그리스도를 섬겼으며(마 4:11), 그가 고난당할 때마다 그와 함께 있었으며(눅 22:43). 그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알렸으며(마 28:5-7; 눅 24:5), 그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다(행 1:10).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천사는 그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수행한다. 성경에서 본대로, 하나님의 사자는 예루살렘을 그 포위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 왕의 진영에서 185,000명을 쳐서 죽였다(왕하 19:35; 사 37:36).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천사들도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들 없이는 일 하실 수 없는가? 하나님은 직접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 주시고 신자의 안전을 위해 대비하시며 자비의 은사를 전달하신다. 그러나, 칼빈은 “천사들 없이는 그가 아무 것이라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⁷²⁾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천사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털기 위해 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없이도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지만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안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3.1.3 천사 숭배

칼빈에게 있어서 천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72) John Calvin, I. x iv, 11.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다.”⁷³⁾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요 1:51)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친다.”⁷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좋은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도(창 24:7)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 위탁하고 기도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였던 것이다(창 24:12).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천사와 나누기 위해 천사들을 자신의 능력과 선하심의 사역자로 삼은 것이 아닌 것처럼, 또한 우리의 신뢰를 천사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것을 천사들에게 돌리는 일이 많이 생겨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헤아릴 수 없는 존귀가 천사들에게 주어지기도 하였다.⁷⁵⁾ 확실히 신적 위엄과 광채가 천사들에게서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들을 모두 그들에게 부여하기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을 근거로, 그러한 일들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바울은 천사들을 높임으로써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같은 수준으로까지 끌어 내린 자들과 큰 논쟁을 벌였다. 그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일체의 축복의 창시자라고 매우 열심히 주장하였다(골 1:16, 20) 요한도 계시록에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계 19:10, 22:8-9)는 천사의 대답을 들었다고 덧붙혔다.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봉사자들이며, 오히려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고전 6:3).

73) John Calvin, I. x iv, 12.

74) John Calvin, I. x iv, 12.

75) 천사 숭배는 고대사회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4세기에 라오디게아(Laodicea)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정식으로 정죄된 바 있다.

3.1.4 천사의 명칭과 계급

3.1.4.1 천사들의 명칭

칼빈은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사들의 존귀의 정도와 각 천사들의 칭호를 구별 지으며 위치와 지위를 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두 이름, 곧 미가엘(단 10:21)과 가브리엘(단 8:16; 눅 1:19, 26) 그리고 토비트의 역사에서 이에 하나를 더 가한다면 제 3의 칭호(라파엘)가 있는데(눅 12:15), 이 명칭들은 그것들을 갖고 있는 의미로 보아 우리의 능력의 약함 때문에 천사들에게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⁷⁶⁾ 즉, 성경에 나타난 이상의 천사들의 이름을 짓거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사는 하늘의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사과 임무를 통하여 자신이 작정하신 바를 모두 수행케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명칭이 천사들에게 적용되었는데, 그들이 “천군”이라고 불리는 것은(눅 2:13) 근위병처럼 왕을 옹위하여 왕의 위엄을 장식하며 이를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이며, 또한 사병들처럼 지휘관의 신호에 항상 주의를 집중하여 언제라도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권능과 능력을 놀랍도록 발휘하시며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저들은 “권세”라고 불린다(엡 1:21; 고전 15:24). 또 하나님은 세계에서 저들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저들은 때로는 “정사”(政事), 때로는 “권세”, 때로는 “주관하는 자”로 불리며(골 1:16; 엡 1:21; 고전 15:24),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들은 또한 “보좌”라고 불리기도 한다(골 1:16). 그리고 저들은 한 번 이상 “신”이라고 불려졌다(시 138:1).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 저들의 사역에 있어서 저들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자들에게 말할 때에는 더욱 자주 “신들”이라는 명칭이 그 모든 천사들에게 적용된다(창 22:11-12). 그러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두 이름, 곧 미가엘(단 10:21)과 가브리엘(단

76) John Calvin, I. x iv, 8.

8:16; 눅 1:19, 26), 그리고 토비트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제 3의 칭호인 라파엘(툭 12:15) 이외의 어떤 다른 이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3.1.4.2 천사들의 계급과 수와 모양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이외의 천사들의 명칭 뿐 아니라 그들의 계급이나 수에 대해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 역시 공허한 사색을 일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천사의 수와 계급을 감히 결정짓는 자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자고 하였다.

다니엘이 미가엘을 가리켜 “대군”이라 부르고(단 12:1), 유다가 그를 “천사장”이라고 부른 것(유 9절)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바울도 나팔소리와 함께 사람들을 심판 자리에 모으는 자가 바로 천사장이라고 말하였다(살전 1:16; 참조 겔 10:5). 그러나, 누가 이상의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사들의 존귀의 정도를 결정짓고 각 천사들을 그 칭호로 구별 지으며 그 위치와 지위를 각자에게 배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를 미결로 남겨 두기를 원한다.⁷⁷⁾

천사의 수에 대하여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마 26:53)라는 말씀을 듣고, 다니엘로부터는 그 천사의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며”(단 7:10)라는 말을 듣는다. 엘리사의 사환은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함”(왕하 6:17)을 보았으며,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시 34:7) 있다고 기록된 것은 그 수의 막대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천사의 수와 계급에 대해서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그 완전한 계시를 알게 될 신비에 속하는 것으로 해 두자”고 했다.⁷⁸⁾ 그러므로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한다든지,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77) John Calvin, I. x iv, 8.

78) John Calvin.

그리고 칼빈은 “영들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다.⁷⁹⁾ 즉, 천사는 육체가 아닌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적인 어떤 형체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룹이나 스랍이라는 이름으로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칼빈은 이에 대해, 이것은 그들이 일단 유사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력의 정도를 맞추어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 천사들이 어떤 모양이나 형체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3.1.4.3 수호천사들

칼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개개의 천사가 그들 각자에게 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감히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⁸⁰⁾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이의 천사들이 항상 성부의 얼굴을 뵈옵는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마 18:10), 이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탁받은 어떤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저들 각 사람에게 자기를 보호하는 특수한 천사가 있다고 단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형제들이 모여 있는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형제들은 두드리는 자가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의 천사라고 말하였다(행 12:15). 이것 또한 각 신자들에게는 그들을 지켜 주는 천사가 각각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칼빈은 이에 대해서도 “천사들 중 어느 한 천사가 베드로를 돌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영원한 수호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였다.⁸¹⁾ 모든 천군 천사가 자신의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한 천사가 자신의 특별한 수호자로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79) John Calvin.

80) John Calvin.

81) John Calvin.

그러나, 칼빈은 “다니엘이 페르샤인들의 천사와 헬라인들의 천사를 소개할 때(단 10:13, 20, 12:1), 특수한 천사들이 왕국과 지방의 수호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그는 명시하였다”고 함으로써, 민족이나 지방의 수호천사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⁸²⁾

결론적으로 칼빈은, 확실하게 주장해야 할 것은 한 천사만이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한 천사에게만 국한시키는 자들은 저들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온 회원들에게 까지도 큰 부정을 행하는 것”이라 하였다.⁸³⁾

3.1.5 마귀론

3.1.5.1 마귀의 출생

칼빈은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의 사악함은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왔다”고 말한다.⁸⁴⁾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벧후 2:4),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유 6절)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택함 받은 천사들에 대해 말한 바 있는데(딤후 5:2),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버림받은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마귀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관계없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즉,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그들 자신이 스스로 타락하여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의 타락과 그 원인, 방법, 시기, 성질에 대하여 성경이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 것”⁸⁵⁾을 당부하며, 철저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만 마귀론도 전개

82) John Calvin.

83) John Calvin, I. x iv, 7.

84) John Calvin, I. x iv, 16.

85) John Calvin.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아무 것도 말하지 않거나 혹은 아주 가볍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역사 이야기로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건덕상(建德上)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외에는 그 거룩한 말씀에서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마귀의 성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식으로 만족하자고 제안한다. 즉 “악마는 창조 시 본래는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자멸하였으며, 남을 파멸시키는 파멸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⁸⁶⁾

한편 칼빈은 귀신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의의 나라에 반대하는 악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⁸⁷⁾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단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처럼, 불신앙의 무리들과 불경건 그 자체는 그들에게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왕과 함께 묘사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마 25:41)고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3.1.5.2 마귀의 속성과 한계

칼빈은 하나님을 선한 것의 기원이라고 하고, 악한 성질의 창시자는 사탄이라고 하는 마니교(Manichaeism)식의 이원론에 반대한다. “만일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며 저항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러한 주권이 사탄에게 주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이 속성들을 사탄에게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탄을 하나님의 칭호로 장식해 주는 것이 될 것”⁸⁸⁾이라고 하였다. 인간과 사탄의 부패와 악의, 혹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죄는 본성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주권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86) John Calvin, I. x iv, 16.

87) John Calvin, I. x iv, 14.

88) John Calvin, I. x iv, 3.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다. 주님께서도 사탄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진리에 서지 못하기”(요 8:44)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 그는 그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흑암으로 빛을 가리며 인간의 마음을 오류에 말려들게 하고 증오를 일으키며 논쟁과 싸움을 선동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며 인류를 자신과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향하게 한다.

그는 본래 타락하고 사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는 데 열중하는 그 성질은 극도로 부패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요일 3:8)고 한 것이나,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요 8:44)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⁸⁹⁾ 그러므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욥의 역사를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났으며(욥 1:6, 2:1),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악도 감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욥 1:12, 2:6). 또한 바울은 불신자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살후 2:11). 그러나, 조금 앞에서는 이를 사탄의 역사라고 불렀다(살후 2:9; 참조 고후 4:4; 엡 2:2). 그러므로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본래 사악한 존재여서, 조금도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완강하게 불순종하며 반항한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격렬하게 또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악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사악함이 마귀를 채촉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행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를 잡아매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89) John Calvin, I. x iv, 17.

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창조주께 순종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촉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반항과 반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칼빈은 주장한다.”⁹⁰⁾

3.1.5.3 마귀의 활동과 영적전투

3.1.5.3.1 마귀의 활동

마귀는 신자들과 싸우며, 저들을 기습하기도 하고, 평안을 깨뜨리며, 싸움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자주 피곤하게 하며, 패배시키기도 하며,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저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저들은 신자들을 근심에 빠지게 하며, 심한 타격을 가하여 쓰러지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불경자들을 정복하여 끌고 다니며, 그 영혼과 육체를 학대하고, 노예처럼 저들을 능욕하여 갖가지 수치스러운 행위를 일삼게 한다. 그리고, 이 원수는 무모할 정도로 대담하며, 무용(武踊)을 가진 자이며, 교활한 술책에 능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민첩함을 지닌 자이며, 가능한 모든 무기를 가졌으며, 전술에 노련한 자의 화신(化身)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불안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권고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엡 4:27),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9).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교만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후 12:7)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도 이런 종류의 싸움을 면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께서신 신자의 영혼에 대하여는 사탄이 그 어떤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단지 자기 백성의 수에 넣지 않기로 하신 불경자들과 불신자들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 하였다.⁹¹⁾ 그래서 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고후 4:4),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엡 2:2)한다. 그래서, 칼빈은 불신자들은 아비 마

90) John Calvin.

91) John Calvin, I. x iv, 18.

귀에게서 나왔다고 한다(요 8:44). 왜냐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처럼, 불경자들은 타락하여 사탄의 형상을 지님으로써 당연히 그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요일 3:8-10).

그리고, 칼빈은 마귀가 단순한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선한 영감 혹은 충동이 아니며, 육체에서 오는 악한 감정 혹은 마음의 불안이 바로 마귀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반박해야 한다”⁹²⁾고 하였다. 즉, 마귀는 영적인 실체이며, 관념이 아닌 실체이다. 그 이유는 성경이 적지 않게 명백히 증거 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느끼기 시작하여 부활 시에는 특별히 느끼게 될 형벌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들도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마 8:29)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 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마 25:41).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벧후 2:4) 라는 구절들이다. 그런데, 칼빈은 만일 마귀가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며, 그를 위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 지금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등의 표현들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일까 묻고 있다.⁹³⁾

3.1.5.3.2 영적전투

마귀가 아무리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도 이러한 악령들은 결코 신자들을 정복하지도 못하며, 박멸하지도 못한다. 신자들이 사탄에게 정복당하거나 압도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창 3:15)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92) John Calvin, I. x iv, 19.

93) John Calvin.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전 생애를 통해 수고하여 마침내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은 저들의 활동을 지배하시며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악령들을 굴복시키시며, 저들로 하여금 “신자들과 싸우게 하심으로써 신자들을 훈련시키신다.”⁹⁴⁾

그리고 사탄에 대한 승리는 확실하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롬 16:20)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정복하셨으며(히 2:14),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모든 세력을 타파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사탄과 그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그 승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만 나타난다. 칼빈은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벗어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완성될 것”이라 하였다.⁹⁵⁾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인 것이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귀를 가르치는 의도는 무엇인가? 칼빈은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깨우쳐서 저들의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따라서 이들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 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는데 있다”고 한다.⁹⁶⁾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 신”(고후 4:4), “이 세상 임금”(요 12:31)으로 불리고, “강한 자”(눅 11:21; 참조, 마 12:29), “공중권세 잡은 자”(엡 2:2), “우는 사자”(벧전 5:8)로 언급되는 것은, 오직 우리들로 하여금 한층 더 주의하고 경계하며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 5:9)고 하였으며,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

94) John Calvin, I. x iv, 17.

95) John Calvin, I. x iv, 18.

96) John Calvin, I. x iv, 13.

라”(엡 6:12)고 경고한 후, 그렇게 크고 위험한 싸움을 하는데 적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같은 전투명령이 많이 들어 있다.

더욱이 성경은 이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자극하며 격려하기 위해, 우리와 싸우는 원수의 수가 하나 둘 하는 소수가 아니라 대군이라고 말한다. 막달라 마리아도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놓였다고 성경은 말한다(막 16:9; 눅 8:2).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일단 내어 쫓긴 악한 귀신에게 다시 그 장소를 허락해 주면 그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그 텅 빈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마 12:43-45). 또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눅 8:30). 그러므로 이상의 여러 실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수한 원수들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주의와 무기력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시 불붙는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이 병역(兵役)은 죽을 때에야 끝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스스로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하며, 끝까지 서로 격려하여 인내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칼빈은 이러한 영적 실체들을 지적하면서, “원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원수를 저항하는 일에 태만하거나 부주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⁹⁷⁾이라고 하여, 믿는 자들이 영적전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3.2 튜레틴의 천사론

16세기를 종교개혁시대라고 한다면, 17세기는 루터파이든 개혁파든 교파별 정통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정통주의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사고방식을 신학에 수용하였다. 언어적, 철학적, 논리적, 전통적 사상을 신학에 철저하게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 하였는데, 그러므로 개신교 정통주의를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도 말한다.

97) John Calvin, I. x iv, 19.

칼빈의 후계자인 테오도르 베자가 죽은 후 스위스에서 칼빈주의 정통주의의 지도자는 이탈리아 태생의 베네딕트 튜레틴(Benedict Turretin, 1588-1631)와 그 아들 프랑소아 튜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였다. 베네딕트의 아들 프랑소아 튜레틴은 개혁정통주의의 전형적인 해석자였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스콜라주의의 방법론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를 ‘개신교 스콜라주의자’라고 한다.⁹⁸⁾ 튜레틴은 그의 조직신학 제 1권 ‘창조론’과 ‘신의 섭리’ 다음에 ‘천사론’ 항목을 따로 설치하여 다루고 있다.

3.2.1 천사의 창조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튜레틴은,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며, 그것은 논리가 입증할 뿐 아니라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⁹⁹⁾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다윗과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지으사 화염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셨다”(시 104:4; 히 1:7),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라고, 섬기는 영들이 되게 하셨다”(히 1:14)고 할 수 없었을 것이라 하였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골 1:16)고 하였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이고 지적인 피조물, 말하자면 천사들을 나타내려고 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튜레틴은, 천사들은 모세의 시작-옛새 동안의 창조기간-전에 창조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즉, 하나님의 천지창조 기간 동안에 천사들도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고대의 작가들, 특별히 희랍교부들-크리소스뎀, 그레고리 나찌안주스, 바질 등-이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제롬과 암브로시우스 같은 라틴교부들도 동일한 의견이라고 하였다.¹⁰⁰⁾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98) 박노원, *개혁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68.

99) Francis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 I, *First Through Tenth Topics*, trans. by G. M. Giger (New Jersey: Phillipsburg, 1992), 539.

첫째로, 모세의 시작은 시간과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며 그 이전에는 영원한 심연 외에 아무 것도 잉태될 수 없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 시작 전에 존재할 수 없었다. 둘째, 천지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한 분 뿐이며, 이 특권은 성경이 주장하는 바이다. 셋째로,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속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천지창조 이전에 창조되지 않았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천사들도 그 들 중에 있다. 그들이 모세의 시작 이전에 창조되었다고 추론할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¹⁰¹⁾

그러나, 다마스쿠스의 요한 같은 이는 그들이 엿새 동안의 다른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엿새 창조 이전 창조설에 대해서는 마귀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3.2.2 천사의 형체와 모양

천사들은 영적이며 비형체적인 존재인가? 튜레틴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¹⁰²⁾ 그 이유으로써 첫째, 성경이 그들을 영이라고 부른다. 영은 육체와 정반대이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며 나는 있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눅 24:39). 그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골 1:16)로 분류된다. 그들이 비록 바람과 화염으로 비유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물질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이 유비적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은 그들이 바람과 번개처럼 매우 빠른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 영적인 기능과 작용들이 그들에게 부여되었는데(지성과 의지 같

100) 어거스틴도 여기에 동의하였으며, 아퀴나스도 이런 주장을 하였다. 아퀴나스는 천사는 우주의 한 부분이며 그들 자체로서 우주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물질세계와 함께 하나의 우주를 구성하는 만큼 천사들도 물질세계와 함께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Thomas Aquinas, vol. I, qu. 61, a. 3.

101) Francis Turretin, vol. I, 540.

102) Francis Turretin, vol. I, 541-43.

은), 그러한 것들은 물질적 본성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그들이 물질적이라면 양이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공간을 침투하지 못할 것이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없다(그러나, 눅 8:30에는 군대귀신이 들렸다고 말한다). 넷째로, 그들이 이미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신체를 지닐 수 없으며 지녀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하게 자주 신체를 지니고 나타나는 것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하나님 한 분만이 비물질적이며 비형체적이다”라고 하였고, 스콜라주의자들은 “천사들은 우리와 비교해서 영적이며 하나님에 비해서는 육체적”이라고 하였다.¹⁰³⁾ 그러나, 튜레틴은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유령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육체를 지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육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단지 신체를 지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사들의 환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신체를 지니는가? 이에 대해 튜레틴은, 천사의 출현은 삼중적이라 하였다.¹⁰⁴⁾ 어떤 때는 꿈 속에 나타나는데, 야곱이 신비한 사닥다리의 비전을 본 것이라든지(창 28:12); 요셉이 잠들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던 것이라든지(마 1:20); 바울에게 “밤에 주의 천사가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행 27:23, 24) 말한 것같이 나타난다. 다른 경우에는 예언자들과 계시록의 요한에게처럼 단순한 무아지경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혹은 (대부분의 족장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감각적 비전 속에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신체를 지닐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사람에게 감각적으로 나타남으로 신체를 지녀야만 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닌 신체는 공허한 환영이나 유령이 아니며, 또한 실질적으로 육체가 그들에게 연합한 것도 아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좀 더 친숙한 교제를 위해, 잠시 동안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도록 신체를 지녔을 뿐이다.¹⁰⁵⁾ 그들이 무엇이며 어디서 그런 것을 지

103) Francis Turretin, vol. I, 542. 아퀴나스도 천사는 전적으로 무형이나 영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Thomas Aquinas, vol. I, qu. 50, a. 1.

104) Francis Turretin, vol. I, 549.

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호기심이 가는 질문이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그것을 찾는 위험보다는 무지한 채로 범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튜레틴의 견해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체를 지니고 천사들이 수행한 일들은(말을 한다든지, 걷거나, 먹는 것 등) 엄격하게 말해서 실제적이라 할 수 없다. 먹는 것으로 말하자면, 음식물을 씹기 때문에 먹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음식물이 다른 물질로 변화되어서 위에서 소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이 지녔던 신체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별 쓸모 없는 질문이 될 것이라 하였다. 즉, 성경에 나타나는 이상은 알 필요도 없고, 공허한 추측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튜레틴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러면 그러한 천사들이 왜 과거처럼 자주 나타나지 않는가? 이에 대해 튜레티니는 이렇게 설명한다.

율법이 없거나 아니면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천사들의 출현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려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복음의 빛이 떠오른 이후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신 이후에는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진 이후에는, 그리고 성경의 정경이 닫히고 봉인된 후에는, 교회가 그러한 도움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는 일이 덜 필요해졌다. 그래서, 비록 복음의 시초에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섬기고 그의 교훈에 대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 천사들이 출현했으나 나중에는 견고한 교회에 맡겨 두었다.¹⁰⁶⁾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성령시대가 되면서 천사들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세상에 그들의 보이지 않는 사역을 사용하시지만, 더 이상(혹은 매우 드물게)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였다.

105) Francis Turretin, vol. I, 49-551.

106) Francis Turretin, vol. I, 551.

3.2.3 천사들의 지식과 능력

3.2.3.1 천사들의 지식

천사들의 지식의 형태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콜라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튜레틴은 천사들의 지식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하였다.¹⁰⁷⁾ 첫째, 자연적인(natural) 것으로, 이는 창조시로부터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에게 공통적인 지식이다. 둘째로, 계시된(revealed)것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전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된 것(예를 들어 다니엘서 9장에, 70주의 신비는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 계시되었다). 셋째로, 경험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세상과 특히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 넷째로,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는 선한 천사들에게만 속한 것인데, 그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천사들의 지식의 목적은 첫째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아니다. 즉, 천사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들은 심판의 날을 알지 못 한다”(막 13:32)고 증언하셨으며, 그들은 날마다 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계시를 통해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엡 3:10). 전지(全知)는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미래에 관련된 사실들은 그 분의 계시에 의해서만 피조물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된 지성은 미래의 사실들을 예언할 수 없다. 천사들이 가끔씩 미래의 일들을 예언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연적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알리라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거나 혹은 추측에 의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 혼자서 만을 위해서 남겨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알지 못 한다(렘 17:9).

둘째 긍정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과 신성에 관한 일들을 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빛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다”(마 18:10)고 말해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사람들보다 덜 완전

107) Francis Turretin, vol. I, 543.

하게 이해할 것이며, 인간들을 돌보거나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의 지식은 또한 직관적이거나 지성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만하고 추론적이라 하였다.¹⁰⁸⁾ 직관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치를 따져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사물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모든 사물을 단순하게 혹은 즉각적인 직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치를 따지는 것 같은 방식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천사들 상호간에 의사전달이 있으며, 또한 성경은 천사들이 집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숙 2:3), 서로서로 소리를 치고 있다고 소개한다(사 6:3). 그들은 혀나 들을 귀가 필요 없으며 말소리도 없으나,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상호교환 한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으며, 성경이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¹⁰⁹⁾

3.2.3.2 천사들의 자유의지

천사들의 의지와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그들에게도 애정이 있는가? 이 부분 역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스콜라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튜레틴은, 사유작용에 따른 천사들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완전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그리 중요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그들의 의지가 독립적이지 않으며(항상 하나님께 종속돼 있으므로), 또한 마치 그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작용하는 것처럼 작동적이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의 자유의지는 “비록 처음에는 선과 악으로 결정되어 시작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선은 선으로, 하나님의 유기에 따라 나쁜 것은 악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¹¹⁰⁾

그리고, 천사들은 감각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감각적인 욕망이나

108) Francis Turretin, vol. I, 546.

109) Francis Turretin.

110) Francis Turretin.

애정, 열정을 갖고 있지도 않다. 비록 성경이 때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악을 미워하고,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즐거워하고, 재난에 우는 것으로 묘사하지만, 그러한 감정은 천사들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차라리 그들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영적 본성이 있으므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으로 유추적으로 기술되고 있다고 튜레틴은 말한다.

3.2.3.3 천사들의 힘과 한계

천사들은 무엇이랄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천사들은 비록 힘이 있고(시 103:20) 능력이 있을지라도(살후 1:7), 그것은 유한하고 제한돼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부적 혹은 내부적 감각을 흥분시키거나 묶을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성적 영혼에 대해서는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는 하나님만이 그 뜻대로 묶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¹¹¹⁾

그리고, 마귀는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역사한다”(엡 2:2)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마치 즉시 이성적 영혼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제안이나 유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적 혹은 내부적 감각에 영향을 미침으로 가능한 것이라 하였다.¹¹²⁾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heart)에 가득하였다”(행 5:3)는 것도 즉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목적의 제안과 탐욕을 자극함으로써 그의 마음에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가득한 불을 일으킴으로 가능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요 13:2)고 말하는 것도 이성적(rational) 영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감각적(sensitive) 영혼과 감정에 자신을 주입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말이 성령에 관해 사용될 때에는 마귀에게 적용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시 마음(heart)에 영향을 미친다(빌 2:13).

111) Francis Turretin, vol. I, 547-548.

112) Francis Turretin, vol. I, 548.

즉, 천사와 마귀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성적 영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이 튜레틴의 주장이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천사의 능력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능력이다. 혹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실제로 죽은 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가사상태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녀에 의해 올라왔다”(삼상 28:12)는 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확실히 아니라고 하였다. “아마 그것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삼상 28:13) 사탄의 유령이었을 것이며, 성인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고 하였다.¹¹³⁾

3.2.4 천사들의 계급과 순서

천사들에게 어떤 순서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 분명한 서열이 있는가? 이에 대해 튜레틴은, “전자는 우리가 확증하지만, 후자는 유대인들과 로마 가톨릭교에 반하여, 우리는 부인한다”고 하였다.¹¹⁴⁾ 즉, 천사들 사이에 순서는 인정하지만, 계급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것에 관해서는, 천국에는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천사들 사이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heavenly host,” “thrones,” “dominions and powers,” “archangels,” “angels” 같은 이름들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 악한 천사들에 관해서도 성경에서는 “영원한 불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 되었다”(마 25:41)고 할 때 자주 귀신들의 왕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순서가 있는지, 그들 사이에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급한 추측은 조심스러운 무지보다 더 비난 받을 만하다”고 하였다.¹¹⁵⁾

113) Francis Turretin, vol. I, 549.

114) Francis Turretin, vol. I, 551.

115) Francis Turretin.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 사람들이나 특별히 스콜라철학자들은 이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모든 천사들을 세 계급 혹은 계층으로 나누고 treis, triadikas, diakosmeseis(최상급, 중급, 하급)이라 부른 Dionysius the Areopagite의 견해에 따라 이러한 제안을 했으며, John of Damascus와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모든 스콜라철학자들도 동일하게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가장 높은 계급은 cherubim, seraphim, thrones이 있고, 둘째 계급에는 dominions, principalities and powers, 세 번째 가장 낮은 계급에는 virtues, archangels and angels가 있다. 이러한 명명은 그들의 속성의 탁월성과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에 따른 것이다. cherubim은 지식의 빛이 뛰어나서 지혜로 다른 이들을 조명하며, seraphim은 신성한 사랑으로 열렬히 불타올라서 다른 이들을 비취주며, thrones는 사법적 영광과 공평으로 재판에서 다른 이들을 지배하며, 둘째 계급인 dominations는 천사들의 임무를 조정하며, principalities는 사람들과 지역을 다스리며, powers는 악마의 권력을 통제하며, 세 번째 계급인 virtues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임명되었으며, archangels는 보다 중요한 일에 대사로, angels는 보다 덜 중요한 일의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다시 천사들은 이성과 지식에 있어 탁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계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명상으로부터 사물들의 이치를 감지한다. 두 번째 서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적 원인을 알게 되며, 세 번째 서열은 근사한 원인의 숙고로부터 수집한 것으로부터 사물의 이치를 인식한다.¹¹⁶⁾

유대인들 역시 천사들을 여러 가지 계급으로 나누고 10개의 서열로 구성하였는데, 상호간에 지혜, 위엄, 권력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고위는 폐하의 왕관 아래 있으며, 최하위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거나 때로는 인간들과 대화를 하기도 한다. 상위의 것들 가운데는 “군장(chief princes, 단 10:13)”과 “모신 자(standing by, 사 6:2; 단 7:16)”가 있는데 (유사한 것으로는 “그 앞에 선자”와 “그의 얼굴을 뵈는” 것 같은 왕의 장관이

116) Francis Turretin, vol. I, 552.

나 최고 시종들로부터 나온 것), 그들은 일곱 우두머리와 보다 탁월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토빗서 12장 15절에서 라파엘이 “그는 일곱 거룩한 천사 중 하나로, 성자들의 기도를 가지고 가는 자로서, 거룩하신 분의 영광 앞에 들어가고 나오는”이란 말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러나, 튜레틴은 이에 대해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꾸며낸 이야기이며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천사들 사이의 계급을 부인하였다.¹¹⁷⁾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진짜 Dionysius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튜레틴은 주장한다. “(가짜 Dionysius에 의해 고안된) 하늘의 서열의 공허함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¹¹⁸⁾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바울은 그에 관하여 깊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디모테나 디도나 (Dionysius 보다는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의심할 여지없이 전달 했을텐데) 혹은 다른 바울의 사도들이 그들의 글에서 그것들에 관해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다는데서 거짓인 것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ionysius는 그로부터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서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마귀” “사탄” “용” “바알세불”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왕자”라 불리는 나머지 보다 훨씬 뛰어난 한 천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천사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한 천사가 다른 천사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¹¹⁹⁾

3.2.5 천사의 사역과 천사 숭배

3.2.5.1 천사의 중재와 사역

천사들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우리의 중재자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종교적 숭배가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도,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은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며, 그들의 후원과 간구로

117) Francis Turretin.

118) Francis Turretin, vol. I, 554.

119) Francis Turretin, vol. I, 555.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도록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부인한다고 하였다.¹²⁰⁾ 이 부분은 우리가 대체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튜레틴은 그 이유를, 첫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분만이 우리를 중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며, 그러므로 그 분만이 우리를 위해 중재한다(롬 8:34, 35; 요일 2:1, 2). 둘째,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는 것은 중재자와 제사장적인 직무의 한 부분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다. 딤후 2:5). 셋째, 그 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그 분만이 그들의 부패와 불순을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 한 것 외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튜레틴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천사들의 보호를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것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사의 보호의 한 부분이 아니며 주요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이다.¹²¹⁾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천사(숙 1:12)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천사, 즉,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저기서 아버지와 교회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는데, 천사라고 불린 것은 그 직무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계 8:3)에서도 창조된 천사가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천사를 말한다(그리스도가 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¹²²⁾

이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 첫째, 이 천사는 2절에 나오는 다른 일곱 천사와 구별되는데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종에 의해서 “또

120) Francis Turretin, vol. I, 560.

121) Francis Turretin, vol. I, 561.

122) Francis Turretin, vol. I, 562.

다른”이라고 말해지고 있으며, 둘째, 이 천사는 향을 드리는 제사장과 같이 우리들 앞에 서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히 9:24), 셋째, 그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취급하는데, 그러한 일은 창조된 천사에 의해 주어지지 않았으며, 넷째, 그는 향단을 받았으며 그것을 제단의 불로 채워 땅 위에 던졌다고 말해 진다. 그래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계 8:5)고 했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눅 12:49)고 하신 그리스도 한 분께만 해당 된다는 것이다.¹²³⁾ 그러므로, 계약의 대체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신약의 대체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그의 향연(즉,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향기로)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천사들의 사역을 사용하시는가? 그들은 “섬기는 영”(히 1:14), “하나님의 사자들”(시 104:4)이라 불렸으며, 계속해서 그 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단 7:10), 그의 뜻을 시행하기 때문이다(시 103:21).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을 원하셨던가 하는 것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튜레틴은,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시며, 그의 말씀 하나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첫째로, 천사들의 선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세상 다스리시는 일에 동역자로 그들을 두기 원하셨다. 둘째, 신자들의 위로와 구원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셨다. 셋째, 천사들과 인간들 사이의 우정의 증진을 위해서. 넷째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높거나 낮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이 더욱 공고한 유대관계를 통해 세상의 조화를 견고케 하기 위해. 다섯째, 그의 모든 작업의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러한 고귀한 피조물들의 섬김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현저히 더 빛날 것이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¹²⁴⁾

그리고, 튜레틴은 성경은 그들에게 많은 업무가 할당되었다고 증언 한다고 하면서, 첫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둘째, 그들 사이에서; 셋째, 세상에 대

123) Francis Turretin, vol. I, 561.

124) Francis Turretin, vol. I, 556.

하여; 넷째, 인간들에 대하여 그들의 사명과 사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들은 영원히 그 분을 칭송하며 숭배한다. 이것은 스랍들의(사 6:3) 삼중적으로 반복되는 거룩(계 4:8; 7:11,12)과 그리스도의 탄생 때 합창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인간들을 향한 선한 뜻이 있으라”(눅 2:13,14) 찬송과 시편 97편 7절; 103편 20절; 148편 2절의 의무로 초대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시중드는 자들로서 혹은 섬기는 자들로서 “그 앞에 모셔섰으며,” 그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뵈옵고,”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라”(단 7:10)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와 주이신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는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부여된 실제적 섬김이 또한 나타나 있는데, 잉태(눅 1:26-38); 탄생(눅 2:9-15); 유혹(마 4:11); 고뇌(눅 22:43); 부활(마 28:2-7); 승천(행 1:10,11); 그리고 마지막 날 그가 다시 오실 때 “그가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라”(살후 1:7)하였다.

둘째, 그들 자신들에 관해서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서로 간에 다양한 의무를 수행한다(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그 대화의 양식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서로 소리 지르며”(사 6:3), 다른 곳에서는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한다(스가랴서와 계시록에서).

그러나,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천사들 사이에 갈등이나 의견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¹²⁵⁾ 왜냐하면 “바사왕국의 왕자”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아무 것도 시도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에 의해 바사왕국을 다스리는 선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차라리 이것은 Scythians에 대항하여 아시아와 싸우고 있는 Cyrus의 아들, Cambyses를 일컫는 것이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한데, 20절이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상에 대한 천사들의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들은 창조된 것들을

125)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라”(단 10:20).

보호하고 그들의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야곱의 사닥다리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시 104:4) 분이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8절은 “불을 다스리는”천사와 “물을 차지한”(16:5) 천사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은 자주 그들을 그의 왕국을 방어하는데 사용 하신다(단 10, 11장).

넷째, 인간들과 관련하여서는, 사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징벌을 실행하는 것으로 소돔 사람들에게(창 19:11); 애굽 사람들에게(출 12:29); 산헤립의 군사들에게(왕하 19:35); 느부갓네살(단 4:13, 14, 23, 31); 헤롯(행 12:23)과 타락자들을 마지막 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마 13:41, 42)이다.

선택된 자들과 신자들에게는 징벌을 가하든지(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행한 것처럼, 삼하 24:16) 혹은 그들의 구원을 증진하기 위한(히 1:14)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에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데, 첫째, 가르침으로; 둘째, 위로함으로; 셋째, 그들을 보호함으로 실행된다. 여기에는 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섬김도 포함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에 데리고 가는 것과(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가는 것처럼, 눅 16:22),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세상 끝에 신자들을 모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3.2.5.2 천사숭배

튜레틴 역시 천사숭배를 부인한다. 천사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며, 그러므로 그들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들을 공경하되 신적인 숭배가 아니라 사랑으로써 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⁶⁾

그 이유는 이러하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로,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려 하자, 천사가 즉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126) Francis Turretin, vol. I, 563-567.

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천사가 겸손하여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2장 9절에서도 동일한 말이 나온다. 셋째로, 성경은 종교적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고 하였다.

이와 같이 튜레틴은 성경에 따라, 전지전능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종교적 숭배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지전능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해당하는 독특한 속성이며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전달될 수 없다. 그리고, 천사에 대한 숭배가 합법적이라면 어떤 명령이나 약속이나 승인된 예가 성경에 주어졌을 것인데,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를 방문한 천사들 중 한 사람에게 그 앞에 엎드렸던 것은,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여호와”라고 불렀다(창 18:3).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으며, 아브라함은 그를 “은 세상의 심판자”라고 불렀다(25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절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한 천사(창 32:24-30)도 호세아서 12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힘을 가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시록 1장 4절에서 언급된 “일곱 영”도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며, 단지 그렇게 불려졌을 뿐이며,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천사에 대한 숭배를 가르치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하였다.

3.2.6 수호천사

각 신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특정한 천사가 그들의 영원한 친구와 수호자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배당 되는가? 이에 대해 튜레틴은, 이것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하였다.¹²⁷⁾ 그리고, 비록 많은 교부

127) Francis Turretin, vol. I, 555.

들이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지만, 또한 비록 천사들이 신자들의 후견과 보호를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리고 어떤 천사들은 때때로 신자들을 위해서 보내지고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하나님의 신비를 계시하기 위해서 혹은 신자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족장들에게 그리고 다니엘, 요셉, 마리아 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 신자를 위한 후견 혹은 수호천사가 배정돼 있다는 것은 부인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로, 성경의 어디에서도 수호천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자유롭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도록(히 1:14) 모든 방향으로 보내졌지만 특별한 개인을 위해 매이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언 한다. 둘째로, 한 천사는 자주 많은 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한 사람을 위해 종종 보내진다. 한 천사가 예루살렘의 포위로부터 구했고(사 37:36); 한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 치고(시 34:7) 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자주 한 사람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시 91:11); “엘리사 주변에 불 말과 불 병거가 온 산에 가득 하더라”(왕하 6:17);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창 32:1, 2)라 하였다.

그리고, 이런 수호천사에 대한 의견은 이교도의 기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Epictetus는 이를 일컬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를 보호하고, 지키라고 특별한 정령을 배정해 주셨다”고 하였으며, Menander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정령이 각 사람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 생애의 지도자가 된다”고 까지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유대인들에게도 낯선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전해져 왔을 것이라는 것이다.¹²⁸⁾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과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두 구절이 주로 이를 확증하기 위해 제시되지만 그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천사들이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수호자로 보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유일한 천사가 개개의 아이들을 영구적으로 보호

128) Francis Turretin, vol. I, 559.

하도록 임명되었다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며, 베드로의 천사로 언급되는 구절도 더 좋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만약 그 말들이 한 천사를 언급하는 것이라면 어떤 천사가 그때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영구적인 수호자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 10절의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는 것도 천사들이 거룩한 집회에,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낮은 자와 높은 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것으로 해서 한 특별한 천사가 개인들에게 배정되었다는 것을 끄집어 낼 수는 없다고 튜레틴은 주장한다.

3.3 찰스 하지의 천사론

18세기 개신교회 신학사상의 중심주제는 계몽주의와 경건주의이다. 17세기의 교파 절대주의 혹은 교리 절대주의 시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편으로는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고(한류),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각성운동 및 선교활동(난류)이 일어났는데, 이 두 흐름이 19세기로 이어진다.

찰스 하지(Charles Hodge, 1822-1878)는 미국 장로교 사람으로서 181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거의 전 생애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다. 찰스 하지, A. A. 하지 및 워필드의 개혁신학은 1929년의 메이첸에 의해서 분리된 웨스트민스터 신학 전통으로 이어진다. 그의 신학은 창의적이라기보다는 17세기 칼빈주의를 체계화시키고 변호함으로써 미국 장로교회와 신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¹²⁹⁾ 한국에 소개된 장로교의 혈맥 속에는 18-19세기 복음주의 각성운동 전통 이외에 아치발더 알렉산더, 찰스 하지, A. A. 하지, 벤자민 워필드와 1910년 이래로 본격화된 개신교 근본주의 계통의 성경관과 신학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하지(Hodge)는 그의 조직신학 제 1권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적

129) 박노원, 148.

다음에 천사론 항목을 따로 두어 다루고 있다. 하지의 천사론은 철저히 성경에 따라 전개되는데, 이는 칼빈의 전통을 잘 이어 받은 것 같다.

3.3.1 천사들의 본질

하지(Hodge)는 “현대철학이 천사들의 실존을 부정하는 근거들은 성경의 명백한 진술들과 대립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천사들은 성경의 권위를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신앙규범으로서의 성경의 가치를 파괴하는 해석원리를 채택하지 않고서는 거부될 수 없다”¹³⁰⁾고 하면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천사를 철학이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지에게 있어서 천사들은 순수 영, 즉 비물질적이요 무형적인 존재들이다. 성경이 그것들에게 어떤 종류의 신체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자체로서 불가시적이고 불멸적이며 불사적이다.¹³¹⁾

천사들의 공간과의 관계는 비위치적(illocalitas)이지만, 편재적(偏在的) 곧 무소부재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어떤 일정한 시간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들처럼 범위적으로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한 공간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으로서 그들은 지성, 의지, 그리고 능력을 소유한다. 분명한 모든 것은 지성적 기능들과 그 지식의 범주에 있어서 그들은 인간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다. 또한 천사들의 능력은 아주 엄청나고, 정신과 물질을 제어하는 데까지 미친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들의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피조물이 가지는 모든 한계에 종속되어 있다.”¹³²⁾ 그러므로 천사들은 창조할 수 없고, 실체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자연법을 변형시킬 수 없고, 이적을 행할 수

130)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vol. I (Wm. B.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3), 637.

131) Charles Hodge, vol. I, 638.

132) Charles Hodge, vol. I, 639.

없으며, 수단들이 없이는 활동할 수 없고, 마음을 감찰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라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능력은 의존적이고 파생적이며, 물질 및 영의 세계의 법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그들의 간섭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허용되거나 명령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천사들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로 간주하거나, 성경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행위로 간주하는 결과들을 천사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지의 견해이다.

3.3.2 천사들의 지위

하지는 천사들이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고 한다.

천사들의 지위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원래 거룩한 존재였다고 분명히 가르쳐진다. 천사들은 시험단계를 거치는 동안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일부는 지켰지만 일부는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성경으로부터 분명히 추론된다. 자기들의 본분을 유지한 천사들은 거룩한 영광의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표현 된다.¹³³⁾

그러나, 이 거룩한 천사들은 모두 똑같은 등급에 속해 있는 존재들은 결단코 아니다. 천사들에게도 등급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보면 드러나는데, 그 용어들은 그들의 질서와 권위가 다양한 등급에 따라 존재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어떤 천사들은 정사들이고, 또 어떤 천사들은 권세들이고, 다른 천사들은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러나, “성경이 그 외에는 아무 것도 계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천사들의 계급제도에 관한 스콜라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사변은 권위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¹³⁴⁾ 이러한 견해는 칼빈이나 튜레틴을 비롯한 모든 개혁신학자들

133) Charles Hodge.

134) Charles Hodge.

의 공통된 주장이다.

3.3.3 천사들의 임무와 수호천사

하지는 천사들의 임무를 성경의 증언에 따라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둘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후사들을 돕는 일이라고 하면서, 친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례들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그들이 지금도 그리고 항상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데 종사한다는 것만큼 강하게 계시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¹³⁵⁾

그리고 선한 천사들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확실하다고 하였다.

첫째로, 그것들은 자연세계 또는 외부세계 속에서 결과들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일으킨다... 둘째로, 천사들은 자연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정신(minds) 속에도 작용한다. 천사들은 우리의 정신에 역사하고, 우리 본성의 법칙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정신들이 선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영의 고유한 특권인 그 직접적 작용에 의해 활동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진실의 제시와 사고 및 감정의 인도를 통해 활동한다.¹³⁶⁾

천사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인 영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mind)에 작용하고, 사고와 감정을 통하여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천사들은 성도들을 위한 일반적 인도와 보호를 할 뿐 아니라 내적 힘과 위로를 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튜레틴이 잘 설명한 바 있다.¹³⁷⁾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

135) Charles Hodge, vol. I, 640.

136) Charles Hodge, vol. I, 641.

137) Francis Turretin, vol. I, 547-548.

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 91:11, 12)라는 약속에 관해 쓰신 용법은 그것이 신적 보호를 약속하는 단순한 시적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들은 어린아이를 보호하며(마 18:10), 성인을 돕고(시 34:7), 죽은 자들에게도 함께 한다(눅 16:22)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그 뿐 아니라 천사들은 교회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특별한 행위를 담당한다. 율법이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주어졌던 것처럼, 또 천사들이 옛 경륜 아래 있는 신정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천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의 회중 속에 함께 하는 것으로 말해진다(고전 11:10). 이러한 천사들의 사역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성도들은 이 거룩한 존재들이 자기들 주위에서 자기들을 날마다 보이지 않는 원수들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위험들로부터 보호한다는 확신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는 천사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천사숭배를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분의 뜻을 행하시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신다(히 1:7).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도구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¹³⁸⁾

하지는 또한 수호천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이, 각 소아 또는 신자는 그 자신의 수호천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도 베드로의 천사가 언급되는데, 이 구절 역시 베드로가 수호천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은, 만일 그 하녀가 그것이 베드로의 유령이라고 말했다면 그 사실이 천사에 대한 대중의 미신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는 것이다.¹³⁹⁾

또한 하지는 민족을 수호하는 천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다니엘서 10장에,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에 관해 언급되고, 거기서 히브리인들에게 미가엘을 너희 군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주제에 관해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138) Charles Hodge, vol. I, 642.

139) Charles Hodge, vol. I, 640.

침묵하고 있으며,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방민족들 수호천사를 갖거나 가졌고, 또는 악한 영이 그들을 주재하였다는 암시를 보여주는 구절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천사인 미가엘에게 대적했던 세력들은 적어도 그 구절에 대한 한 해석에 따르면 “바사국 왕들”고 불리고 있으며, 그 다음 장에 보면, 지상의 주권자들이 선하거나 악한 천사들이 아니라 선지자에 의해 지적된 다투는 세력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특정한 천사는 한 민족을, 다른 천사는 다른 민족을 다스리는 특별한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견해는 성경의 사례와 갈등 속에 있는 견해로 공허하다고 하였다.¹⁴⁰⁾

다만 천사들은 선하든 악하든 인간보다 고상한 영적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들은 무수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 그들은 극히 권능적이라는 것, 그들은 우리 세상에서 활동하고 그 사건들 속에 개입한다는 것, 그들은 다양한 등급과 질서들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명칭은 그들이 주권자들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활동하는 존재임을 시사한다는 것 등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가르쳐지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다고 하였다.

3.3.4 악한 천사들

하지는 악한 천사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이라고 하였다. 즉, 처음부터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따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이 타락하여 악한 천사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것들은 범죄한 천사들로 언급되기 때문이다.¹⁴¹⁾ 그것들에 대한 통상적인 지칭은 다이모네스(δαίμονες), 아니 보다 더 통상적인 것은 다이모니아(δαίμονια) 인데, 번역자들은 이 말을 마귀(devil)로 번역한다. 그리고, 성경은 디아볼로스(διαβολος: 마귀)와 다이모니아(δαίμονια: 귀신) 사이를 구별하는데, 영역성경에서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140) Charles Hodge, vol. I, 640-641.

141) Charles Hodge, vol. I, 643.

그리고, 하지에 의하면, 영적 세계에는 단지 하나의 디아블로스(마귀, 사탄)와 다수의 다이모니아(귀신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악의 영들도 선한 천사들과 똑같은 존재질서에 속해 있는 것으로 표현 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탄은 특별히 성경에서 악한 모든 존재들을 망라하는 흑암의 나라의 우두머리로 선언된다.¹⁴²⁾ 그리고, 사탄의 수하들로 표현되는 다이모니아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죽은 악인들의 영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¹⁴³⁾

천사들은 본래 거룩하게 지음 받았으나, 그 후에 타락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그것이 “디모테전서 3장 6절에 근거된 교만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하였다.¹⁴⁴⁾

어떤 사람들은 사탄은 우리 우주와 인류를 장악하려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으로 유혹하도록 이끌었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도 성경에 언급이 없다. 다만, 그의 모든 동료 천사들보다 훨씬 등급이 높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의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교훈이다. 그는 사탄(대적자), 디아블로스(마귀), 훼방하는 자, 악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임금, 바알세불, 벨리알, 유혹자, 옛 뱀, 그리고 용으로 불린다. 그런데, 하지는 “그는 끊임없이 인격적 존재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는 다만 악의 화신(化身)이라는 합리주의적 관념은 성경의 권위와 조화되지 않고, 교회의 신앙과 모순된다”고 하였다.¹⁴⁵⁾ 이 부분 역시 마귀를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인격적 실재로 이해한 칼빈과 동일한 견해이다.

142) Charles Hodge.

143) Charles Hodge, vol. I, 644.

144)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정죄란 마귀가 똑같은 죄로 말미암아 받은 정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된다.

145) Charles Hodge, vol. I, 643.

3.3.4.1 악의 영들의 능력과 행위

이 악의 영들의 능력과 행위에 관해 말한다면, 성경은 그것들의 숫자가 무수히 많고, 모든 곳에서 활동하고, 우리 세상에 접촉하며, 자연과 인간들의 마음(minds) 속에 작용하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물론 거룩한 천사들에게 속하는 제한들이 그들의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오직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허용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 둘째로, 그들의 작용은 자연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그들은 인간들의 자유와 책임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능력은 아주 탁월하다. 인간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이끌린다고 말해지고, 악의 영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한다고 말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진신감을 입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도록 권고를 받는다. 그들은 인간들의 힘과 지혜를 뛰어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와 능력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폭풍, 화재, 질병, 등과 같은 모든 자연적 재난들뿐만 아니라 모든 슬픈 일들을 그 영들에게 귀속시키고, 악의 영들의 행위에 관한 과장된 견해들로 말미암아 커다란 악이 초래되었다고 하지는 지적한다.¹⁴⁶⁾ 그들의 영향력과 작용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선을 위한 영향력과 작용들 이상으로 발견될 수 없고, 또 그 이상 입증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고 인식할 수 없는 광명의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이와 반대로, 악의 영들의 꾀계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한다.

3.3.4.2 귀신들림

악의 영들의 권세가 인간들의 정신과 육체를 사로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복음전도의 역사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언급되는 귀신들림이다. 이 귀신들림은, 악의 영이 육체와 정신(mind)에 대해 통치적 영

146) 화재와 질병, 자연재난 등을 악한 천사의 소행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루터에게서 잘 살펴 볼 수 있다.

향력을 행사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일탈적 흥분과 커다란 고통을 야기시키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정신과 육체 속에 그 영들이 내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지는 “신약성경에서 언급된 귀신들림은 단순한 미치광이나 간질병자 또는 다른 유사한 질병들이 아니라 실제 귀신들림의 경우들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¹⁴⁷⁾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약속하셨고, 자신이 이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과 그의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행사할 능력을 부여하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메시아권과 신성에 대한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들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히 2:14).

그러므로, 귀신들림에 관한 교리를 특별히 믿지 못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하면서, “악의 영들은 존재한다. 그것들은 인간들의 정신(mind)과 육체에 역사 한다”¹⁴⁸⁾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특별한 권세를 주셨고, 타락 이후 세상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으며, 그것을 그의 지배로부터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의 특별한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그 분이 오실 때까지는 사탄의 시대였고, 그 때가 임하자 그 어느 때보다 그 분이 자신의 권세를 적극 천명함으로써, 사탄의 전복을 더욱 확실하고 더욱 현저하게 부각시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지는 이 문제에 대해 루터와 칼빈을 비교 하면서, 루터는 모든 악을 흑암의 영들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고, 칼빈은 실제로 그들의 활동이라고 입증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행위로 귀속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누구도 어떤 마을이나 집을 불태워버리는 불이 일어날 때, 졸병 마귀가 불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 불에 부채질하고 앉아있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성경이 귀신들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과 노력에 주의하도록 우리 자신을 강대한 무기로 무장시켜, 가장

147) Charles Hodge, vol. I, 645.

148) Charles Hodge, vol. I, 646.

강한 군대들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귀신들에 대해 더 많이 알거나, 다른 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¹⁴⁹⁾ 루터의 귀신 이해는 천사와 같이 다소 상상력을 가미한 동화적 요소가 강하며, 칼빈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상을 말하고 있지 않다.

3.4 바르트의 천사론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는 종교개혁 이후 성경말씀을 재발견한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개신교 신(新) 정통주의 신학자이다. 바르트의 신학은 그의 주저 **교회교의학**(*Church Dogmatics*)에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는 근세신학이나 현대신학에서 거의 무시되어 오던 천사론을 정식으로 신학의 한 과제로 취급하였다. 천사론은 **교회교의학** 제 3권 섭리론과 창조론 다음에 하늘왕국이란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는 천사를 존재론적(Ontologie)이 아니라 천사의 기능론(Die Lehre von der Funktion des Engels)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3.4.1 천사론의 근거와 한계

바르트는 “천사에 대한 교리는 예정, 창조, 인간과 같지 않게, 분명한 의미가 없으며 그 자체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¹⁵⁰⁾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주제에 독립적이거나 자치적이지 않으므로, 독립된 토의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분명히 여분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될 것이며, 위험스럽고 타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천국의 괄목할 만한 영역을 우리의 교리 연구 영역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¹⁵¹⁾

그러면서 바르트는 이 문제와 관련한 5가지 방법론적 원칙을 제시하고

149) John Calvin, I. x vii, 13.

150) K. Barth, III/iii, 370-371.

151) K. Barth, III/iii, 369-370.

있다.¹⁵²⁾ 첫째, 이 문제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신교회의 전통인 성경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바르트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철저히 따라야 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말하지 않는가를 존경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증언과 씨름해야 한다. 그러므로, 혹은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 결론짓고, 천사에 관해서 말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금지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 성경에서 분명히 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므로, 성경의 권위에 항의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나, 천사에 대한 교리가 신학적이고 신앙과 교회의 선포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확고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 천사의 교리는 성경 속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주제에 속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맘대로 재해석하거나 부인하거나 우리의 호기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불합리하거나 이상한 것은 아니다.

넷째, 우리는 그 임무를 오직 성경이 제공하고 조명하는 것에만 한정해서 보아야 하며, 다른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천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과 다른 지식의 자원을 동시에 바라보려고 하기 보다는 단호하게 전적으로 성경만 바라보는 것이 낫다. 천사를 발견하려고 성경과 다른 것을 동시에 바라본다면 우리는 단지 흐릿한 그림만 보게 될 것이다.

다섯째, 신학은 단지 신학이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천사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판단할 것 없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천사들에 관해 기독교인들이 적당히 이해하기 위한 개념과 생각을 이끌어 내기에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다.

이와 같이 바르트의 천사론도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다. 또한 그는, “천사

152) K. Barth, III/iii, 371-413.

론은 천사에 대한 철학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들은 그러한 철학적 용어로 풀이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¹⁵³⁾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애매하고, 의심스럽고 불필요 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3.4.2 천사의 사역

바르트에 있어서는 천사론에 대한 주제가 독립적이지 않듯이, 천사의 존재나 그들의 사역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진 독립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며, 천사들에 대한 독립적 경험이 아니다. 그러나,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시고 활동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는 세상-하늘에는 천사들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천사들의 경험이 있는지 어떤지, 혹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깨우치시며, 양육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곳, 이 모든 곳에는 그의 천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로 일하지 않는가?¹⁵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사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고 자비를 계시하시는 곳에서 천사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동반하고, 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방식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천상의 중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경적 구절들은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에 대해서 천사라는 단어를 홀로 그들의 본질과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속

153) K. Barth, III/iii, 412.

154) 실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자신을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줄 천사 같은 존재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망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Gegenwart)내지 하나님의 역사 내적 실재와 관계된다. 바르트는 천사에 관한 존재론적 규명보다는 오히려 천사의 사역(Werk) 내지 기능(Funktion)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재진, 157-158.

격 혹은 소유격으로 묘사하고 있다.¹⁵⁵⁾ 그들은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 존재하거나 활동하지 않으며, 그들은 스스로의 역사나 목적이나 성취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의 본성과 지위로부터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독립된 모습을 띠려하거나, 독립된 역할을 하려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거나 한다면, 그는 거짓말 하는 영, 즉 악령일 것이다. 또한 자기가 주목받으려 하거나, 사랑과 명예와 칭송을 받으려 한다면,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거래하고 교제하려고 인간을 썬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영, 즉 악령일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 있으며, “단순한 하나님의 사절이 아니라 전권대사이다”¹⁵⁶⁾

물론, 하나님은 천사들 없이도 지상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지상적 피조물들을 위한 사건이 되며, 경험이 되며, 결정이 되며, 이러한 것들은 천사들의 행위 속에 실현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들은 우주적 실체 내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며, 순수한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천사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천사를 밀접하게 관련지어 말하고 있다.¹⁵⁷⁾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수행한다. 그들에게 자발성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빼 먹을 가능성은 없다. 그들의 피조적 자유는 그들의 순종과 일치한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함께 말하고 행동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묵일 필요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묵인다. 이것이 천사들의 사역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야 할 일반적 사항이다.

그러나, 지상의 피조물들 보다 그들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으니,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 가장 먼저 알며, 본래적인

155) K. Barth, III/iii, 479.

156) K. Barth, III/iii, 484. 그들은 정치, 경제적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존하는 하나님의 전권대사 내지 대리자이다.

157) K. Barth, III/iii, 486.

지식을 가진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움직임에 대해 듣고 보는 것을 가장 먼저 할 뿐 아니라 완전하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신뢰할만한 증인들이다.

바르트는 “천사”라는 용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그 기능과 활동에 비추어 본 실체를 묘사하는데, 둘째,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언하고, 증언하는 활동을 묘사하는데, 셋째, 다른 존재들의 활동과 구별되는 활동의 직접성(무 매개성)으로 하나님의 봉사를 수행하는 의미가 있다” 하면서, 다른 어떤 단어도 “천사”라는 단어에 상응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¹⁵⁸⁾ 그들은 전적으로 천사(天使) 즉 메신저들로서, 그들은 천상의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봉사로써 그들을 안다.

3.4.3 천사의 명칭과 계급

3.4.3.1 천사의 명칭과 계급

바르트는, 천사들에 대한 성서적 교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천사들의 본질이라든지, 그들이 사람인지, 물질세계와 하늘과의 관계, 그들의 숫자나 서열, 창조에 대해, 본래의 단위, 천사와 악마의 나눔 등에 관해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⁵⁹⁾

그러나, 그것이 천사들에 대해 어떤 진실한 지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 상호간의 관계나, 내부적인 순서나, 천상의 계급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¹⁶⁰⁾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이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의 이름이나, 계급이나, 숫자 등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모든 개혁신학자들의 공통된 것이다.

158) K. Barth, III/iii, 511.

159) K. Barth, III/iii, 410.

160) K. Barth, III/iii, 512.

3.4.3.2 수호천사

바르트는 민족천사나 수호천사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 소위 말하는 민족천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10장 13절로부터 유추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이 성경본문으로 입증될 수 없다고 하였다.¹⁶¹⁾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곳 안에 왜 그 나라나 민족이나 공동체의 존재와 천사의 특별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역사적 수집물들의 방법과 역할이 없어야 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의 섬김을 헤아려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과 관련한 수호천사는 어떠한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 해 줄 만한 성서적 구절들이 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욥기 33장 22절인데, 바르트는 이것이 특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 사람의 수호천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나오는 “그의” 천사가 그의 수호천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하였고,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도 수호천사가 책임지고 있는 각자의 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주는데, 한 천사가 특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¹⁶²⁾ 이것이 수호천사에 대한 바르트의 견해이다.

3.4.4 마귀론

3.4.4.1 마귀의 존재와 출생

3.4.4.1.1 마귀의 존재

바르트는 천사에 대하여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마귀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사악한 존재들은 매우 실재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너무 오래 숙고하거나, 너무 자세하게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다룰 것은 아니다. 특히 루터를 포함해서 너무 자주, 길게, 심각하게, 조직적으로 마귀를 살펴보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¹⁶³⁾

161) K. Barth, III/iii, 517.

162) K. Barth, III/iii, 518.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재미있어 하거나, 그들에게 심각하고 조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유로 바르트는 천사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길게 다루었지만, 마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살펴 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르트는 칼빈이나 튜레틴, 찰스 하지와 달리, 마귀를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無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존재한다. 우리는 무(無)의 독특한 존재를 부정할 수 없듯이, 그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은 무(無)이며, 공허이며,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존재하지만,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존재하며, 부적당하게 존재한다.”¹⁶⁴⁾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요 지상의 피조물이나 천상의 피조물도 아니요, 그 어느 것에도 속해 있지 않다. 거짓이 그 존재자체이다.

바르트는 계속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도 아니며 피조물의 것도 아니며, 천상의 피조물로도 아니며 지상의 피조물로도 아니며, 그러므로 그들은 전자로서도 후자로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적이 아니지만 非 신적이 아니며 反 신적이지도 않다. 다른 한편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피조물이 아니다”¹⁶⁵⁾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분의 피조물을 망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의 존재는 부적당하며, 하나님의 비의도적이며, 그 분의 좌편에서, 저주받은 존재로서, 급히 파멸되어야 할 존재로 영원히 존재한다. 그들은 스스로 항상 무(無)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¹⁶⁶⁾

바르트의 이러한 견해는 거슬러 올라가면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어거스틴은 존재와 참존재, 비존재를 논하면서, 악의 근원을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존재하는 것이나 당신과 같은 것이 아니므로 비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그것들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163) K. Barth, III/iii, 519.

164) K. Barth, III/iii, 523.

165) K. Barth.

166) K. Barth, III/iii, 521.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비존재)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했다.¹⁶⁷⁾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신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존재하면서도 무(無)일 수 있는가? 무(無) 자체가 바로 존재가 아닌가? 어거스틴도 그것 자체가 신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신의 피조물이 아니면서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독특하게 무(無)로 존재한다는 바르트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형이상학적 언어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베르카우어는 바르트의 이런 마귀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無(nothingness) 이기는 하지만, 아무 것도 없는 것(nothing)은 아니다. 대신에 우리는 마귀가 실제적으로 혼돈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왼 손 아래서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어둠과 적대의 모순의 요소이다.”¹⁶⁸⁾

그런데 바르트는, 無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형태의 승리는 진짜 실체가 아닌 단순한 현상처럼 자신을 나타냄으로써 성취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지를 지니고 그것에 대해 밝히 알며, 그것의 면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관심 한 척 해야 한다. 그 속에는 아무 것도 없다. 無는 자신을 매우 사소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을 숨김으로써, 아무 염려 없는 낙천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그냥 존재하는 것에 만족한 것처럼 거짓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실체와 인격을 가진 것처럼, 생명력과 자발성을 가진 것처럼, 형태와 권세와 움직임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으로 그의 왕국을 세우고 조직한다. 귀신들(demons)이 그 대표자들이며, 거짓의 권세들은 수 천 가지 다른 형태들을 갖고 있다.¹⁶⁹⁾ 그들의 왕국은 하늘의 천사들의 왕국과 매우 유사하다. 그들은 실제적이고 활발하며 힘이 있으며, 가끔씩 심각하고 엄숙하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교활하고 강하며, 이 모든 자질들이 결합되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 그들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르트는 “그들이 사실 어디서 나타나

167) Augustinus, *성어거스틴의 고백록*, 216.

168) G. C. Berkouwer,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Eerdmans, 1956), 77.

169) K. Barth, III/iii, 527.

지 않는가 하는 것이 실제적인 질문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영혼의 깊숙한 곳에(the depths of the soul),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특별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개인의 성장과 상호관계 속에 있으며, 일상의 빵을 위한 관심과 다툼 속에 있으며, 만족을 찾거나 염려와 편안함, 열정이 솟아나는 곳과 식는 곳, 게으름과 열심, 어리석음과 재치, 조직적인 곳과 혼돈... 민족과 나라들, 그리고 아름다운 일치와 교회의 용서 속에도 있다고 하면서, “천사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도 있다”고 하였다.¹⁷⁰⁾ 성경은 결코 악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힘이 없다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선포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통치하시지 아니하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존재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마귀가 “영혼의 깊숙한 곳에(the depths of the soul)” 존재한다고 하여, 다른 개혁신학자들이 정신(mind)에는 작용하지만 영혼(soul)에는 작용하지 못한다고 한 주장과는 다르다. 이는 바르트가 이러한 부분에는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인다.

3.4.4.1.2 마귀의 출생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는 말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말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 말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루시퍼라는 아침의 별로서 바빌론 왕을 묘사한 말과 연관되어 있었다. 창세기 6장 1-14절도 이 말과 관련이 있다. 유다서 6절은 천사들이 그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다가 처소를 상실한 천사들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악을 저지른 천사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러한 본문들은 매우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따라 가도록 추천 할 만하지 않다”고 하였다.¹⁷¹⁾ 참을 수 없는 인위성이 천사들이 타락하여 마귀와 귀신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교리

170) K. Barth, III/iii, 528.

171) K. Barth, III/iii, 530.

를 발전시키는 기초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無)를 있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과 피조물과 관련한 조직 속으로 끌어들이어서, 그 가능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추론하려는 불법적인 시도일 뿐이다.

그러면서, 바르트는 이 영역이 천사와는 매우 다른 영역이라고 말했다. “두 영역은 기원과 본질에 있어서 함께 속해 있지 않다. 천국과 지옥 사이 만큼 공통된 점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귀(devil) 그리고 천사와 귀신들(demons)을 동일 출생으로 말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공통된 뿌리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¹⁷²⁾ 그는, 보다 오래된 신학은 천사와 귀신들이 동일한 “천사들”이란 한 가지 개념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바둑의 흰 알과 검은 알이 같은 상자에서 나와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심각한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베르카우어는 바르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그것이 귀신들(demons)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¹⁷³⁾

그럼, 마귀와 귀신들의 기원과 본질은 무엇인가? “유일한 가능한 대답은 그들의 기원과 본질은 무(無)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¹⁷⁴⁾ 이것이 마귀와 귀신에 대한 바르트의 거듭된 주장이다. 그리고 그는 다른 한편으로 실제 마귀가 하늘에 있었는가 하는 것도 말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귀들은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하늘에서 온 것처럼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천사는 아니었다.”¹⁷⁵⁾ 바르트는 그 증거로써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 한다”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예로 들고 있다.

베르카우어는 이에 대해 바르트가 하늘 왕국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를 하였다고 하였다. 바르트의 주장은, 그들의 자유는 하나님을 위한(for) 자유이며, 천사들의 그러한 자유는 결코 선악의 십자로 위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죄를 지을 수 없으며, 마귀는 결코 하늘에

172) K. Barth, III/iii, 520.

173) G. C. Berkouwer,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71.

174) K. Barth, III/iii, 522.

175) K. Barth, III/iii, 531.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르카우어는 바르트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 치명적인 자유의 개념이 천사의 타락 교리를 세운 데 대한 반대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였다.¹⁷⁶⁾

3.4.4.2 마귀의 속성과 활동

귀신들은 하나님의 천상 사자들의 대적자들이다. 천사들과 귀신들은 창조와 혼돈, 하나님의 자유은총과 무, 선과 악, 생명과 죽음, 계시의 빛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둠, 구원과 파멸, 케리그마와 신화와의 관계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으며, 그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귀적 영역을 그만두지는 않는다.¹⁷⁷⁾

거짓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강력하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항상 강력하며, 우리의 방어망을 뚫거나 탈출을 차단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저항하려 하거나 휴식을 찾으려 할 바로 그 시점과 장소에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단지 거짓의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실제적인 힘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단지 진리만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 승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승리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심이다. “주님이시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無와 거짓세력을 전복하고 승리하였다.”¹⁷⁸⁾ 그리고 천사들은 이 역사의 증인들이다.

3.5 신앙고백문 속의 천사론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에는 독일에서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스위스의 쾰링거, 외콜람파디우스, 칼빈 등이 일으킨 종교개혁,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일어난 재세례파 운동과 독일의 토마스 뮌처 등이 일으킨 좌경화 종교

176) G. C. Berkouwer,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79.

177) K. Barth, III/iii, 520.

178) K. Barth, III/iii, 530.

개혁,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반(反) 종교개혁(The Counter-Reformation)이 있다. 이상 16세기의 종교개혁 5가지 중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개혁교회의 기원이다.

‘개혁(Reformed)’란 명칭은 1560년대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사용되었고 17세기에 굳어진 용어으로써, 16세기의 로마 가톨릭교회를 개혁함에 있어서 루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개혁이지만 당시의 좌경화 종교개혁자들만큼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을 지녔다.¹⁷⁹⁾

Presbyterian은 17세기(1648)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을 성경 다음 가는 교리와 설교를 위한 표준으로 받아들이지만, Reformed는 여러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을 각각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신앙고백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개혁교회의 천사론을 위해서는 신앙고백문 속에 나타난 천사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앙고백문 속에는 천사론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앙고백문들은 공통적으로 천사의 존재를 승인하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사역자이다. 반면에 마귀는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다.

벨직 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 1561)는 창조를 다루고 있는 제 11조에서는 천사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또한 선한 천사들을 창조하여 자신의 사자를 삼으시고 그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봉사케 하셨다. 그들 중의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탁월성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 타락하였으며, 또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원시적인 상태를 계속하였다.¹⁸⁰⁾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피조물이라는 것, 마귀와 천사는 같이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것이 마귀라는 것 등이 나타나 있다.

179) 박노원, 41-42.

180) Philip Schaff, *The Creeds of the Evangelical Protestant Church*, contributed by Charles Brow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2004), 395.

그리고, “우리는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실수를 거부하고 혐오하며, 동시에 악마들은 그들 스스로의 기원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에 따라 사악해 졌다는 마니교도들의 주장도 거부 한다”¹⁸¹⁾고 하여, 천사를 부인하는 것을 금하며, 마귀가 피조물이 아니라는 주장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외하면 유럽의 개혁신교회들에 의해서 가장 애용되어 왔던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서(1566)에서는,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말씀에 의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 영원하신 성령에 의하여 그 모든 피조물을 보존 하신다”고 하였다.¹⁸²⁾

그리고 천사들에 관하여는,

피조물들 가운데 천사와 사람이 가장 탁월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며(시 104:4),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다(히 1:14).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거짓말쟁이였다(요 8:44). 어떤 천사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신실한 종의 임무를 위임받았으나, 다른 천사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타락하여 멸망에 떨어져 모든 선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¹⁸³⁾

고 하였다. 여기서도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미계통 장로교의 교리적 표준으로 널리 알려져 사용되었으며, 한국장로교 역사를 통하여 역시 사용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8)에서도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작정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딤후 5:21, 마 25:41) 영생으로

181) Philip Schaff.

182) 이형기, **세계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31.

183) 이형기, 131-132.

예정하셨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예정하셨다.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작성된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고 불가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이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더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없다(딤후 2:19, 요 13:18).¹⁸⁴⁾

그리고, “제 21장 :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에서, “천사나 성자나 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골 2:18, 계 19:10, 롬 1:25)”고 하였으며,¹⁸⁵⁾ “제 33장 :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에서 “그 날에는 배신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고전 6:3; 유 6; 뱀후 2:4),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언행심사를 일일이 보고하고, 육신으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후 5:10; 전 12:14; 롬 2:16, 14:10, 12; 마 12:36, 37)”라고 하였다.¹⁸⁶⁾ 마귀의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는 것과, 마귀의 최후 심판,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등이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개혁신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서들인 벨직 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 1561),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서(1566), 영미계통 장로교의 교리적 표준으로 널리 알려져 사용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8) 등은 공통적으로 천사들의 존재를 확인해 주고 있으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자신의 사자를 삼으시고, 그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봉사케 하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천사들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스스로 타락하여 악하게 된 천사들도 있다고 하였으며,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184) 이형기, 249.

185) 이형기, 276.

186) 이형기, 294.

4. 개혁교회의 천사론

4.1 천사론의 근거와 천사의 존재

4.1.1 천사론의 기원

4.1.1.1 천사론의 근거

개혁교회의 신학자들은 천사론의 근거를 철저히 성경의 증언에서 찾고 있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¹⁸⁷⁾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증언하는 책으로, 오늘날도 교회에 의해서 읽혀져야 하고, 해석되어야 하며, 행동되어야 할 하나님의 행위들에 대한 신앙공동체의 반응으로 본다. 따라서 개혁교회의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의 천사론을 전개한다.

그 중 대표적으로 칼빈의 천사론은 성경이 시작하는데서 출발하고 성경이 끝나는 곳에서 마친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의 그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고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⁸⁸⁾ 그러므로 천사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근거가 확실한 것이며, 그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천사의 존재나 성질, 계급, 수에 대해서 공허한 사색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것을 가르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신학자의 임무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의 천사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이다. 천사들을 믿지 않는 고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 터무니없는 생각은 성경의 여러 증거와는 매우 반대되는 것으로, 어떻게 그런 유의 무지가

187) John Leith,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생명의 샘, 1995), 284.

188) John Calvin, I. x iv, 3.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였다.¹⁸⁹⁾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자 튜레틴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다소 사변적이며 철학적인 천사론을 전개한다. 그리고 많은 고대 작가들, 특히 희랍의 크리소스도, 그레고리 나찌안주스, 바질등의 교부들과 제롬, 암브로시우스 같은 라틴교부들의 의견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확증하기도 한다. 그의 천사론 전개방식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튜레틴 역시 논리 뿐 아니라 천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것은 논리가 입증할 뿐 아니라 성경이 주장하는바”라고 하였다.¹⁹⁰⁾

17세기 칼빈주의를 체계화 하고 변호한 찰스 하지 역시 같이 성경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천사를 찾고 있다. 그의 천사론은 칼빈의 천사론과 가장 유사한 점이 많다. 그는 “인간보다 더 고상한 지성적 피조물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믿음이었다”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선하고 악한 천사들과 그들의 중요한 기능들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특히 그의 백성들과 그의 교회의 경험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천사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말해지기 때문에 그것들에 관한 성경의 교리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¹⁹¹⁾ 그에게 있어서도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는 천사들의 계급제도에 관한 스콜라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사변은 권위나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20세기에 오면서 다소 변화한다. 바르트는, 단순히 성경에서 천사를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견지에서 천사론을 전개한다. 신학이 독점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라면, 하나님 홀로 사람 홀로라면, 천사들에 대한 이해와 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라는 규범적 형식에는 항상 하늘과 땅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과 하늘 사이,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 그리고 하

189) John Calvin, I. x iv, 9.

190) Francis Turretin, vol. I, 540.

191) Charles Hodge, vol. I, 637.

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천사들의 특수한 자리가 있는 것이다”¹⁹²⁾라고 하였다. 즉,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므로, 그는 지상에 많은 증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즉 이를 위해서 그의 강력한 천사들이 항상 그의 곁에서 존재하는 것이라 하였다.¹⁹³⁾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비의 특수한 전달자로서 지상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으며, 하나님의 땅에 대한 뜻과 목적에 따라, 하늘이 땅에 내려 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땅을 통치하실 때, 거기에 있는 것이다. 바르트의 이러한 천사론은 천사의 존재 자체보다는 천사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바르트 역시 성경에서 증언하는 천사론을 옹호하면서, 천사는 사변의 산물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이며, 그들은 언제든지 신에게 영광을 드리는 임무를 수행 한다고 하였으며, “천사들을 믿지 않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성경의 여러 증거와는 매우 반대되는 것으로, 어떻게 그런 유의 무지가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였다.¹⁹⁴⁾

그러면서 바르트는 이 문제와 관련한 다섯 가지 방법론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⁹⁵⁾ 첫째,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철저히 따라야 하며, 둘째, 이런 관점에서 혹은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 결론짓고 천사에 관해 말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항의할 권리는 없다. 셋째,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주제에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맘대로 재해석하거나 부인하거나 우리의 호기심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불합리하거나 이상한 것은 아니다. 넷째, 우리는 그 임무를 오직 성경이 제공하고 조명하는 것에만 한정해서 보아야 하며, 다른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도 안 된다. 다섯째, 성경은 천사들에 관해 기독교인들이 적당히 이해하기 위한 개념과 생각을 이끌어 내기에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다는

192) K. Barth, III/iii, 419.

193) K. Barth, III/iii, 462.

194) John Calvin, I. x iv, 9.

195) K. Barth, III/iii, 371.

것이다.

브룬너 또한 자신의 신학적 견지에 따라 천사론을 전개한다. 브룬너는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의 관련성,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⁹⁶⁾ 그러면서, 성경이 천사들과 선하고 악한 영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거의 이야기 해 주고 있는 바가 없으며, 그 말하는 바가 교육적이지도 않으며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였다. 또한 성경에서 천사들은 묵시적이거나 전설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의 “아침의 별”은 사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며, 베드로 후서 2장 4절 역시 사탄의 타락이 아니라 창세기 6장의 신화적 존재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사탄의 본성과 악마적 힘에 대해서 거의 말하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럼, 브룬너는 천사론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브룬너는 먼저, 마귀의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한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 마음의 무의식적 과정을 이성적 측면에서 보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귀는 부분적으로 심리적이거나 사회적 실체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죄의 경향성은 사회적인 현상을 떨 수 있다”고 하였다.¹⁹⁷⁾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마귀의 존재를 암시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적 태도는 어둠의 권세가 구원 메시지의 필수적인 어두운 배경이 되어 있으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사탄적인 죄는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유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발적인 자생적인 죄로써, 인간의 죄와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라 하였다.

그럼, 그러한 “순수한” 죄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브룬너는 “만약에 정신-신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실제로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죄를

196) Emil Brunner,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and Redemption*, trans. by Olive Wyon, vol. I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2), 133.

197) Emil Brunner, 138.

“발명”(invent)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죄를 범한다면, 그가 발명하지 않은 죄는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선에서 악마적 권세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¹⁹⁸⁾라고 하면서, 기독교적 신앙은 악마적 초자연적인 권세를 인정해야만 하고, 순수한 영적인 악마적 존재의 죄는 인간의 죄와 대조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브룬너는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성경이 사탄에 대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라는 성서적 계시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오셨다(히 2: 14). 그러므로, 만약에 죄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권세의 굴레 아래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사탄의 권세의 어두운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어둠의 권세가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단지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객관적 실체이며, 순수한 영적 힘이요, 그 영향력의 방식은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마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정복하셨다는 것이다. 십자가는 마귀의 패배의 표지이며, 그것을 정복한 그 분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한다. 따라서, 사탄은 초인간적인 실체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진짜 투쟁이며, 구원은 진실한 승리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또한 천사에 대한 교리를 새로운 빛 아래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초자연적인, 비지상적인 영의, 악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예수의 증언은 천사들의 세계의 실체도 확실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마귀와 다른 한편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처분에 따르는 선한 천사들의 많은 무리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브룬너의 천사론은 먼저 마귀에 대한 탐구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98) Emil Brunner, 139.

천사론에서 그 증거를 찾고 있다. 다만 바르트의 경우 하늘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천사가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브룬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하여 천사론을 전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천사를 적극 긍정하며, 성경이 제공하고 조명하는 것에만 한정해서 보기 원하고, 그 이외의 논리적이고 철학적이며 사변적인 것은 무가치하다. 그리고, 천사는 사변의 산물이 아니라 실재인 존재로서, 이는 동화적 요소가 강한 루터나, 논리와 철학에 따라 천사론을 전개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천사론과 구별된다.

4.1.1.2 악의 존재 문제

바르트와 브룬너의 경우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천사론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즉, 무엇 때문에 천사론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막연히 성경에 천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필요성은 무엇보다 신정론(神正論)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왜 무고한 자가 고통과 수난을 당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면,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과 고난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9)라는 예수의 부르짖음은 神正의 문제에 대한 가장 드라마틱한 표현인 동시에 성경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신정에 대한 모든 질문들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교부들 가운데는 이레니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18세기에 라이프니츠(Leibniz)는 신정론(神正論)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런 물음은 다신론이나 정령적인(animistic) 원시사회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악한 신이나 선한 신을 공존시켜 생각하는 다신론의 입장에서 악의 기원은 당연히 악한 신에 기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일신론에서는 악의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기에 이른다. 사랑이시며,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과 악의 존재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악의 기원은 무엇이고, 악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신학적 입장

을 간단히 살펴보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악의 문제는 이원론적 사고에 의해 해결하려 하였다. 즉, 이 세상에는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가 상충하면서 존재한다. 선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악은 악신(anti-God)에게서 나왔다. 이러한 이원론은 영지주의(Gnosticism)와 마니키이즘(Manichaeism)에 나타났고, 19세기에 셸링(Schelling)에게 나타난다.¹⁹⁹⁾ 플라톤 역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각도에서 이원론을 주장하였으며, 성경에서도 상대적 이원론(relative dualism)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과 그리스도교 전통은 악의 이원론적 설명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방해할 만한 다른 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이다.

성서의 전통에서는 대체로 답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²⁰⁰⁾ 첫째로, 고통과 악은 인간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으로,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악은 인간 역사와 함께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도 비롯되지도 않고 인간의 사악에서도 비롯되지 않은 참으로 억울한 의로운 자의 고통도 있다. 셋째로, 악의 존재와 힘의 또 다른 설명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헤겔은 악도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정립되는 것으로, “세계의 모든 것은 신적 정신 혹은 靈(Geist)으로서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변증법적 운동으로부터 온다. 악은 정신의 변증법적 자기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요소이며 정신에 의하여 부정되고 고양 된다”고 하였다.²⁰¹⁾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가장 강력하게 거부되었다.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악에 적대한 분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그리스 사상가들은 악은 근본적으로 관능(sensuality)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육체적 본성과 특별히 쾌락은 보다 더 높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체가 물론

199) 황승룡, **조직신학(상)**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92), 231.

200) 김동건, “몰트만의 신정론,” **신학과 목회** 제 14집 (2000): 166-167.

201) 김관진, **기독교조직신학**, 제 1권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371.

악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육체가 악의 근원이라든지 혹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대적인 악의 본성과 기원이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모든 악의 뿌리는 조직과 제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악의 근원인 사회구조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없으며, 힘을 소유하지 못한 계급이나 단체가 힘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 압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악은 어떤 계급이나 계층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²⁾

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신 자유로부터 왔다는 주장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선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떻게 악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인간이 실제로 악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 마음 속에 자기 파괴적인 사상과 욕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악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간으로부터도 아닌, 우리 자신 바깥에 있는 유혹자에게서부터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 유혹자는 피조물로서 타락한 천사라 본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어떻게 그의 창조자를 반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바르트는 이 신정론 문제를 부정적 무(無)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부정적인 무(無)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이 존재하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 3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존재이다.²⁰³⁾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적 사역(opus proprium)과 대조되는 이질적 사역(opus alienum)에 속한다. 이와 같이 ‘선의 결핍으로서의 악(privatio boni)’이나 ‘부정적인 악

202)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 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49), 93.

203) K. Barth, III/iii, 402.

(das Nichtige)’이라는 개념은, 신플라톤주의로부터 유래되어 어거스틴에게 강한 영향을 준 개념으로, 이후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²⁰⁴⁾

김균진은 이러한 바르트의 견해를 따른 것 같다. 그는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에서 악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²⁰⁵⁾ 물론 창세기 1장의 기자는 이를 가리켜 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형태가 없고 어둠으로 가득한 카오스(chaos)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세계에 대칭하여 있음을 표상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김균진은, 이 카오스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 것도 없는 것, 곧 無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無로부터 하나님은 피조물이 있게 하신다고 하였다.²⁰⁶⁾ 그러나, 타락의 사건과 함께 無는 인간과 그의 세계를 다시 無로 돌리려고 하는 위협적인 세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무(無)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도 아니요 창조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과 “혼돈”은 어디서 온 것인가?²⁰⁷⁾

로흐만 역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chaos)이 바로 이런 무실자라고 하면서, “무실자는 하느님이 계신 것이나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제 3의 방식으로 있다”고 하였다.²⁰⁸⁾ 로흐만 역시 바르트와 같이 이 혼돈은 창조주도 피조물도 아닌 비실재의 실재(Das Wesen des Unwesens)이다. 그리고 이 무실자는 그에게 고유한 제 3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 하나님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지하게 취급하는 특별한 대상이

204) 나학진, “신정론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제 42권 (1983): 614. 어거스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고 하였으며, 악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므로 비존재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Augustinus, **성어거스틴의 고백록**, 216-217.

205) 김균진, 374.

206) 김균진.

207) 창세기의 처음 세 절의 해석은 줄곧 독립된 문장으로 번역되고 해석되어 왔지만,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전제로 할 경우 어둠은 태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첫 창조 당시 창조된 것이 틀림없다. 즉 빛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어둠이 창조되었음을 보여준다. 흑암도 본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사 45:7). 김두석, “창세기 1장 1절과 2, 3절과의 관계 연구,” **칼빈논단** (2002): 133-156.

208) 김광식, **조직신학**, 제 1권 (서울: 성도인쇄문화사, 1988), 297.

요, 문제요, 원수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부정적 목표이다.

이러한 로흐만의 견해 역시, 존재하는 어떤 실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남긴다. 하나님도 아니요 피조물도 아니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제 3의 존재란 무엇인가?

틸리히에 있어서도 악이란 비존재(nicht-sein)이다. 비존재는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론적 구조를 형성한다. 모든 존재는 비존재 곧 무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이들은 유한한 존재로서 실존한다. 그러므로 실존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힘에 참여하는 동시에 비존재와 혼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존하는 모든 존재들은 비존재 곧 악의 위협 속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참여하며, 모든 것의 운명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악한 것도 하나님께 참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이 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을 강조하는 개혁신학회의 신학과 맞지 않는다. 틸리히는 이에 대해 “피조물의 삶의 부정성에 대한 신적인 삶의 참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신정의 문제에 대한 마지막 답변이다”라고 하였다.²⁰⁹⁾

디트리히 본 회퍼는, 성서에서는 유혹의 원인을 “귀신” “인간의 욕망” “하나님 자신”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유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밝히기 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지나가게 되었으며, 거기서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을 당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굴복함으로써만 악마에게 항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¹⁰⁾ 이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신정론을 이해한 몰트만의 견해와 유사하다.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나학진은 기독교적 신정론을 이렇게 말한다.

요컨대, 악의 심각성과 그 실재는 긍정하되(따라서 일원론이 아님),

209)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26.

210) Dietrich Bonhoeffer, **창조, 타락, 유혹**, 문희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7), 175.

반대로 하느님의 뜻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립되는 악의 힘을 시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이원론이 아님), 절대 악을 부인하는 설명이라고 본다. 이렇게 일원론과 이원론을 동시에 파악하는 입장이므로, 잠정적인 이원론과 궁극적 일원론의 공존으로 설명함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잠정적으로 악의 힘이 하느님을 거스르지만(잠정적 이원론), 그 모든 악을 하느님이 이용하여 결국은 극복한다는 뜻에서 하느님의 선함으로의 일원론이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 것이다.²¹¹⁾

성경은 유혹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어떻게 악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세계 속에 있는 악을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와 뜻이 무엇인가가 진정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神正의 문제는 인간이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이다. 차라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어찌하여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세상 다스리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귀와 상대를 이루는 천사론(선한 천사)은 필요불가결하게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천사론을 직접 다루고 있지 않는 김균진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다음에 악과 신정(神正)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황승룡도 창조론과 섭리론 다음에 신정론(神正論)을 취급하고 있고, 바르트는 천사론을 다루는 중간에 하늘왕국(The Kingdom of Heaven) 항목을 두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천사론을 다루는 위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모든 신학자들이 신론(神論)의 끝부분에서 천사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그 배치함에 있어서 신학자들 사이에 방식의 통일성은 없다. 칼빈은 창조론과 섭

211) 나학진, 625.

리론 사이에서, 튜레틴은 창조론과 섭리론 다음에, 찰스 하지도 창조론과 섭리론 다음에, 바르트는 섭리론과 창조론을 넘어 하늘왕국에서 천사론을 다루고 있다. 신학자들은 통상적으로 천사의 논의를 창조와 섭리의 논의들 사이에 두거나(A. A. Hodge, R. L. Dabney, H. B. Smith) 창조와 섭리의 논의들을 지나서(A. H. Strong) 이것을 개진(開陳)한다. 이중성도 창조론과 섭리론 사이에, 박형룡도 창조론은 지나서 섭리의 논의 직전에 “영적세계”라는 제목 아래 천사론을 전개하고 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벌콕(Berkhof)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 논의를 “영적세계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물질세계의 창조보다 앞세우고 섭리의 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공통된 관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 문제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천사론은 필요불가결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귀론이 신학적인 우선 관심사였으며, 마귀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천사론이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계몽주의 시대에 마귀론이 사라지면서 천사론이 사라진 것과, 근래에 와서 마귀론이나 귀신론이 다시 등장하면서 천사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4.1.2 천사의 존재와 창조

기독교 사상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예를 들면 둔스 스코투스, 윌리엄 오캄), 하나님의 존재는 경험세계를 철저히 되돌아봄으로써, 즉 세계가 존재하는 근거에 비추어 봄으로써 그것이 참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는 이 경험세계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존재함을 필연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천사는 본래 유한한 존재이며, 이 경험세계의 존재의 근거가 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제 1의 원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천사가 존재 한다’는 명제는 그것 자체로서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단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천사가 존재 한다’는 명

제가 참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성이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선 권위, 즉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 두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천사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니케아 신조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를 믿는다”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만드신 자를 믿나이다”에서, “하늘”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는 천사의 세계도 포함된다는 것에 비추어 보어서도 분명하다. 그 후 계속되는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인 벨직 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 1561),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서(156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8)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혁신학자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천사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시도하지 않지만, 시종일관 그것을 가정하며 또한 그 역사서들에서 자주 우리들에게 천사의 활동에 대해 보여준다. 벌콕(L. Berkhof)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는 아무도 천사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고 하였다.²¹²⁾

그러나, 천사의 창조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르다. 우주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는 천사들이 창조되었는지, 또는 언제 창조되었는지, 명백한 말씀이 없다. 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명백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 것도 만드시지 않았다는 뜻을 알린다. 따라서 천사들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칼빈과 튜레틴, 찰스 하지, 바르트 등 모든 개혁교회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리고 시편 148편 2절과 5절, 골로세서 1장 16절을 천사들의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²¹³⁾

그러나, 천사들의 창조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귀론과 연결하여 천사들은 물질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었고, 영적존재들이 창조된 후에 물질세계가 창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소위 재창조설(Restitutionalism)의 껍 이

212) L. Berkhof, 143.

213) L. Berkhof, 144.

론(gap theory)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영계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고, 그 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이 있었으며, 물질세계는 그 후 상당기간 후에 다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²¹⁴⁾

그러나, 칼빈은 “천사들의 창조된 시간과 순서에 대해 논쟁을 일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²¹⁵⁾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의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견해이다. 즉, 성경이 아무 말이 없으므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다른 대부분의 개혁신학자들 역시 칼빈과 같이 천사의 창조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다만 튜레틴은 천사들의 창조시기에 대해서 “천사들은 모세의 시작 전에 창조 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그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세상의 시작 때 창조되었다”고 하였다.²¹⁶⁾ 그 이유로는 첫째, 모세의 시작은 시간과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며 그 이전에는 영원한 심연 외에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천사들도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 시작 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 천지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한 분 뿐이며, 셋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옛새 동안에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들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²¹⁷⁾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의 오랜 견해는 천사들의 창조는 첫째 날 사역의 일부였다는 것이었다. 천사들은 하늘들의 주민 혹은 만군이었으니(시 103:21;

214) 김호식, 141.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해석문제는 역사적으로 항상 논란이 있어 왔다. 이 이론은 펨퍼(G. H. Pemper), 클라렌스 라르킨(Clarence Larkin), 네비우스(J. S. Nevius), 테리 로(Terry Law) 등이 주장하며, 한국에서는 김호식 등 침례교 계통의 학자들이 동조하고 있다.

215) John Calvin, I. x iv, 4.

216) Francis Turretin, vol. I, 540.

217) 김두석은 창세기 1장의 처음 세 절의 해석을 위해서는 창세기 1장 전체를 하나님의 6일 창조의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새로운 견해(점진적 창조론, The Theory of Progressive Creation)을 제시한다. 김두석, 149-152.

148:2) 하늘들이 창조될 때에 그들도 창조되었다는 것이다(창 1:1; 2:1, 출 20: 11 참조). 이는 아마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어거스틴은, “옛세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낮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 빛이었다”고 하였다. “즉, 천사들은 그들을 창조한 빛에서 빛을 받아 빛이 되었고, “낮”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였다.²¹⁸⁾

벌콕(Berkhof) 교수는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유일한 안전한 진술은 천사들이 제 7일 이전에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적어도 창세기 2장 2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욥기 38장 7절, 느헤미야 9장 6절과 같은 구절들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고 하였다.²¹⁹⁾

따라서 천사들의 창조를 하늘들의 창조와 동시에 있는 그것들의 만군의 창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좀 더 세분하여 천사들은 하늘이 창조된 직후, 땅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은 이미 존재하였다(욥 38:7 참조).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 1 : 16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이 창조 속에는 천사도 포함된다. 그리고, 각각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로부터 나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들처럼 생육(生育)하지 않기 때문이다(마 22:28-30).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창조되어 생긴 존재들이므로, 영적 존재들은 “무리”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종족”이라고는 부를 수는 없다.

218) Augutinus, **하나님의 도성**, 546.

219) L. Berkhof, **벌콕 조직신학**, 고영민 역, vol. II (서울: 기독교문사, 1983), 283.

4.2 천사의 사역과 품성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칼빈과 바르트는 하나님께 대한 사명과 인간에게 대한 봉사 두 가지로 나누었고, 튜레틴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 사이에서, 세상에 대하여, 인간들에 대하여 등 네 가지로 나누었으며, 찰스 하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후사들을 돕는 일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4.2.1 하나님과 관련한 사역

천사(天使)는 문자 그대로 하늘의 심부름꾼이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에 대한 명칭들은 ‘하늘의 영’(욥 1:6), ‘하늘의 천사’(욥 38:7), ‘중’ 또는 ‘심복’(욥 4:18), ‘사자’(호 5:14), ‘하늘의 군대’(왕상 22:19), ‘거룩한 감독원’(단 4:10)등이다. 천사라는 영어 단어 angel은 헬라어 ἄγγελος에서 자역(字譯)된 것이며, 히브리어의 천사의 이름 מַלְאַךְ가 많은 경우에 이 ἄγγελος로 번역되었다. 이런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천사의 이름의 뜻은 둘 다 “소식을 전하는 자”(messenger)이다.²²⁰⁾ 즉,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좌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할만한 사자라는 뜻이다(겔 10:1-23).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천사들은 영원히 그 분을 칭송하며 숭배한다. 이것은 스랍들의(사 6:3) 삼중적으로 반복되는 “거룩”(계 4:8; 7:11,12)과 그리스도의 탄생 때 합창으로(눅 2:13,14), 찬송과 시편 97편 7절; 103편 20절; 148편 2절의 의무로 초대받는다. 사실, 천사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며,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도 가장 명확한 천사들의 일”이다(시 29:1-27, 148:1-2).²²¹⁾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20) 천사라는 단어가 성서에서는 넓은 의미로는 사자, 좁은 의미로는 천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사제나 예언자도 사자(angelos)로 불려졌기 때문에, 신학적 의미에서 사자에 관계된 부분이 실제로 천사를 의미하는지 혹은 사자만을 의미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고 충만한, 거룩한 복종이 그들에게 또한 부여되었다(시 103:20). 그래서 그들은 시중드는 자들로서 혹은 섬기는 자들로서 “그 앞에 모셔 섰으며(욥 1:6, 2:1),” 그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뵈옵고(마 18:10),”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단 7:10)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천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숭배와 섬김을 행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언했으며(눅 1:26-38), 탄생을 선포하였고(눅 2:9-15), 위험을 경고하여 피난케 하였으며(마 2:13), 필요할 때 도왔으며(마 4:11), 겻세마네의 기도 시에도 함께 하였고(눅 22:43), 무덤의 돌을 옮겼고(마 28:2), 부활을 선포하였으며(마 28:5-8), 승천(행 1:10,11), 그리고 마지막 날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를 모실 것이다(살후 1:7).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봉사자들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봉사이다. 찰스 하지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그들이 지금도 그리고 항상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데 종사한다는 것만큼 강하게 계시된 것은 없다”고 하였다.²²²⁾

4.2.2 인간들과 관련한 사역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천사들은 무엇보다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일꾼들이다(히 1:14). 그들은 한 죄인의 회심을 기뻐하며(눅 15:10), 믿는 자들을 지키며(시 34:7, 91:11), 소자들을 보호하며(마 18:10), 교회에 임재하며(고전 11:10; 딤후 5:21), 전도를 도우며(행 8:26), 하나님의 은혜의 각종 부요함을 교회에서 배우며(엡 3:10; 벧전 1:12), 또한 믿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인도한다(눅 16:22).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으며, 때로는 전쟁에서 싸우기도 했고, 승리하기도 했다.

221) James Montgomery Boice, *Foundation of the Christian Faith*, revised by Downers Grove, III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6), 169.

222) Charles Hodge, vol. I, 640.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예고하고(창 19:1-8; 계 19:17-18),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며(창 19:11; 행 12:23; 계 16:1), 악인들을 모아서 심판하기도 한다(마 13:36-43).

칼빈은 “천사들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요 관리자”라고 한다.²²³⁾ 천사는 “부리는 영”(히 1:14)이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의 남은 일들을 수행하신다.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수행한다(왕하 19:35; 사 37:36).

튜레틴은 인간에 대한 사역을 사악한 자들과 선택된 신자들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였는데,²²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로써,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벌을 실행하는 것으로 소돔 사람들에게(창 19:11), 애굽 사람들에게(출 12:29), 산헤립의 군사들에게(왕하 19:35), 느부갓네살(단 4:13), 헤롯(행 12:23)과 타락자들을 마지막 날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마 13:41, 42)이라 하였다.

그리고, 선택된 자들과 신자들에게는 징벌을 가하든지 혹은 그들의 구원을 증진하기 위한(히 1:14)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데: 첫째, 가르침으로; 둘째, 위로함으로; 셋째, 그들을 보호함으로 실행된다.”²²⁵⁾ 여기에는 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섬김도 포함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에 데리고 가는 것과(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가는 것처럼, 눅 16:22),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세상 끝에 신자들을 모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찰스 하지는 천사들이 “자연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뿐 아니라 인간들의 정신 속에도 (minds of man)작용한다”고 하였다.²²⁶⁾ 천사들은 우리

223) John Calvin, I. x iv, 6.

224) Francis Turretin, vol. I, 558-559.

225) Francis Turretin, vol. I, 559.

의 정신에 역사하고, 우리 본성의 법칙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정신들이 선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영의 고유한 특권인 그 직접적 작용에 의해 활동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진실의 제시와 사고 및 감정의 인도를 통해 활동한다.

성경에서 볼 때 천사들은 일반적인 인도와 보호를 할 뿐 아니라 내적 힘과 위로를 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촉진시키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원수로부터 지키는데 있어서 천사들이 광범하게 작용하는 것은 확실하다.

바르트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깨우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시고, 순종케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곳, 이 모든 곳에는 그의 천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로 일하지 않는가?”라고 묻는다.²²⁷⁾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에나 천사는 존재하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고 자비를 계시하시는 곳에서는 천사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동반하고, 섬김을 받는다.

천사의 사역에 있어서 칼빈과 바르트를 비교를 한다면, 칼빈은 하나님의 봉사자 개념에 더욱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으며, 바르트는 기능적인 면에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들 없이는 일 하실 수 없는가?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천사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 하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안전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다.²²⁸⁾

226) Charles Hodge, vol. I, 642.

227) K. Barth, III/iii, 478.

228) John Calvin, I. x iv, 11.

튜레틴 역시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시며, 그의 말씀 하나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천사들의 선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시는 일에 동역자로 두기 원하셨으며, 신자들의 위로와 구원의 증진을 위해서, 천사들과 인간의 사이의 우정의 증진을 위해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더욱 공고한 유대관계를 통해 세상의 조화를 견고케 하기 위해, 그의 모든 작업의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 자신을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였다.²²⁹⁾

바르트도,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중재하시며, 그래서 지상적 혹은 천상적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천사들 없이도 지상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²³⁰⁾

이를 종합하면, 하나님은 천사들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나타낼 수도 있다. 다만,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실 뿐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스스로 독립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모든 성경적 구절들은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에 대해서 천사라는 단어를 홀로 그들의 본질과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속격 혹은 소유격으로 묘사하고 있다.²³¹⁾ 그들은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 존재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성격, 정신, 의지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다.

4.2.3 성령과 천사의 사역

그러면 성령의 하시는 일과 천사들의 일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사도행전 8장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빌립이 길을 떠나 가다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났을 때, 이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신다.

229) Francis Turretin, vol. I, 556,

230) K. Barth, III/iii, 494-495.

231) K. Barth, III/iii, 479.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를 내린다(10:3). 그 후에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신다(10:19). 이로 보건대, 천사들은 성령의 직접 지시 아래 있으며, 성령과 천사는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카슨(C. F. Dickson)은,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내적이며 영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반면, 천사는 외적이며 육체적인 면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천사는 사람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들을 인(印 즉)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역 하신다(요 14:16-17; 히 1: 13-14)”고 하였다.²³²⁾

이러한 견해는 이미 튜레틴과 찰스 하지에 의해서도 피력된 바 있다. 튜레틴은, 천사와 마귀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성적 영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²³³⁾ 찰스 하지 역시 천사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인 영(soul)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mind)에 작용하고, 사고와 감정을 통하여 활동한다고 하였다.²³⁴⁾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의 몸과 길을 지켜주나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는 자들이나 성령은 우리 기도의 격려 자와 지시자이시다(롬 8: 26-27; 유 20).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인간보다는 강력하지만 신이 아니며,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천사가 아닌 성령만이 인간에게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요 16:7). 아버지와 아들의 보냄을 받은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천사는 그러한 성화의 능력을 줄 수 없다. “천사의 도움을 받은 자

232) C. F. Dickson, 천사, 사탄과 귀신론, 김달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136.

233) Francis Turretin, vol. I, 548.

234) Charles Hodge, vol. I, 641.

가 능력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권세자이다(눅 24:43).”²³⁵⁾

그러면 이런 천사들은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는가? 이에 대해 튜레틴은 이렇게 대답한다. 율법이 없거나 아니면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천사들의 출현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려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복음의 빛이 떠오른 이후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신 이후에는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진 이후에는, 그리고 성경의 정경이 닫히고 봉인된 후에는, 교회가 그러한 도움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는 일이 덜 필요해졌다. 그래서, “비록 복음의 시초에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섬기고 그의 교훈에 대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 천사들이 출현했으나 나중에는 견고한 교회에 맡겨 두었다. 비록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세상에 그들의 보이지 않는 사역을 사용하시지만, 더 이상(혹은 매우 드물게)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였다.²³⁶⁾

그런데, 벌콕은 이러한 천사들의 활동이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기간이 끝났을 때 천사들의 특별봉사는 주님의 재림시에만 다시 계속하기 위하여 잠시 중지 되었다”고 하였다.²³⁷⁾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그 어디나 천사들도 있다는 바르트의 견해에 따른다면 정당한 주장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세상 통치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천사의 봉사가 중단되거나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확실히 천사들의 활동은 구원의 경륜의 대전환점들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족장시대나 율법 수여 시대, 추방과 회복의 기간, 주의 탄생과 부활, 승천시에 그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사들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신을 위해서 천사가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노벨 헤이즈의 말을 명심할 것이

235) 최근환, **천사는 이렇게 활동한다** (서울: 홍익제, 1994), 51.

236) Francis Turretin, vol. I, 551.

237)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148.

다.²³⁸⁾

4.2.4 천사의 능력과 한계

천사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부여받은 인격적 실유들이다. 그리고 자의식을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품성적 존재이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역시 명백하게 교훈되고 있다(삼하 14:20; 마 24:36; 엡 3:10; 뱀전 1:12, 뱀후 2:11). 그들은 전지(全知)하지는 않지만 미래사를 알고 있으며, 분명히 지식적으로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마 24:36). 그리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으며(눅 15:10), 그리스도를 찬양하거나 예배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다(계 5:11-12; 히 1:6). 또한 천사들은 의지가 있어 필요할 때에는 자연을 지배하여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계 7:1), 불을 다스리거나(계 14:18), 물을 다스리는 등(계 16:5)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의지가 있어, 간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한다(창 19: 1-11).

그러나, 그들은 능력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omnipotent)하시다. 하나님은 무제한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그의 뜻을 행하신다. 그러나 천사는 인간보다 능력이 많고(뱀후 2:11) 하나님 아래서 어떤 자연 요소를 다스리고 있으나(계 7:1, 16:8-9) 권위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욥 1:12, 2:6). 지혜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며 또 그렇게 타고났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마 24:36). 더욱이 그들은 도덕적인 의무 아래 놓여 있다. 그들은 순종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는다. 성경은 충성을 다하는 천사들을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마 25:31; 막 8:38; 눅 9:26; 행 10:22, 계 14:10), 또한 타락한 천사들을 거짓 천사들 또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요 8:44; 요일 8:8-10).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즉 능력 있는 영웅들의 무리를 구성하고

238) Norvel Hayes, *Putting Your Angels to Work* (Tulsa, Okla.: Harrison House, 1989), 23.

있으며 언제나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시 103:20; 골 1:16; 엡 1:21; 히 1:14). 또한 악한 천사들은 사탄의 군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님의 일을 파괴하는데 고심하고 있다(눅 11:21; 살후 2:9; 벘전 5:8).

그러나,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테리 로(Terry Law)는 이것을 9가지로 정리하고 있다.²³⁹⁾ 1.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며, 오로지 ‘창조주’라고만 부를 수 있다. 2. 그들은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복음을 전할 수 없다. 3. 천사들은 구원 받거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갈 수 없다. 4.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천사들은 사람의 속에 내재할 수 없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내부에 내재할 수 있다. 5.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통해서 행동하지 못한다. 6. 천사들은 사람을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 7. 천사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의인은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전 6:3). 8. 천사들은 동시에 어디에나 나타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시다. 9. 하나님의 천사들은 명령을 내리거나 경배를 받지 않는다.

4.3 천사의 명칭과 계급과 수

4.3.1 천사의 명칭과 계급

천사들은 “천사”라고 부르는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자주 불렸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천사들은 그냥 사람(세 사람)이라고 불렸다(창 18:2). 사도행전에는 천사들을 말할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행 1:10)이라고 했으며,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직후 무덤에서 만났던 천사도 흰 옷을 입었다고 했고(요 20:12), 이 천사에 대해서 마가는 “흰 옷을 입은 청년”(막 16:5)이라고 표현했다.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눅 24:4)이라고 했으며, 사도행전에서도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행 1:30)이 고넬료 앞에 나타났다.²⁴⁰⁾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욥 1:6, 38:7), 순찰자,

239) Terry Law, 175-177.

거룩한 자(단 4:13-17), 거룩한 자의 회중(시 89:5-7), 바사국 군 또는 군장(단 10:13), 군대(열두 영, 마 26:52-53), 부리는 영(히 1:14)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러한 천사들의 이름은 그들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 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조직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준들의 칭호가 헬라 용어로 묘사되고 있다. 즉, 보좌(Thrones), 정사(Principalities), 주관자(Dominions), 권세(Powers), 천사(Angels), 세상 통치자, 악한 영(롬 8:38; 고전 15:24; 엡 1:21, 3:10, 6:12; 골 1:16, 2:10, 15) 등이다.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는 천사의 조직을 천사들과 천사장으로 구분하며,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등의 용어들은 천사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어떤 식으로든 탁월성의 정도 차이를 뜻하거나 임무와 직책의 차이를 뜻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적어도 천사들의 능력이 서로 다르며, 어떤 천사들에게는 다른 천사들이 갖지 못한 권위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천사 사회의 위계질서를 맨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은 6세기 초에 씌어진 위 디오니시우스(Pseudo Dionysius)의 *천상위계론(The Celestial Hierarchy)*이며, 7세기의 대 그리고리오가 약간의 수정을 가해 이 설명을 계승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단테(Dante Alighieri, 1265-1321)의 저작을 통하여 후세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서양 중세의 천사론은 이 *천상위계론*의 결정적인 영향력 아래서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이외의 천사의 명칭이나 계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칼빈은 천사들의 명칭이 “그들의 봉사와 임무를 통하여 그들에게 적용되었다”²⁴¹⁾고 하면서, 그들이 “천군”이라고 불리는 것은(눅 2:13) 근위병처럼 왕을 옹위하여 왕의 위엄을 장식하며 이를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이며, 주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권능과 능력을 놀랍도록 발휘하시며

240) 이렇게 천사나 하나님의 사역자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의 보편적인 표현 방법이었다. Rawson Lumby, *The Act of the Apostle*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16), 5-6.

241) John Calvin, I. x iv, 5.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저들은 권세라고 불리고(엡 1:21; 고전 15:24), 또 하나님은 세계에서 저들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저들은 때로는 정사(政事), 때로는 권세, 때로는 주관하는 자로 불리며(골 1:16; 엡 1:21; 고전 15:24),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들은 또한 보좌라고 불리기도 한다(골 1:16)고 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천사들의 존귀의 정도와 각 천사들의 칭호를 구별 지으며 위치와 지위를 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⁴²).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두 이름, 곧 미가엘(단 10:21)과 가브리엘(단 8:16; 눅 1:19, 26) 그리고 토비트의 역사에서 이에 하나를 더 가한다면 제 3의 칭호(라파엘)가 있는데(눅 12:15), 이 명칭들은 그것들을 갖고 있는 의미로 보아 우리의 능력의 약함 때문에 천사들에게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이름들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성경에 나타난 이상의 천사들의 이름을 짓거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성경에 나타난 이외의 천사들의 명칭이나 계급이나 수에 대해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공허한 사색을 일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튜레틴은 “천국에는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천사들 사이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어떤 종류의 순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²⁴³)

그러면서 튜레틴은 Pseudo Dionysius의 견해를 따른 천사들의 명칭과 분류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모든 천사들을 *treis*, *triadikas*, *diakosmesis*(최상급, 중급, 하급) 세 계급 혹은 계층으로 나누고, 이 세 계급은 다시 각자 세 계급을 품게 되는데, 그래서 모두 9계급이 있고 각 단일 영역권 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다. 가장 높은 계급은 그룹(*cherubim*), 스랍(*seraphim*), 보좌(*thrones*)가 있고; 둘째 계급에는 정사(*dominions*), 주관자(*principalities*), 권세(*powers*); 세 번째 가장 낮은 계급에는 능력(*virtues*), 천

242) John Calvin, I. x iv, 8.

243) Francis Turretin, vol. I, 551.

사장(archangels), 천사(angels)가 있다. 이러한 명명은 그들의 속성의 탁월성과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유대인들 역시 천사들을 여러 가지 계급으로 나누고 10개의 서열을 구성하였는데, 상호간에 지혜, 위엄, 권력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라 소개하였다. 그러나, 튜레틴은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꾸며낸 이야기이며,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는,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⁴⁴⁾

찰스 하지는, 천사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보면 “이 거룩한 천사들은 모두 똑같은 등급에 속해 있는 존재들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였다.²⁴⁵⁾ 그 용어들은 그들의 질서와 권위가 다양한 등급에 따라 존재하다는 것을 함축하는데, 어떤 천사들은 정사들이고, 또 어떤 천사들은 권세들이고, 다른 천사들은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러나, “성경이 그 외에는 아무 것도 계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천사들의 계급제도에 관한 스콜라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사변은 권위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²⁴⁶⁾

바르트 또한 “천사에 대한 성서적 교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상호간의 관계나, 내부적인 순서나, 천사의 계급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다만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⁴⁷⁾

확실히 천사들의 세계의 명칭과 계급은 흥미 있는 주제이다. 그들 세계에 구분되고 차이 나는 계급들이 있음은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완전한 비교와 조직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름의 순서가 계급을 나타내는 서열대로 되었다면, 그들의 계급의 서열은 보좌, 주관자, 권세, 능력, 세상, 통치자, 악한 영, 그리고 천사들의 순서다. 맨 끝의 둘은 같은 자들인데, 악한 영은 악한 천사들로도 묘사된다. 계급 가운데 주관자의 서열은 에베소서 1

244) Francis Turretin, vol. I, 552.

245) Charles Hodge, vol. I, 639.

246) Charles Hodge.

247) K. Barth, III/iii, 512.

장 21절에서 맨 뒤에 나오고 있으며, 골로세서 1장 16절에서는 보좌 다음 두 번째로 나오고 있어, 그 위치는 다른 것 보다 더욱 모호하다.

4.3.2 천사의 수와 모양

4.3.2.1 천사들의 수

천사의 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숫자는 적어도 인간의 수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천사의 숫자는 ‘잃었던 양 한 마리’의 비유(눅 15:4-7)에 따라 1(인간) : 99(천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²⁴⁸⁾ 그러나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분명한 숫자가 없으며 매우 많음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마 26:53)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다니엘로부터는 그 천사의 수가 “천천이며... 만만이며”(단 7:10)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엘리사의 사환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함”(왕하 6:17)을 보았으며,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시 34:7),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라”(시 68:17)고 기록된 것은 그 수의 막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대한 숫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지혜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수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천사들은 결혼을 하거나 생육하거나 죽지 않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수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친히 창조하신 숫자라고 볼 수 있다(마 22:28-30).

칼빈은 많은 천사들이 각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임명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들의 수와 계급에 대해서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그 완전한 계시를 알게 될 신비에 속하는 것으로 해 두자”고 하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한다든지,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다”고 하였다.²⁴⁹⁾

바르트는 “천사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한 천사를 말할 때나 무한히 많은 천사들을 말할 때나 동일하다. 왜냐하면 한 천사는 모든 천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같으며, 모든 천사들도 한

248) Ferdinand Holbock, 20.

249) John Calvin, I. x iv, 8.

천사가 말하고 행한 것을 확정하는 일에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⁵⁰⁾ 즉, 천사들은 그 하는 일들이 동일하므로 그 숫자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4.3.2.2 천사들의 모양

그러면 천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천사들의 모양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시절부터 그들이 정교한 영기체(靈氣體, ethereal bodies)들을 소유하였다는 견해가 있었다.²⁵¹⁾ 유대인들과 초대교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영기(靈氣) 또는 열화(熱火)같은 신체들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였다. 중세시대에도 여전히 천사들은 영기체(靈氣體)를 가졌다고 추측하려는 경향을 지녔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순전히 영적이고 무신체적(無身體的)인 성질의 개념은 형이상학적으로 사유할 수 없으며 또한 피조물의 개념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천사들이 공간적 제한들에 예속되어 있으며, 각처로 돌아다니며 종종 사람들에게 의해 발견된다는 사실에 호소하였다. 그래서 Nice 회의(A.D. 784)에서 천사들은 영기(ether)의 몸 또는 빛의 몸을 갖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지배적인 의견은 그들이 신체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들은 천사들이 ‘프뉴마타(영)’를 가지고 있다는 요지의 명백한 성경 구절의 진술에 의해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다(마 8:16, 12:45; 눅 7:21, 8:2, 11:26; 행 19:12; 엡 6:12; 히 1:14). Lateran 회의(A.D. 1215)에서는 천사는 신체 없는 실유(incorporeal)라고 결정했다.²⁵²⁾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없으며, 썩지 않으며, 죽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 시대에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편 꼭데기에 설 수 있는지 측정해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아들러(Mortimer J. Adler)는 이것이 후대에 와서 작가들이 중세기에 천사들에게 심취해 있었던 것을 신랄하게 풍자한 말이라고 하였다.²⁵³⁾

250) K. Barth, III/iii, 512.

251)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141.

252) Charles Hodge, vol. I, 637-638.

그리고 중세 교회 이후 시대에 와서도 천사는 영적 존재이며 어떤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 심지어 루터 교회와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천사는 거의 미묘하고 순수한 어떤 형체적 존재(Corporeity)라고 묘사하고 있다.²⁵⁴⁾ 천사들의 신체를 지녔다는 개념에 여전히 집착되어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공간적 제한들에 예속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천사들의 출현은 이러한 경우에 계시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체의 형상을 취하였다고 추측함으로써 설명되었다.

종교개혁시대 개신교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들을 순전히 영적 실체들로 간주하였지만, 잔키우스(Zanchius)와 그로티우스(Grotius)는 여전히 천사들이 영기체들을 지닌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몇몇 개신교 신학자들, 예를 들면 에몬즈(Emmons), 에브라르드(Ebrard), 쿠르츠(Kurtz), 델리치(Delitzsch) 등은 여전히 그들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신체를 가진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스웨덴보르크(Swedenborg)는 모든 천사들이 본래 사람들(men)이었으며 육체의 형태로 존재하였다고 하였다.²⁵⁵⁾

그런데, 칼빈은 “영들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다.²⁵⁶⁾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의 정도를 맞추어 그룹이나 스랍이라는 이름으로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색적인 튜레틴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천사들이 영적이며 비형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비록 바람과 화염으로 비유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물질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불리는 것은 유비적으로 매우 빠른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²⁵⁷⁾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기능과 작용들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은 물질적 본성에서 나올 수 없고, 또 그들이 물질적이라면 양이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 공간을 침투하지

253) Mortimer J. Adler, *Angels and Us* (New York: Collier Books, 1993), 19.

254)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144.

255) L. Berkhof, 143.

256) John Calvin, I. x iv, 8.

257) Francis Turretin, vol. I, 541-542.

못할 것이며, 동일한 장소에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이 이미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신체를 지닐 수 없으며 지녀서도 안 된다고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 천사들의 환영(apparitions)은 무엇인가? 그들은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자들이나 요한처럼 단순한 무아지경에 나타나기도 하며, 족장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감각적 비전 속에 생생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첫 번째 경우에는 신체를 지닐 필요가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사람에게 감각적으로 나타남으로 신체를 지녀야 한다.

이에 대해 튜레틴은 “그들이 지닌 신체는 공허한 환영이나 유령이 아니며, 또한 실질적으로 육체가 그들에게 연합한 것도 아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들은 잠시 동안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도록 신체를 지녔을 뿐”이라고 하였다.²⁵⁸⁾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며 어디서 그런 것을 지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호기심이 가는 질문이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그것을 찾는 위험보다는 무지한 채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하였다. 즉, 그들은 이러한 신체를 옷과 같이 입거나 혹은 그들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덧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이라 불리는 것은 그들이 나타난 외부적 모습 때문이지 실체 때문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과 더 친숙한 교제를 함으로 그들에게 할당된 일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으며(눅 24:39), 결혼하지 않으며(마 22:30),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도 많은 수효가 임재 할 수 있으며(눅 8:30), 유형적이다(골 1:16). 그들은 분명히 인간들처럼 육체적이며 물체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다.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소유하신 편재성(omnipresence)을 부여 받지 못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본성이 영적 존재이나 모든 장소에 있을 수 없고 동시에 많은 장소에도 있을 수 없다. 천사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는 공간적으로 움직여야 하며(단 9:21-23), 따라서 이것은 곧 시간의 경과와 필요에 따라서는 늦어질 수 있

258) Francis Turretin, vol. I, 549-550.

음을 내포한다(단 10:10-14). 다만 그들은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사람 보다는 더 자유롭게 시공(時空)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벌콕의 말처럼, 우리는 그들을 어디나 채우며(ubi repletivum), 어디나 공간을 점령하는 자(ubi circumscriptivum)로 생각할 수 없으며, 다만 어디나 제한되어(ubi definitivum) 있는 자로 생각할 수 있다.²⁵⁹⁾

그리고, 아마도 인간의 언어적 제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천사는 남성(masculine)으로 표시되고 있으며(헬라어에서 어미가 ος로 끝나는 것은 항상 남성 어미이며, 천사들을 άγγελός라고 “ος”를 붙은 것은 남성임을 증거한다), 남성 대명사 ‘그’가 사용되고 있다.(막 16:5-6, 눅 24:4). 그리고 그들이 나타날 때도 성경에서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나 아기천사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동물이나 새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나귀로 나타났던 적이 단 한 번 있다)(창 18:2, 22, 19:1; 단 10:18; 민 22:28).

또한 천사들은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스랍(Seraphim)들과 그룹(Cherubim)들은 날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angels)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 존재들’(spiritual beings)이다.

4.3.2.3 수호천사

어떤 천사가 개별적으로 믿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도록 임명을 받은 수호자로 봉사하는가? 어느 통계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46%가 자신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²⁶⁰⁾. 그리고, 오리젠, 제롬, 크리소스톰, 바실,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암브로스를 포함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수호천사의 개념을 받아 들였다. 이 수호천사의 개념은 개인 뿐 아니라 민족과 교회와 다른 단체들에게도 확장되어갔다.

일반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는 각 사람에게 봉사하는 수호천사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각 도시와 나라와 백성에게도 고유한 천사가 있다고 주장한다.²⁶¹⁾ 침례교회의 빌리 그래함 목사도 수호천사를 인정하고 있다. 그

259)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144.

260) Nancy Gibbs, “Angels Among Us,” *Time*, 27 Dec. 1993, 56.

러면서 그는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수호천사의 임무는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²⁶²⁾ 기독교회 뿐 아니라 고대 이슬람 학자들은 각 사람마다 두 명의 천사들이 배정되어 있어서, 한 천사는 선한 일들을 기록하고, 또 다른 천사는 나쁜 일들을 기록한다고 주장했다.²⁶³⁾

그러나, 그러한 ‘수호천사는 없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공통된 견해이다. 칼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개개의 천사가 그들 각자에게 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감히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⁶⁴⁾ 수호천사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들인 마태복음 18장 10절의 어린이 천사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탁받은 어떤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저들 각 사람에게 자기를 보호할 특수한 천사가 있다고 단정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으며,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베드로의 천사에 대해서도 “천사들 중 어느 한 천사가 베드로를 돌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영원한 수호자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천군 천사가 자신의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 한다면, 한 천사가 자신의 특별한 수호자로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²⁶⁵⁾

그러나, 칼빈은 다니엘서 10장 13절, 20절, 12장 1절을 예로 들면서, “특수한 천사들이 왕국과 지방의 수호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고 함으로써, 민족천사를 인정하고 있다.²⁶⁶⁾

튜레틴 역시 신자 각 개인에게 어떤 특정한 천사가 그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영원한 친구와 수호자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배당되는 것

261) 정하권, “천사는 누구인가,” *경향잡지*, 9 (1998): 34.

262) Billy Graham, *천사 이야기*, 이재철 역 (서울: 흥성사, 1996), 120.

263) Billy Graham, *천사 이야기*, 42.

264) John Calvin, I. x iv, 7.

265) John Calvin.

266) John Calvin.

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견해”이며 “이런 견해는 이교도에 기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²⁶⁷⁾ 비록 천사들이 신자들의 후견과 보호를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리고 어떤 천사들은 때때로 신자들을 위해서 보내지고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각 신자를 위한 후견 혹은 수호천사가 배정돼 있다는 것은 부인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성경의 어디에서도 수호천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둘째로, 한 천사는 자주 많은 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한 사람을 위해 종종 보내진다(사 37: 36; 시 34:7; 시 91:11; 왕하 6:17; 창 32:1, 2)는 것이다.

찰스 하지도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내용은 아이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 즉 천사들이 그들의 행복을 보호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각 소아 또는 신자에게 자신의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사도행전 12장 7절의 베드로의 천사도 그것이 베드로의 수호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만일 그 하녀가 그것이 베드로의 유령이라고 했다면 그 사실이 천사에 대한 민중의 미신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라고 하였다.²⁶⁸⁾

바르트 역시 다니엘서 10장 13절의 구절을 통해 민족천사에 대해, 욥기 33장 22절; 사도행전 12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예로 들면서, 수호천사가 책임지고 있는 각자의 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한 천사가 특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하였다.²⁶⁹⁾

수호천사는 확실히 흥미 있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공통된 개혁신학자들의 말처럼 성경 어디에도 수호천사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곳이 없으며, 한 천사는 자주 많은 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한 사람을 위해 종종 보내진다는 점에서, 각 개인을 위한 수호천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67) Francis Turretin, vol. I, 558-559.

268) Charles Hodge, vol. I, 640.

269) K. Barth, III/iii, 518.

4.4 천사숭배

천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천사들의 위치는 그의 사자요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다. 동시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히 1:14) 자들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개혁교회의 견해는 천사숭배를 공식화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와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홀빅 신부는 “천사를 공경하고 천사에게 탄원하는 것은 단지 허락된 일일 뿐 아니라 유익한 것”이라고 하였다.²⁷⁰⁾ 그러면서 그 성경적 전거로 창세기 48장 16절과 여호수아 5장 14절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787년 제 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천사상(天使像)에 대한 공경이 허락되었는데, 천사상에 대한 공경이 허락된다면 천사 그 자체는 훨씬 더 공경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²⁷¹⁾

그러나, 칼빈은 천사들이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바울과 요한의 예를 들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골 2:18)고 하였으며,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자, 천사가 즉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계 19:10)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천사 숭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며, 인간 스스로의 변덕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²⁷²⁾

튜레틴은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며, 그들의 후원과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도록 한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의 말이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부인한다

270) Ferdinand Holbock, 26.

271) “구약에서는 야훼와 야훼의 천사 사이가 분명히 구별 되지 않기 때문에 야훼와 야훼의 천사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같은 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들을 전거로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Ferdinand Holbock, 17.

272) John Calvin, I. x iv, 12.

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분만이 우리를 중재할 수 있으며(롬 8:34, 35; 요일 2:1, 2), 둘째,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는 것은 중재자와 제사장적인 직무의 한 부분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딤후 2:5), 셋째, 그 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 갈 수 있는 것은, 그 분만이 그들의 부패와 불순을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는 말씀은 창조된 천사가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천사를 말한다(그리스도께서 이 직무를 수행한다).²⁷³⁾

찰스 하지도 “천사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뜻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셔서 사용하시고(히 1:7),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도구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²⁷⁴⁾

천사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며, 그러므로 그들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위엄에 존경을 표해야 하며, 그들의 탁월성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그들이 나타났을 때 공경을 표하고, 그들의 충고를 순종하며, 그들의 본을 따르고, 상호 애정으로 그들의 깊은 사랑에 보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의 위엄이 클지라도 우리는 그들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성경은 종교적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테리 로(Terry Law)는, “하나님이 아닌 천사들을 찾도록 하는 것과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을 추구하는 것, 성경 속에 제시된 것이 아닌 다른 길을 추구하는 것이야 말로 성도들이 삼가야 할 것”이라 하였다.²⁷⁵⁾

273) Francis Turretin, vol. I, 563.

274) Charles Hodge, vol. I, 642.

4.5 마귀론

4.5.1 마귀의 존재와 출생

예수는 베드로 안에서 교묘히 활동하는 사탄의 소행을 눈여겨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크게 꾸짖었다(마 16:23). 이 호된 꾸중을 잊지 못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49%는 악한 천사, 즉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했다.²⁷⁶⁾ 그리고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성경이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존재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약의 일곱 책과 신약의 모든 기자들은 마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약에 나오는 29번의 특정한 언급 중에서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25번이나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천사의 문제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받아들였던 무언가를 우리가 거짓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마귀는 존재한다.²⁷⁷⁾ 그러나,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유혹 받기 전에 천사들의 창조와 타락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교만이라는 것이 어거스틴 이래 오랜 전통이며, 빌리 그레함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들을 욕심내면서 “내가”라고 한 것이 타락의 원인이라고 하였다.²⁷⁸⁾

칼빈은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사악함은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왔다”고 하면서, 마귀의 기원이

275) Terry Law, 116.

276) Nancy Gibbs, “Angels Among Us,” *Time*, 27 Dec. 1993, 61. The telephone poll was conducted by Yankelovich Partner Inc. on Dec. 2, 1993.

277) 일반적으로 사탄과 마귀는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는데, 사탄은 “훼방자” “대적자”로, 이는 첫째로 사람의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의 대적자를 지시하는 것이다.

278) Billy Graham, *천사 이야기*, 91. 그러나, 이 구절을 개혁교회에서는 사탄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천사와 같다고 하였다.²⁷⁹⁾ 그러면서, 마귀의 타락과 그 원인, 방법, 시기, 성질에 대하여 성경이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철저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만 마귀론도 전개한다.

그러나, 칼빈은 마귀가 단순한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으키는 선한 영감 혹은 충동이 아니며, 육체에서 오는 악한 감정 혹은 마음의 불안이 바로 마귀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반박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⁸⁰⁾ 그 이유는 성경이 적지 않게 명백히 증거 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귀를 관념적이거나 신학적인 논고의 대상이 아니라 본질적 투쟁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복음과 참된 신앙과 성도들의 삶과 안녕을 위해(危害)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소행으로 보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이다.

한편 칼빈은 ‘마귀와 그 사자들’(마 25:41); ‘용과 그의 사자들’(계 12:7); ‘귀신의 왕 바알세불’(마 12:24) 등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귀신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의의 나라에 반대하는 악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단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처럼, 불신앙의 무리들과 불경건 그 자체는 그들에게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왕과 함께 묘사된다고 하였다.

찰스 하지 역시 영적 세계에는 단지 하나의 디아블로스(devel, 마귀)와 다수의 다이모니아(demons, 귀신들)들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천사들은 그들의 지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알려 준다. 그것들은 범죄한 천사들로 언급 된다”고 함으로써, 마귀는 천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타락한 천사라고 하였다.²⁸¹⁾ 즉, 그의 모든 동료 천사들보다 훨씬 등급이 높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하나의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교훈이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는 나타나

279) John Calvin, I. x iv, 16.

280) John Calvin, I. x iv, 19.

281) Charles Hodge, vol. I, 643.

있지 않으며,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근거한 교만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귀의 수하들로 표현되는 귀신들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 세상에서 죽은 악인들의 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²⁸²⁾

바르트는 천사에 대하여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마귀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재미있어 하거나 그들에게 심각하고 조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칼빈과 하지가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는 주장인데 반해, 바르트는 마귀가 타락한 천사라는 말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말해지고 있지만, 이사야 14장 12절; 창세기 6장 1-14절;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등에 나오는 본문은 “매우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따라 가도록 추천할 만하지 않다”고 하였다.²⁸³⁾ 참을 수 없는 인위성이 천사들이 타락하여 마귀와 귀신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교리를 발전시키는 기초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르트는 마귀를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그들의 기원과 본질은 無에서 온 것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²⁸⁴⁾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며, 두 영역의 기원과 본질은 함께 속해 있지 않고, 천국과 지옥 사이만큼 공통된 점이 없으며, 그들은 공통된 뿌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²⁸⁵⁾ 그러나, 바르트는 “성경은 결코 마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힘이 없다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존재와 본성은 명확하다”고 하였다.²⁸⁶⁾

그런데, 이런 악의 존재문제를 이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악의 근원을 하

282) Charles Hodge, vol. I, 644.

283) K. Barth, III/iii, 530. 마귀는 ‘타락한 천사’란 주장과 ‘선의 결핍으로서의 악’은 모두 어거스틴에게서 나온 것이나, 여기서 후대에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들이 등장한다.

284) K. Barth.

285) K. Barth, III/iii, 520.

286) K. Barth, III/iii, 529.

나님께 귀찮시키지 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에 결정적인 한계를 두게 된다. 반면에 일원론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악의 근원으로 될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선의 결핍으로서의 악’이나 ‘부정적인 악(das Nichtige)’이라는 개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바르트의 경우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개념을 도출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히크(John H. Hick)는 악을 무존재(non-being)라고 생각하는 설명에 대해 비판적이다. 물론 신관과 창조론에 입각한 형이상학적인 진술로써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경험적인 진술로써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⁸⁷⁾ 사실 바르트의 마귀는 실체와 인격을 가지고, 생명력과 자발성을 가졌으며, 형태와 권세와 움직임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즉, 마귀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바르트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시킨다. 천하 만물 가운데 신이 창조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물론 없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마귀가 없으면 성경에는 천사와 함께 마귀에 관한 말이 많은데 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귀를 부인하면서 마귀와 유사한 존재 양태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존재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바르트의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 천사는 살려주는 조물주 영에 의해서 사는 영으로, 그 사는 방법이 지위로 살고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그러므로 천사는 자기 지위를 떠나면 거둬낼 수 없는 영원한 타락으로 영벌된 영생에 이르는 마귀이다(계 12:9-12). 성경의 많은 부분 가운데서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며, 인격을 갖고 있으며, 단순히 악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거나 말하기 좋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얼마든지 있다. 그는 넓은 의미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이며, 영향력을 가진 능력 있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도덕 무대(moral stage) 위의 또 다른 주연이다.

그리고, 사탄의 천사들이 성경에서는 귀신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다. 예

287) John H. Hick, *Evil and the God of Love* (Norfolk, England: Collins, 1974), 301-302.

를 들어,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마귀와 그 사자들”, 계시록 12장 7절의 “용과 그의 사자들”, 마태복음 12장 24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등으로, 대등 접속사를 사용하는 문장 상의 이해에 기초하여 초대교회에서는 귀신을 마귀와 성격이 동일한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수께서도 마귀가 귀신들의 주관자라는 개념을 받아 들이셨다(마 12:22-28).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마 10:1), 그들에 대한 승리를 사탄에 대한 승리로 여기셨다(눅 10:17-18). 그 같은 이해로도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이 초대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예수는 어느 누가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꾸짖은 적도 없으셨고, 귀신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암시를 준적도 없으셨다. 구약과 신약에 나온 귀신들의 이름들은 그 존재를 실증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격과 관련성도 밝혀준다.

한편, 정령론을 믿는 통속적인 신앙에서는 귀신을 죽은 자들의 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일각에서도 귀신을 불신자의 죽은 영혼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초대교회의 입장이나 성경의 가르침 속에 근거가 없다. 사악한 죽은 자들에 대한 성경의 견해에서는 그들을 산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감금당해 있으며, 하나님의 형벌로 의식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본다(눅 16:19-26). 그리고, 신약에서 귀신을 말하는 가장 흔한 용어는 daimonion과 pneumata이며, “devils”라는 번역은 정확하지 못하고 “demons”라고 해야 옳다.

4.5.2 마귀의 속성과 한계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다(요 8:44). 그는 그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흑암으로 빛을 가리며 인간의 마음을 오류에 말려들게 하고 증오를 일으키며 논쟁과 싸움을 선동하여,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며 인류를 자신과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항하게 한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천상 사자들의 대적자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천사들과 귀신들은 창조와 혼돈, 하나님의 자유은총과 무, 선과 악, 생명과 죽음, 계시의 빛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둠, 구원과 파멸, 케리그마와

신화와 의 관계와 같다”고 하였다.²⁸⁸⁾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²⁸⁹⁾ 찰스 하지 또한 “거룩한 천사들에게 속하는 제한들이 그들의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존하며, 오직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허용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⁹⁰⁾ 바르트 역시 “마귀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으며, 그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귀적 영역을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⁹¹⁾

그러므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악도 감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욥 1:12, 2:6). 그러므로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창조주께 순종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촉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러한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이 반항과 반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²⁹²⁾

4.5.3 마귀의 활동과 영적 전투

성경 속에서 마귀의 이름이 40가지 이상으로 불린다는 것은 마귀의 성격이나 개성을 짐작하게 해 준다. 마귀, 뱀, 큰 용, 살인자, 거짓의 아버지, 바알세불, 아바돈(지옥 마왕), 사단,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광명의 천사, 이 세상 통치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등등은 그의 하는 일들이 다양하며 광범위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고후 11:14)로 자신의 정체를 속이며 “거짓의 아버지”(요 8:44)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

288) K. Barth, III/iii, 520.

289) John Calvin, I. iv, 17.

290) Charles Hodge, vol. I, 644.

291) K. Barth, III/iii, 520.

292) John Calvin, I. x iv, 17.

는 것이 어둠의 세력의 본질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부주의와 생각 없는 방식을 좋아하며,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싫어한다. “귀신적이고 사탄적인 모든 현상들의 특징은 이러한 은밀성과 솔직하지 못함에 있다.”²⁹³⁾

그리고, 바르트는, 천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하거나, 독립된 모습을 띠려하거나, 독립된 역할을 하려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거나 한다면, 그는 거짓말 하는 영, 즉 악령일 것”이라 하였다.²⁹⁴⁾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주목받으려 하고, 사랑과 명예와 칭송을 받으려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거래하고 교제하려고 사람들을 꺾는다고 하였다.

마귀는 자신을 매우 사소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을 숨김으로써, 아무 염려 없는 낙천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을 한다. 마귀는 이렇게 주목받지 않는다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자신을 무시하면, 그는 다시 그의 권세로써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게 될 때까지 그들의 힘을 숨김으로써 우리를 속인다. 우리가 그를 절대화하거나, 그래서 진정한 권세로서 그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를 거짓으로 숨김으로써 우리를 속인 것이며, 우리가 무시하려고 함으로써 다시 그들에게 속게 되기까지 잠시 존재한다. “마귀는 실제적이고 활발하며 힘이 있고, 가끔씩 심각하고 엄숙하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교활하고 강하며, 이 모든 자질들이 결합하여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²⁹⁵⁾

마귀는 신자들과 싸우며, 저들을 기습하기도 하고, 평안을 깨뜨리며, 싸움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자주 피곤하게 하며, 패배시키기도 하며,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저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저들은 신자들을 근심에 빠지게 하며, 심한 타격을 가하여 쓰러지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불경자들을 정복하여 끌고 다니며, 그 영혼과 육체를 확대하고, 노예처럼 저들을 능욕하여 갖가지 수치스러운 행위를 일삼게 한다. 그

293) Emil Brunner, vol. II, 143.

294) K. Barth, III/iii, 481.

295) K. Barth, III/iii, 527.

러므로 신자들은 이 악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불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르트는 이러한 마귀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특별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으며, 개인의 성장과 상호관계 속에 있으며, 일상의 빵을 위한 관심과 다툼 속에 있으며, 만족을 찾거나 염려와 편안함, 열정이 솟아나는 곳과 식는 곳, 게으름과 열심, 어리석음과 재치, 조직적인 곳과 혼돈, 민족과 나라들, 그리고 아름다운 일치와 교회의 용서 속에도 있다고 하였다. “천사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도 있다”는 것이 바르트의 견해이다.²⁹⁶⁾

사실 그들은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선포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통치하시지 아니하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존재한다. 성경은 결코 마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힘이 없다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존재와 본성은 명확하다. 그리고 신약성경이 구약보다 마귀에 대해 더욱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칼빈은 마귀가 단순한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신자의 영혼에 대하여는 사탄이 그 어떤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단지 자기 백성의 수에 넣지 않기로 하신 불경자들과 불신자들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minds)을 혼미케 하며(고후 4:4),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엡 2:2)한다.

한편 튜레틴은, 그들이 육체에 대해서는 모든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외부적 혹은 내부적 감각을 흥분시키거나 묶을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적 영혼(rational soul)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이는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뜻대로 묶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⁹⁷⁾

296) K. Barth, III/iii, 528.

297) Francis Turretin, vol. I, 547-548.

그래서 튜레틴은, 마귀가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역사한다”(엡 2:2)고 말하는 것도 즉시 이성적 영혼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제안이나 유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적 혹은 내부적 감각에 영향을 미침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요 13:2)고 말하는 것도 이성적 영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감각적(sensitive) 영혼과 감정에 자신을 주입한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²⁹⁸⁾ 튜레틴이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 영혼(rational soul)은 soul에 해당하며, 감각적 영혼(sensitive soul)은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mind)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찰스 하지는 “악한 영들은 존재한다. 그들은 인간들의 마음(minds)과 육체(bodies)에 역사 한다”고 하였다.²⁹⁹⁾ 그리고, 악한 영들의 능력과 행위에 관해 말한다면, 그것들은 모든 곳에서 활동하고, 우리 세상에 접촉하며, 자연과 인간들의 마음(minds) 속에 작용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악의 영들의 권세가 인간들의 정신(minds)과 육체(bodies)를 사로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복음전도의 역사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언급되는 귀신들림”³⁰⁰⁾이라 하였다.

바르트는 악한 영들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영혼(soul)의 깊숙한 곳에 있다”고 하였다.³⁰¹⁾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나라 사이에, 교회 안에 그들이 있다고 예를 들었는데, 그들이 사람의 정신(minds) 속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영혼(soul) 속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귀를 가르치는 의도는 무엇인가? 성경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 5:9)고 하였으며,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298) Francis Turretin, vol. I, 548.

299) Charles Hodge, vol. I, 646.

300) Charles Hodge, vol. I, 645.

301) K. Barth, III/iii, 528.

고 경고한 후, 그렇게 크고 위험한 싸움을 하는데 적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같은 전투명령이 많이 들어 있다.

칼빈은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깨우쳐서 저들의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따라서 이들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 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는데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칼빈은 “원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함으로 원수를 저항하는 일에 태만하거나 부주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 믿는 자들이 영적전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다.³⁰²⁾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자들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모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르트는 “거짓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강력하다”고 하였다.³⁰³⁾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항상 강력하며, 우리의 방어망을 뚫거나 탈출을 차단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저항하려 하거나 휴식을 찾으려 할 바로 그 시점과 장소에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바르트는 “그들의 힘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단지 거짓의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실제적인 힘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단지 진리만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⁰⁴⁾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긍지를 지니고 그것에 대해 밝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의 면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관심 한 척 해야 한다. 그 속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無와 거짓세력을 전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Emil Brunner의 말처럼 마귀의 속성은 은밀성과 거짓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이며, 진실함과 정직함은 마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탄에 대한 승리는 확실하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롬 16:20)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

302) John Calvin, I. x iv, 19.

303) K. Barth, III/iii, 528.

304) K. Barth.

라”(눅 10:18)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사탄과 그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마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정복하셨다는 것이다. 십자가는 마귀의 패배의 표지이며, 그것을 정복한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정한 선포는 마귀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며, 마귀를 한 귀퉁이로 몰아넣는 일이 될 것”이다.³⁰⁵⁾ 마귀는 초인간적인 실체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진짜 투쟁이며, 구원은 진실한 승리인 것이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투쟁 없이는 절대 그 위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마귀는 “대적하여”(약 4:7) 싸워야 한다.

살아있는 복음의 선포는 메시지가 강력하면 할수록 어둠의 권세의 악의도 사나울 수 있다. 그러나, 악령들은 결코 신자들을 정복하지도 못하며, 박멸하지도 못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창 3:15)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전 생애를 통해 수고하여 마침내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그 승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만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벗어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은 저들의 활동을 지배하시며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악령들을 굴복시키시며, 저들로 하여금 “신자들과 싸우게 하심으로써 신자들을 훈련시키신다.”³⁰⁶⁾

305) Emil Brunner, vol. II, 145.

306) John Calvin, I. x iv, 17.

5. 한국교회의 천사론과 마귀론

5.1 천사론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구체적인 영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동화나 환상에나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영적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에 있다 하겠다. 그리고, 천사송배와 수호천사 같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견해 혹은 천사들의 계급이나 명칭 등등의 다양한 종파들의 각양 역사적 주장들이 뒤섞여, 어느 것이 올바른 천사론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영적 무지는 비행접시나 뉴 에이지와 같은 영적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며, 천사와 마귀와 같은 영적존재들을 무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주로 북미 선교사들의 영향 하에 신학연구가 이루어진 한국교회는 천사론이 신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1975년에 쓴 *Angels, God's Secret Agents*가 번역되어 나온 것이 천사에 대한 처음 소개이다. 그 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서적이거나 연구 결과물이 없었으나, 90년대에 들어 미국 중심의 천사론이 다수 번역되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천사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조직신학자들 중 김군진, 김광식, 박봉량은 천사론 항목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박형룡과 이종성만이 천사론 항목을 설치하여 다루고 있다.

이종성은, “신약과 구약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천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며, 타락한 천사는 사탄이 되었고 선한 천사는 天使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고 하였다.³⁰⁷⁾ 그리고, 칼빈의 천사론과 바르트의 천사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바르트의 마귀론에 대해서는, 마귀를 신의

307) 이종성, 297.

피조물이 아니라 무(無)라고 한 것에 대해, “신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³⁰⁸⁾라고 하였으며, 마귀는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생겼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박형룡은 창조론과 섭리론 사이에 ‘영적세계’란 항목을 따로 설치하여 천사의 존재와 창조, 천사의 성질, 수, 조직, 봉사, 악한 천사들, 천사 교리에 대한 이의(異議), 오해 등 비교적 많은 분량의 천사론을 다루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보다는 천사에 대한 여러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며, “금일의 교회는 전체에서 천사들보다도 귀신들을 더 의식하게 됨은 교회가 금일의 환경에 횡행하는 천만의 악세력의 자극을 받은 결과이다. 그러나 귀신의 의식에서 천사의 의식으로 과도(過渡) 하는 거리는 멀지 않다”³⁰⁹⁾고 하면서, 전에는 먼저 귀신들이 기각되고 다음에 천사들이 무시된 것 같이, 지금은 먼저 귀신들이 의식되고 다음에 천사들이 신학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

김재진은 **칼 바르트 신학해부**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천사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바르트의 견해를 잘 소개하고 있다. 그는 바르트의 천사론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Botschafter)의 역할과, 위기에 직면한 인간을 돕는 구원사역(Hilfswerk)과, 넓은 의미에서 신적 사역을 대리하는 것(Mandatar)이라고 하면서, “특히 천사의 중재자적 구원 사역을 고려해 볼 때에, 천사론은 기독교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³¹⁰⁾ 왜냐하면 예수가 존재론적 임마누엘이라면, 천사는 기능적인 면에서 임마누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현현하시는 메시야이며, 예수를 참 신이요 참 인간(vere deus, vere homo)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추상화된 순수 교리적 진술만이 아니라, 천사론에서 그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998년에 출판된 침례교단의 김호식의 **천사론: 하나님의 사역자**는, 지금

308) 이종성, 304.

309)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전집**, 제 2권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424.

310) 김재진, 179.

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천사에 관한 서적들이 모두 미국 중심의 천사론을 번역한 것들인데 반해, 처음으로 국내 학자에 의해 출판된 천사에 관련된 책이다. 그러나, 그는 천사의 창조시기를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론(Gap Theory)³¹¹⁾을 주장하고 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영계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고, 그룹은 이 원래의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³¹²⁾고 주장하며, 영계의 존재들이 창조된 후에 물질세계가 창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천사의 창조시기가 하나님의 6일 창조 기간 동안이라는 대다수 개혁신교회 신학자들이 견해와는 다르다. 칼빈, 튜레틴, 하지와 같은 개혁신교회의 보수적 전통은 영계의 창조시기를 물질세계의 창조와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적 간격론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튜레틴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천사들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였다.³¹³⁾ 그리고 천사들의 창조는 첫째 날 사역의 일부였다는 것은 어거스틴에서부터 내려오는 종교개혁자들의 오랜 견해이다.

김호식은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이 바로 수호하는 천사들(Guardian Angels)이라는 개념의 출처라고 하면서, 미국 신학에서는 이 수호천사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보편화된 단어라고 하는 등, 수호천사를 인정하는 것도 개혁신교회와 맞지 않는 이론이다.³¹⁴⁾ 개혁신교회의 모든 신학자들은 개개인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글들은 독자들의 혼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개혁신교회의 천사론이 속히 정립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라 하겠다.

311)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시에 미생물을 포함한 일부 동식물이 이미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혼돈상태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이론 (간격론, Gap Theory).

312) 김호식, 141.

313) Francis Turretin, vol. I, 540.

314) 김호식, 214.

5.2 마귀론

한국교회에서는 마귀론이 아니라 귀신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주로 북미의 선교사들의 영향 하에서 천사론 뿐 아니라 귀신론도 한국 신학계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해방 이전까지는 실상 마귀론이나 귀신론 관련 글을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 침례교회의 김기동 목사가 전국적으로 축귀 사역을 행하였고, 1980년도에 침례교회의 요단출판사가 메릴 영거의 **성서적 마귀론**(*Biblical Demonology*)을 출판하면서 마귀론 혹은 귀신론이 신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서 미국의 마귀론 도서들이 다수 번역되기 시작하였고, 김기동 목사가 1985년에 **마귀론**을 출판한 이후로 여러 도서들을 발간하였다.³¹⁵⁾ 1990년대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마귀론에 대한 단행본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신학잡지나 신학자들의 세미나에서도 신학자들에 의해 귀신론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귀신론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귀신의 존재 여부, 사역, 귀신들림, 축귀 현상 등이 아니라, 주로 귀신의 기원 문제이다. 귀신의 기원에 대한 학설에는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진다. 귀신 존재의 부인설, 타락한 천사설, 아담 이전 영혼설,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 악한 자들의 혼령설 등이다.

그 가운데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학설들에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모든 기록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다는 ‘신화설,’ 그 당시 사람들의 무지와 미신적인 경향에 맞추어서 사상을 조정하여 말씀하셨다는 ‘조정설,’ 병들고 정신착란에 빠진 환자가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격앙상태나 흥분상태에 몰입해 있을 때 환자 자신이 어떤 힘센 다른 존재에 사로잡혀서 지배당하고 있다고 가상하게 된다는 ‘환상설’ 등이 있다.

315) 김기동, **마귀론**(상, 중, 하) (서울: 배외아출판사, 1985, 1986); **성서적 신학적 현상적 마귀론** (서울: 배외아출판사, 1988)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론 가운데 ‘아담 이전 혼령설’은, 소위 ‘재창조설(restitutionalism)’의 갭 이론(gap theory)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들은 아담 이전의 인종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지금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은 루시퍼의 통치하에 있었고,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육체가 해체돼 버렸는데, 이들의 영이 바로 오늘날 세상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라는 주장이다. 귀신들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 사로잡으려는 이유는 그들의 육신이 해체된 영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귀신에 관한 이해를 구약과 연관 지으려는 입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여 지는데, 펨퍼(G. H. Pemper), 크라렌스 라르킨(Clarence Larkin), 네비우스(John S. Nevius), 오토만(Ottman) 같은 학자들이 이 학설에 동조하고 있다.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김기동도 이러한 학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의 **마귀론**에서 “천사의 타락 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어둠과 먼지와 안개가 가득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 가지는 천지 창조 때 창조하신 사실이 없으며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천지 창조는 그 다음에 이루신 일입니다”³¹⁶⁾라고 하여, 하나님이 이미 한 번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그 어둠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마귀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다.

그런데, 천사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고 볼 때, 창세기 1장 2절에서 악의 기원을 찾는 것은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바르트는 악은 “無的인 것”(das Nichtige)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als nicht-seiend), “제 3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로흐만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이 바로 무실자이며, 무실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나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과 다른 제 3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하였고, 톨리히 역시 악이란 비존재(nicht-sein)이며, 이 비존재가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론적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316) 김기동, **성서적 신학적 현상적 마귀론**, 76.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설’은 노아의 홍수 전에 타락한 천사들과 여자들이 동거하여 생긴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그 영들이 지상에 귀신들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학설은 창세기 6장 1, 2, 4절을 증거로 삼고 있다. 이 설은 저스틴 마터, 터틀리안 등이 지지하였다.

귀신들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학설은 19세기의 알렉산더 켈벨(Alexander Campbell), 그리고 최근의 윌리엄 바이저(William C. Viser), 조우 비임(Joe Beam) 등의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귀신론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기동 목사는 ‘아담이전 혼령설’과 ‘불신자의 사후 존재설’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다. 김기동은 마귀와 귀신의 기원을 달리 하고 있는데, 마귀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이며,³¹⁷⁾ 죄를 짓게 함으로써 영에 관한 영원한 문제를 가져다주며,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³¹⁸⁾으로, 사람의 몸에 직접 들어와 육체를 파괴함으로 질병을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귀신이 그 몸에 잠재되어 있는 한 병은 계속 재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갈 때 반드시 미혹의 영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³¹⁹⁾ 미혹의 영은 천사에 속하며 귀신은 천사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서, 사람을 돕는 천사들이 가변된 것이라 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을 비롯해서 인류는 인간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관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기동은 바로 이런 전통적인 귀신관을 따랐다. 그런데, 김기동은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약 3년 동안 8,000여명의 사람들로 부터 귀신을 쫓아내면서 얻은 결론이라고 하였다.³²⁰⁾

317) 김기동, **마귀론(상)**, 27.

318) 김기동은, 그의 경험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는 주장은 수십 만 명의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귀신들 가운데서나 또는 8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운데서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자연수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일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였다. **마귀론 (하)**, 147.

319) 김기동, **마귀론(하)**, 66.

320) 김기동, **마귀론(하)**, 146-155. 그는 대상이 된 8000명을 네 종류로 분류하였더니 ① 죽은 불신자의 영혼, 7995명 ② 천사, 2명 ③ 신자였으나 후에 배교, 2명 ④ 신자였다가 자살, 1명이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귀신은 영적 존재이나 완전한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며, 그들은 제한된 활동범위와 사역상 제한된 수명을 가진다.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는 기간은 대략 1-2년에서 30년 가량인데, 정상적인 사람의 자연수명은 120년으로, 귀신은 자연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나머지 기간만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³²¹⁾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을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사상에 기인한 이단설이라 하며, 귀신은 단지 타락한 천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도서들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천사론이 다루어진 것처럼, 국내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 마귀론에 대한 단행본들이 발간되기 시작했고,³²²⁾ 신학잡지나 신학자들이 세미나에서도 귀신론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³²³⁾

그러나, 귀신의 정체는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 칼빈을 비롯한 튜레틴, 찰스 하지 등 개혁교회의 정통적인 신학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보수신학자들이 지지하는 학설이다. 이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12장 24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 역시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마귀와 그 사자들,” 계시록 12장 7절의 “용과 그 사자들”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사탄이 타락할 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을 취했다는 것이다. 알 레리시(Al Lacy)는 계시록 12장 3-4절³²⁴⁾을 근거로 자신과 함께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을 취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³²⁵⁾에 따라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주장한다.³²⁶⁾

321) 김기동, **마귀론(하)**, 175.

322) 임수식, **성경이 가르치는 마귀론** (서울: 보이스사, 1991); 도서출판 두란노 편, **마귀론 대해부** (서울: 두란노출판사, 1992); 신태웅, **성서귀신연구** (서울: 국제선교연구원, 1992); 정남렬, **사탄의 사령부** (서울: 세신, 1993); 김호식, **사탄, 그는 아직도 견제하다** (서울: 요단출판사, 1995).

323) **목회와 신학** (1990, 10)은 “마귀론 대해부”라는 특집으로, 신학과 성경과 무속과 정신의학에 나타난 마귀론을 다루었다.

324) 그 머리들 위에 일곱 왕관이 있더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계 12:4).

325)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9).

326) Al Lacy, **천사는 있다**, 정동수 역 (서울: 말씀과 만남, 2003), 77.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는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요약하면³²⁷⁾ (1) 귀신은 죽은 자들의 혼령으로 가장하여 나타난다는 것, (2) 귀신(악령)은 그 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의 흉내를 낸다는 것, (3) 귀신(악령)은 그 지방 문화를 “학습” 하여(문화조정설) 죽은 자의 영인 것처럼 모방한다는 것, (4)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릴 수 없다는 것(사무엘은 불신자가 아니므로), (5) 소위 “친근한 영”(familiar spirits)은 죽은 친척이나 가족들의 모양, 습관, 생활을 모방한다는 것, (6) 악령의 역할 근거지는 하늘들로써 땅으로 왕래한다는 것 등을 예로써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사악한 자의 사후 영이라는 사람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사악한 자의 사후 영을 주장하고 있다. (1) 아담 이전에 루시퍼의 타락으로 함께 타락한 종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육신이 해체된 종족의 영이라는 것. (2)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태어난 반 천사-반 인간으로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존재라는 것. (3) 사악한 인간(불신자)의 사후 영이라는 것 등이다.

귀신이 죽은 자의 사후 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의 출처를 따로 설명하고 있지만, 마귀나 귀신이나 천사는 다 같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러한, 사람과 천사는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른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도 죽어서 그 영혼이 천사가 되는 법이 없고 또 천사가 사람이 되는 법도 없다. 성경은, 구원이 완성되어 하늘의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그 곳에는 천사들은 천사들대로, 장자들의 총회는 장자들의 총회로, 교회는 교회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은 영대로, 별개의 존재로 거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히 12:22-23). 그러므로 사람은 천국에 갔던 지옥에 갔던 어느 때든지 사람으로 남아 있고 천사는 천사로 남아 있다. 똑같은 원리로 사람이 귀신이 되는 법도 없고, 귀신이 사람이 되는 법도 없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 귀신관이 성립된다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특정한 영적 상황 가운데 안식을 취하고 있는

327) 예영수 등, **마귀론 이해** (서울: 은성출판사, 1998), 309.

상태에 있으므로(참조 눅 16:19-31), 죽은 자의 영이 이 세상에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해는 부정된다. 죽은 자들은 영혼은 즉시 음부나 낙원에 들어가며 거기서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³²⁸⁾ 또한, 불신자 사후의 영이 귀신이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은 곧 성경의 많은 곳에서 경계하고 거부하는 무속 신앙의 귀신관을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무속의 제의 행위가 철저히 악한 영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한 기만과 속임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이 모두 은폐될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인식은 “또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죽은 인간을 신에 상응하는 존재로 섬기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 준다”고 하여,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영혼이라는 주장을 경계하였다.³²⁹⁾

328) A. A. Hodge, **하지 조직신학** 제 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2), 405.

329) 예영수 등, 403.

6. 결 론

우리는 감각능력과 구별되는 지성 혹은 이성능력에 대해 말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고, 물질 또는 물체와 정신 혹은 영적인 존재를 언어상으로는 구별하고 있지만, 새삼스럽게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고 생각해 보면 거의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식 범위에 관한 한 감각주의나 물질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나 정신의 실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하다.

천사는 초월적 하나님이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땅에 사는 인간을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며,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성경에는 천사나 마귀에 대한 증거가 얼마든지 풍부하며 실제적인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천사에 대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입은 어거스틴에 의해 정리가 되고,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재해석되어 중세 가톨릭 신학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중세신학의 영향력 아래에서 종교개혁시대의 칼빈의 천사론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즉, 개혁교회 천사론의 뿌리는 어거스틴에게 있고, 그것이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 아래 칼빈의 신학이 나왔고, 그 후의 천사론은 칼빈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중세의 영향 아래 천사론을 전개하지만, 루터가 주장하던 수호천사나 상상력을 동원한 동화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한 천사론을 펼친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천사론은 가장 성경적인 동시에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적이다. 그러나, 튜레틴은 이러한 칼빈의 학설을 이어받았지만, 칼빈과는 또 다른 아퀴나스적인 스콜라철학의 영향 하에, 명쾌하고 논리적이며 사변적인 천사론을 전개한다. 사실 가장 수궁이 갈만한 천사론은 튜레틴의 주장에서 많이 발견

하게 된다.

그 후 19세기의 찰스 하지는 칼빈주의를 체계화 하고 변호하게 되는데, 하지 역시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천사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천사론을 정식 신학적 과제로 삼은 바르트 또한 성경의 증언에 근거하여 천사론을 전개하지만, 그는 천사에 관한 존재론적 규명보다는 오히려 천사의 사역 내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천사는 단순히 하나님을 시중하는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냄 받은 존재이며,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이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무엇보다 천사론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칼빈은 말할 것도 없고, 튜레틴과 찰스 하지 역시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므로 의심 없이 천사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상의 사변이나 권위는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는 그러한 접근방식에 차이가 생긴다. 바르트의 경우 하늘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견지에서 천사가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브룬너는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하여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며, 마귀를 멸하는데 성공하셨는데, 이로써 마귀의 존재 뿐 아니라 천사의 존재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바르트나 브룬너도 그 이전의 개혁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천사를 적극 긍정하며, 성경이 제공하고 조명하는 것에만 한정해서 보기 원하고, 그 이외의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은 무가치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천사는 사변의 산물이 아니라 실재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봉사자이다. 이는 동화적 상상력의 요소가 강한 루터의 천사론이나, 논리와 철학에 따라 천사론을 전개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것과 구별된다.

그러면, 천사론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학자들의 우선적인 관

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 문제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천사의 문제보다는 마귀나 어둠의 세력의 존재문제가 신학자들의 우선적 관심사였다. 이러한 선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려던 영지주의와 마니키이즘으로부터, 헤겔과 같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변증법적 설명, 인간의 육체적 본성, 사회구조 및 제도에서 오는 것, 혹은 자유의지, 타락한 천사 등 많은 가설들이 있다.

바르트는 이 부정적 문제를 하나님도 아니요 피조물도 아닌 제 3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 무(無)에서 악이 나왔다고 하였으며, 로흐만 또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Chaos)이 바로 이런 무실자라고 하였고, 톨리히에 있어서도 악이란 모든 존재론적 구조를 형성하는 비존재(nicht-sein)이다. ‘선의 결핍으로서의 악’을 생각하는 이러한 입장은 신플라톤주의로부터 유래되어 어거스틴에게 강한 영향을 준 개념으로, 이후 많은 신학자들이 이에 영향을 입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하여 악과는 구별하고 있으며,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어찌하여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이 신정론(神正論) 문제에서 마귀론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세상 다스리시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마귀론과 그 상대를 이루는 천사론은 필요불가결하게 나오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천사론을 다루는 위치가 신론 끝부분의 창조론과 섭리론 사이, 혹은 다음에 배치하는 것으로써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사론을 직접 다루고 있지 않는 김균진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다음에 악과 신정(神正)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황승룡도 창조론과 섭리론 다음에 신정론(神正論)을 취급하고 있고, 바르트는 천사론을 다루는 중간에 하늘왕국(The Kingdom of Heaven) 항목을 두고 있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천사론 보다는 마귀론이 신학적인 우선 관심사였으며, 마귀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천사론이 나중에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계몽주의 시대에 마귀론이 사라지면서 천사론이 사라진 것과, 근래에 와서 마귀론이나 귀신론이 다시 등장하면서 천사론

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천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창조 받은 피조물이다. 그들의 창조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엿새 동안에 창조된 물질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지음 받았으며, 모든 천사들은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각각 직접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가 다르다. 바르트나 로흐만, 킬리히와 같이 무(無)에서 악의 근원을 찾는 신학자들에게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다. 그들은 피조 되지도 않았으며,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들 자신의 존재방식대로 존재하며 부적당하게 존재할 뿐이다. 마귀와 천사는 뿌리가 다른 것이다. 한편, 칼빈과 튜레틴과 찰스 하지에게 있어서는 마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본래 천사와 함께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것이 존재이다. 이러한 전통은 어거스틴의 오랜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절대긍정하기 위한 조치로써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이러한 설명들이 나왔지만, 이것은 신관과 창조론에 입각한 형이상학적인 진술로써는 가능할지 몰라도, 경험적 진술로써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닌다. 그리고, 분명히 실체와 인격을 가지고, 생명력과 자발성을 가졌으며, 형태와 권세와 움직임을 가진 실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이다. 천하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천사 사회의 명칭과 위계질서를 맨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은 6세기 초에 씌어진 위 디오니시우스(Pseudo Dionysius)의 *천상위계론(The Celestial Hierarchy)*이며, 7세기의 대 그리고리오가 여기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이 설명을 계승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단테(Dante Alighieri, 1265-1321)의 저작을 통하여 후세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서양 중세의 천사론은 이 *천상위계론*의 결정적인 영향력 아래서 전개된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오늘날까지 이러한 전통 가운데 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전통은 성경에 나타난 이외의 천사들의 모양이나 명칭이나 계급이나 수에 대해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공허한 사색을 일삼는

것이며,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상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천사는 모양이나 형체가 없는 순수한 영적 존재이다. 다만 성경에는, 아마도 인간의 언어적 제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천사는 남성(masculine)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남성 대명사 ‘그’가 사용되고 있다(막 16:5-6, 눅 24:4). 그리고 그들이 나타날 때도 성경에서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나 아기천사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동물이나 새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천사들은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스랍(Seraphim)들과 그룹(Cherubium)들은 날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angels)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 존재들’(spiritual beings)이다.

개인을 수호하는 수호천사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이다. 이는 수호천사를 인정하는 로마 가톨릭과 침례교 등의 다른 교파의 견해와 다르다. 그리고,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며,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천사숭배를 공식화 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와는 다르다.

그러면 이러한 천사론이 언제부터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가? 성경의 증언과 초대교회에서부터 활발하던 천사론 및 마귀론은 중세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4세기 이후 신앙과 이성 또는 신학과 철학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우세하게 되어, 감각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순수한 정신적 존재인 천사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일은 드문 것이 되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시대이후에는 개신교에서는 천사들에 대한 주장들이 점점 신뢰할 수 없는 하나의 신화론으로 간주되어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8세기의 이성주의와 함께 현대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배제되었으며,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러한 천사론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1900년대 이래 일어난 미국의 성서 사경회 운동은 천사나 악령에 대한 관심을 다시 고조시키기 시작했다. 즉,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천사들이나 악령들 그리고 사탄이나 종말론 등에 대해 왜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일반 교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천사론, 악령론, 사탄론, 종말론 등이 1900년대 이후에 조직정리 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천사론이나 악령론, 사탄론 등은 미개척분야의 교리여서 조직신학 책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이후에 뉴 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 같은 것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영계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신학적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까닭에, 이제는 안일하게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계에 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개혁신학의 전통은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정립해야 할 단계가 된 것이다.

근래에 와서 한국교회에서는 귀신론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장본인인 김기동은 마귀와 귀신의 기원을 달리 설명하고 있는데, 마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이며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영에 관한 영원한 문제를 가져다주며,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으로서, 그것도 자연수명을 다 하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 영혼으로서, 이러한 귀신은 사람의 육체에 붙어 질병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는 아담이전 혼령설과 불신자의 사후 존재설을 따르고 있다.

이는 마귀와 귀신을 동일하게 타락한 천사라고 주장하는 개혁교회의 전통과는 다르다. 칼빈과 튜레틴, 찰스 하지를 비롯한 개혁신학자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수하에 있는 다 같이 타락한 천사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보수신학자들이 지지하는 학설이다. 또한, 불신자 사후의 영이 귀신이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은 곧 성경의 많은 곳에서 경계하고 거부하는 무속 신앙의 귀신관을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는 언제나 천사들의 존재를 믿어 왔다. 그러므로,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예수는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이며,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신앙고백문에서도 천사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봉사자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에도 천사들도 있다. 오늘

날도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시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한 천사들의 사명도 있는 것이다.

한편 필자는, 천사와 마귀의 출생이 학자들 사이에 불일치하는데 대해서, 천사와 마귀는 공통의 뿌리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 안에 속한다고 본다.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는 무(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학으로부터 성경으로 돌이켜야 한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천사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시도하지 않지만, 시종일관 그것을 가정하며 또한 그 역사서들에서 자주 우리들에게 천사의 활동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인 자는 아무도 천사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을 추구해서도 안 되며, 성경 속에서 제시된 것이 아닌 다른 길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신앙생활은 영적생활이며 영적전투이다. 그런데, 천사와 마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뉴 에이지 운동의 확산에 따라 비행접시(UFO), 외 별 달린 유니콘(unicorn) 등, 각종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교회 내부에까지 깊숙이 침투한 이때에, 이러한 영적전투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전략에 속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올바른 천사론을 정립하는 것은 영적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교회를 위해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천사가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천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올바른 신학정립이 없이 난무하는 마귀 및 귀신론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 마귀론이 사라지면서 천사론이 사라졌던 것처럼 마귀론이 살아나면서 천사론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한국교회에서도 천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피터 버거(Peter L. Berger)의 말처럼, 천사의 현현은 신의 현존과 그의 초월성의 신호가 된다. 어찌면, 현대교회가 신의 현존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잃어버린 천사 때문은 아닐까?

필자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믿음의 터전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계시하는 영적인 사실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한 영적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과 신앙만이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신앙이 추상성을 벗어나서 신의 현존을 경험하며, 구체적인 영적 전투장인 목회현장에서 영적전투를 힘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학근. “천사의 존재와 그 사역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1984.
- 고덕신. “유대 기독교의 천사기독론.” 석사학위논문,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1981.
-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4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8.
- 김광식. 조직신학 I. 서울: 성도인쇄문화사, 1988.
- 김군진. 기독교조직신학 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김기동. 마귀론(상). 서울: 배뢰아출판사, 1985.
- _____. 마귀론(중). 서울: 배뢰아출판사, 1985.
- _____. 마귀론(하). 서울: 배뢰아출판사, 1986.
- _____. 성서적 신학적 현상적 마귀론. 서울: 배뢰아출판사, 1988.
- 김남준. 당신은 영적 군사입니까? 서울: 솔로몬출판사, 1993.
- 김동건. “몰트만의 신정론.” 신학과 목회 제 14집 (2000): 165-191.
- 김두석. “창세기 1장 1절과 2, 3절과의 관계 연구.” 칼빈논단 (2002): 133-156.
- 김명혁. “성서적으로 본 귀신관.” 현대종교 149 (1986): 67-73.
- 김재진. 칼 바르트 신학 해부. 서울: 한들출판사, 1998.
- 김호식. 사탄 그는 견제하다. 서울: 요단출판사, 1995.
- _____. 천사론: 하나님의 사역자. 서울: 한글, 1998.
- 나학진. “신정론에 관한 연구.” 신학사상 제 42권 (1983): 611-636.
- 도서출판 두란노, 편. “마귀론 대해부.” 목회와 신학 10 (1992): 34 - 95.
- 류시완. “천사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박노원. 개혁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박봉량. 교의학 방법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적전집 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 신태웅. 성서귀신연구. 서울: 국제선교연구원, 1992.
- _____. 한국귀신연구. 서울: 로고스문화사, 1989.
- 예영수, 등. 마귀론 이해. 서울: 은성출판사, 1998.

- 원세호. **베뢰아 귀신론 비판**. 서울: 국제신학연구소, 1990.
- _____. **복음적 천사론**. 서울: 국제신학연구소, 1987.
- 윤민수. “이사야 14장의 천사론적 해석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합동신학대학원, 2003.
- 이경숙. “사울이 방문했던 엔들의 무당.” **기독교사상** 제 12권 (1993): 197-206.
- 이무석. “정신질환자와 귀신들린 자.” **목회** 108 (1985): 75-83.
- 이종성. **신론**. 서울: 한국기독교출판사, 1986.
- 이형기. **세계개독교회의 신앙고백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임수식. **성경이 가르치는 마귀론**. 서울: 보이스사, 1991.
- 정남렬. **사단의 사령부**. 서울: 세신출판사, 1993.
- 정하권. “천사는 누구인가.” **경향잡지** 9 (1998): 32-35.
- 조 현. **성경이 말하는 귀신 쫓는 방법 I**. 서울: 할렐루야서원, 1994.
- 최근환. **천사는 이렇게 활동한다**. 서울: 홍익재, 1994.
- 최영철. “천사와 악마는 실제로 존재할까.” **경향잡지** 7 (1990): 116-118.
- 한의택.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 서울: 예루살렘출판사, 1991.
- 황성규. “예수의 귀신축출과 빈 집의 우환: 누가복음 11: 24-26 (참고 마태복음 12: 43-45).” **기독교사상** 439 (1995): 244-50
- 황승룡. **조직신학(상)**.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92.
- Adler, Mortimer J. *The Angels and Us*. New York: Collier Books, 1993.
- Aquinas, Thomas. *The Summa Theologica*. Trans. by Daniel J. Sullivan. Vol. I.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c1952.
- Arnold, C. E. *Powers of Darkness: Principalities & Powers in Paul's Letters*.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2.
- Augustinus. **성어거스틴의 고백록**. 선한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_____. **하나님의 도성**. 조호연·김종흡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5.
- Bandstra, Andrew J. “Face to Face with Angels.” *The Banner*, 2 December 1991, 6-7.
- _____. **천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류호영 역. 서울: 은성출판

- 사, 1996.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vol. III/iii, *The Doctrine of Crea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G. W. Bromiley and T. F. Torrance. Edinburgh: T. & T. Clark, 1986.
- Berger, Peter L. **현대사회와 신**. 김쾌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 Berkouwer, G. C. *The Providence of God*. Translated by L. B. Smedes, Grand Rapids. MI: Eerdmans, 1952.
- _____.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Eerdmans, 1956.
- Berkhof, Hendrikus. *Christ and the Powers*. Scottdale, PA: Herald, 1962.
-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London: Cox & Wyman Ltd. Fakenham and Reading, 1971.
- _____. **별کم 조직신학**.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9.
- Boice, James Montgomery. *Foundation of the Christian Faith*. Revised by Downers Grove. III.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86.
- Bonhoeffer, Dietrich. **창조, 타락, 유희**. 문희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7.
- Brown, Dan. **천사와 악마**. 양선아 역. 서울: 베텔스만코리아, 2006.
- Brunner, Emil. *The Christian Doctrine of Creation and Redemption*. Trans. by Olive Wyon. vol. I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2.
- Burnham, Sophy. *A Book of Angels*. New York: Ballantine Books, 1990.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김종흡 외 3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 Carus, Paul. *The History of Devil: And the Idea of Evil from the Earliest Time to the Present Day*. La Salle ILL: Open Court Publishing Co., 1974.
- Danielou, Jean. *The Angels and Their Mission: According to the Fathers of the Church*. Westminster, MD: Newman, 1976.
- Davison, Gustav. *A Dictionary of Angels*. New York: Free Press, 1967.
- Dickason, C. F. *Angels: Elect and Evil*. Chicago: Moody Press, 1975.
- _____. **그리스도인도 귀신들릴 수 있는가?** 김병제, 이학규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_____. 천사, 사탄과 귀신론. 김달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7.
- Drake, W. Ramond. *Gods and Spacemen in the Ancient East*.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73.
- Eichrodt, Walther. *Theology of Old Testament*. Trans. by J. Baker. vol. II.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 Eliade, Mercia. *A History of Religious Idea*. Trans. by W. R. Trask. vol. I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Gibbs, Nancy. "Angels Among Us." *Time*, 27 December 1993, 56-65.
- Gilmore, G. Don. *Angel, Angels, Everwhere*. New York: Pilgrim, 1981.
- Graham, Billy. *Angels: God's Secret Agent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Garden City, 1975.
- _____. 천사 이야기. 이재철 역. 서울: 흥성사, 1996.
- Hayes, Norvel. *Putting Your Angels to Work*. Tulsa, Okla.: Harrison House, 1989.
- Hick, John H. *Evil and the God of Love*. Norfolk, England: Collins, 1974.
- Hodge, A. 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김종흡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 Hodge, A. A. 하지 조직신학. 제 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2.
-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vol. I. Wm. B.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3.
- _____. 조직신학. 김귀탁 역. 제 1권.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Holbock, Ferdinand. 천사론. 이숙희 역. 서울: 성요셉출판사, 1989.
- 이나가키 료스케. 천사론. 김산춘 역. 서울: 성바로출판사, 1999.
- Joppie, A. S. *The Ministry of Angels*. Grand Rapids, MI: Baker, 1953.
- Lacy, Al. 천사는 있다. 정동수 역. 서울: 말씀과 만남, 2003.
- Langton, Edward. *The Ministry of the Angelic Powers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and Later Jewish Literature*. London: James Clark, 1936.

- Law, Terry. *천사를 만난 사람들*. 조경옥 역. 서울: 은혜출판사, 2000.
- Leith, John.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생명의 샘, 1995.
- Lochman, J. M. *그리스도나 프로메테우스나?*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Lockyer, Herbert. *The Mystery and Ministry of Angels*. Grand Rapids, MI: Eerdmans, 1958.
- Louis, C. S. *마귀의 지령*. 엄성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2.
- Lumby, Rawson. *The Act of the Apostle*.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16.
- Luther, M. *What Luther Says*. Compiled by Ewald M. Plass. vol. I. Saint Louis, Missouri: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9.
- MacDonald, Hope. *When Angels Appear*.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2.
- MacGregor, Gedes. *Angels: Ministeries of Grace*. New York: Paragon House, 1988.
- MacGuinn, Bernard, 등. *기독교 영성*. 유해룡 외 3인 역. 제 1권. 서울: 은성출판사, 1997.
- Niebuhr, Reinhold.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 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49.
- Oehler, Gustave Friedrich.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rans. by George E. Day.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3.
- Robinson, John A. T. *But that I Can't Believe!*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67.
- _____. *Honest to God*. Philadelphia: Westminster, 1963.
- Ronner, John E. *Do You Have a Guardian Angels?* Indialantic, FL: Mamre, 1985.
- Schaff, Philip. *The Creeds of the Evangelical Protestant Church*. Contributed by Charles Brow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2004.
- _____. *Fathers of the Third Century*. Grand Rapids, MI: Christian

- Classics Ethereal Library, 2004.
- _____. **교회사전집**. vol. 5, **그레고리우스 7세부터 보니파키우스 8세까지**.
박명곤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Schleiermacher, Friedrich. *On Religion: Speeches to Its Cultured Despisers*.
Trans. by John Oma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893.
- Strong, A. H. *Systematic Theology: A Compendium*. vol. III. Philadelphia: The
Judson Press, 1907.
-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 I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 Turretin, Franci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vol. I. *First Through Tenth
Topics*. Trans. by G. M. Giger. New Jersey: Phillipsburg, 1992.
- Unger, Merrill L. **성도들을 향한 귀신들의 도전**.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6.
- _____. **성서적마귀론**.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
- Webber, Marlin Carson. **천사를 만난 사람들**. 조은주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6.
- Westermann, Claus. *God's Angels Needs No Wings*. Trans. by D. L. Scheidt.
Philadelphia: Fortress, 1979.

The Angelology of the Reformed Churches

Choi, Deog Keun

Department of theology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wang, Jae Bum, Ph. D.)

(Abstract)

Angels are important spiritual-beings along with God in the Bible as well as in church tradition. They, however, are rarely found in modern Christian theology. They are also lost in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which have been considerably hurt by demonology. In addition, modern books on angels are very different one another, and they fail to give us a clear understanding of them. And angelologies, it seems, have been almost replaced by demonologies, which seem to have dried up our spiritual wells. This unfortunate situation concerning angels has led me to study on them; and I investigate how some famous Reformed theologians did theology concerning angels and demons. And in the light of this study, I will also study how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have treated them.

Chapter II briefly deals with angelology through the history. I'll briefly study the various theories of angels in the early churches, especially that of St. Augustine. And then, I will also examine how Thomas Aquinas and Martin

Luther did theology about angels and demons.

Chapter III treats the angelologies in the Reformed tradition. Starting from the angelology of John Calvin, I will examine those of both Francis Turretin, the leader of the Calvinistic orthodoxy in 17th century, and Charles Hodge, who dominated old Princeton theology in the 19th century. And finally my focus will be given to Karl Barth who dealt with his angelology as an integral theological *locus* (subjects) in 20th century. I will also briefly check how the Reformed Confessions and Catechisms have treated angels.

The Reformed churches have insisted that we should undoubtedly talk about angels only because they are found in the Bible whose absolute authority have been defended by Calvin, Turretin, and Hodge. They, however, stopped where the Bible stops, not giving us any important interpretation of angels. And it is Barth, who have changed the orientation of angel-talk, saying that angels are indispensable, for they are God's instruments realizing his will on the earth. Differing from Barth, E. Brunner treats the angels in relation to Jesus Christ redemptive works.

Then, how did angelology arise? It is clear that the attempt to explain God's way of ruling the world, while demonology arose from a doctrine of theodicy. And it seems to be true that demonology is closely related to angelology,

somehow the former facilitating a clear formulation of the latter. So, it follows that, after had disappeared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angelology also disappeared, and that in recent times, demonology has got attention along with angelology.

Chapter IV shows how a Reformed angelology differs from other Christian traditions'. I found some common features of Reformed theologians' doctrines of angels. First, the Reformed theologians develop their angelologies drastically on the basis of the holy Scriptures. Second, they define angels as the servers of God's will and God's creatures. Third, they see angels also as spiritual beings who, being all males, have neither a body nor wings. Fourth, the Reformed Confessions also affirm the existence of angels. Fifth, the Reformed tradition does not view an angel as a mediator between God and humans, but as a true server, and therefore, they are not the object of admiration or worship. Sixth, the Reformed tradition does not know guardian angels who are believed to protect one privately. Seventh, the existence of the Holy Spirit reduced the roles of angels, although they are affirmed to exist. Eighth. while the Holy Spirit works inwardly and spiritually, the angels work outwardly and bodily. And Ninth, the devil and the demons are corrupted spiritual beings, and they are not the spirits of the unbelievers after death.

Chapter V studies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doctrine of angels.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have no clear doctrines or theologies of angels. Therefore this study fills the gap, providing the churches with a sound Reformed position on angels. This study also gives the churches a challenge to be aware of spiritual beings, positively angels and negatively demons. A religious life includes a spiritual battle in which knowledge of spiritual beings is very helpful. And I believe that this study will be quite beneficial to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which need a sound Reformed angelology.

개혁교회의 천사론

최 덕 근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 학 과

(지도교수 황 재 범)

(초록)

천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있어 중요한 영적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 또한 천사를 잃어 버렸으며, 귀신론에 의해서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 게다가 시중에 나온 많은 천사에 관한 서적들의 내용이 상이하야 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리고 천사론은 잘못된 귀신론에 의해 대치되고, 우리의 영적 샘을 고갈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상황은 본인에게 천사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학자들의 이론을 통하여, 한국장로교회의 천사론을 정리하는데 있다.

먼저 II장에서 천사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를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초대 교회의 다양한 이론들과 어거스틴의 천사론의 천사론을 특별히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마르틴 루터의 천사와 마귀론을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Ⅲ장에서는 개혁신학자들의 천사론을 다루게 된다.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17세기 칼빈주의 정통주의 지도자인 프랑소아 튜레틴(Francis Turretin), 19세기 구 프린스턴 신학을 지배한 찰스 하지(Charles Hodge)의 천사론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천사론을 정식 신학적 과제로 다룬 칼 바르트(Karl Barth)의 천사론 및 개혁교회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신앙고백문 속에 나타난 천사론을 살펴 볼 것이다.

개혁교회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강조한 칼빈은 말할 것도 없고, 튜레틴과 찰스 하지 역시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므로 의심 없이 천사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상의 사변이나 권위는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바르트는 하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견지에서 천사가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에밀 브룬너는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하여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천사론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어찌하여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이 신정론(神正論) 문제에서 마귀론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세상 다스리시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

한 필요성에서 마귀론과 그 상대를 이루는 천사론이 나오게 된 것이라 보인다. 즉, 천사론 보다는 마귀론이 신학적인 우선 관심사였으며, 마귀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천사론이 나중에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계몽주의 시대에 마귀론이 사라지면서 천사론이 사라진 것과, 근래에 와서 마귀론이나 귀신론이 다시 등장하면서 천사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IV장에서는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로마 가톨릭이나 다른 종파의 신학자들과 구별되는 천사론을 정리하였다. 개혁교회 신학자들의 공통된 천사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천사론을 전개한다. 둘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봉사자로서, 영적 실재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셋째, 그들은 육체를 지니지 아니한 순수한 영적 존재이며,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angels)은 모두 남성이고, 날개도 없다. 넷째, 개혁교회가 신앙전통으로 소중히 여기는 신앙고백문 속에서도 천사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아닌 순수한 봉사자이며, 따라서 천사는 존경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여섯째, 개인을 수호하는 개별적인 수호천사는 없다. 일곱째, 성령이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진 이후에는 천사들을 보내는 일이 덜 필

요해졌으며 천사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천사는 존재한다. 여덟째, 성령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역사하고, 천사는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역사한다. 아홉째, 마귀와 귀신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서 귀신은 마귀와 같이 타락한 천사이며,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 결코 아니다.

V장에서는 한국장로교회의 천사론을 정리하였다. 한국 장로교회는 천사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혁교회의 건강한 천사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장로교회에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임을 일깨우고, 천사와 마귀와 같은 구체적인 영적실체를 향해 도전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 연구가 건강한 천사론을 필요로 하는 한국장로교회에 매우 유익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 논문 저자 약력

1956년 경북 고령 출생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포항 유성여자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M. Div)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Th. M)

계명대학교 대학원 신학박사 취득예정

□ 논문 및 저서

「삶의 변화를 위한 소그룹 성경공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논문. 1995.

「초기 개신교회 신앙고백문 속에 나타난 세례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